

시로 읽는 성보순례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이끌고 나간다.
마음이 법이 되어 세상을 제어한다.
〈잡아함경 36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4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 889 호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가 5월 19일 종로일대에서 개최한 연등축제는 전세계인들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이었다. 제등행렬 이후 회향한마당에서 외국인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연등축제 해외서 참가신청 쇄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여개국서 7백명 접수

홈페이지 접수 이틀에 매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연등축제의 참가 신청이 해외서도 가능해 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전세계 30여 해외지사를 통해 외국인 연등축제 참가 상품을 기획했기 때문이다. 단체와 개인으로 나눠 3~4월에 걸쳐 신청 모집을 한 결과 특히 개인 접수는 이틀만에 매진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한국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5월 2일까지 개인 관광객들을 모집한 결과도 예상 밖으로 대 성공이었다. 접수 인원은 모집인원을 훨씬 넘긴 4백명 정도였다. 단체와 개인을 모두 합치면 7백명이 넘는다.

호수영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팀 차장은 "연등축제의 공간적 제약으로 참가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절반이하로 인원을 제한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참가자가 의외로 많아 2개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축제에 참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기획한 외국인 연등축제 체험 프로그램은 5월 19일 1일 코스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도시락 먹기, 연등행렬 관람 및 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넘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특히 제등행렬 참가 전에 직접 등을 만들고 한국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탑골공원 사거리와 수표로에 외국인 관람존을 설치하고, 4개 국어로 안내방송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연등축제 체험 상품은 내년에는 신청 접수 국가의 범위와 프로그램 참여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조계종 지계정신 회복 나섰다

승가공동체쇄신위 구성 등 해결책 부심

승려 도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계종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무엇보다 무너진 승가 위상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가 정신의 기본인 '지계(持戒)'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5월 18일 구성된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와 중앙종무기관은 회의를 열고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추대됐으며, 위원에는 원로의원 명선, 월탄, 교육원장 현응, 총무부장 지현, 금산사 주지 원행, 종회의원 지홍, 법안, 주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 위원회는 기존 9명의 위원에 수덕사 주지 지운,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2명을 추가해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종단이 화합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논의했다"며 "종단 현안과 관련 총무원 기관들이 신뢰를 잃은 부분이 많다.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 사회에 적용하고 시행할 승가청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조계종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18일 계율 전공 교수 아사리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종단 차원의 현대사회 청규 연구를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이번 도박사태가 계율에 대한 교육 부족과 제도 미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쇄신하기 위한 현대사회와 문화에 맞는 청규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은 현대사회에 적용하고 시행할 승가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주제로 한 대중공사 형식의 연찬회를 오는 6월 26일에 열기로 했다. 또한 종단 각 교육기관에서 계율과 불교 윤리 교육을 강화해 계율이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도 결의했다.

현대청규 연구 진행
교육기관 계율 강화
참회 물결도 이어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5월 15일부터 100일간 도박사태에 대한 108배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에 대한 참회도 연일 진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5일부터 100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시작했다. 자승 스님은 5월 11일 발표한 참회문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와 안일함에 대해 자성하며 종단 전체가 참회하고 자숙하는 모습으로 정진해 가겠다. 총무원장인 저부터 108배 참회 정진을 시작하겠다"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종단이 자성 · 쇄신하는 모습을 지켜봐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보선)는 5월 14일 연석회의를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과 사부대중 앞에 참회를 드린다"는 내용의 참회문을 발표했으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도 5월 17일 해인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과 종단안정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중앙신도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불교계 단체들도 출재가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문을 잇달아 내놨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index

2556 부처님오신날 특집 60면 발행



A 종합
2 출가학교 첫 개원한다
3 부처님오신날 전국 연등축제
4 참회 국토대장정
5 불자의 자격-법륜 스님 강연
11 봉축 대담-화합
16,17 나의 서원 나의 신행 - 박정자

B 글로벌 한국불교
2 쉬운 간화선이 세계화 이끈다
3 국경없는 자비실천
5 해외 한국 사찰
10 세계 속 한국 불교학
11 한류 불교문화
12 세계화 교육 현장
14,15 연등축제 화보
17 특집-보시 트랜드
24 명사들의 부처님오신날
26 암자의 부처님오신날-서산 천장암

불기 2556
부처님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종산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보선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법등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팔만대장경판

문효치

여기
살아 계신 말씀들
때로는 하늘을 날아요
하늘 너머 저승까지 날아갔다가
또 와요

침묵으로 다지고 다져 여기 살아 계신
말씀들
때로는 소리가 되어
징~~~~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 오셔오
영혼의 깊은 골짜기
호젓하게 피어 있는
꽃 속으로 스며들어요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문효치 시인은… 1966년 〈서울신문〉, 〈한국일보〉로 등단. 시집 〈남내리 엽서〉등

"그대 자유롭고 싶은가? 출가 하세요"

조계종교육원, 7월 1~9일 미황사서 첫 출가학교

20대 청년들에게 출가 수행자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출가학교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17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8박 9일동안 해남 미황사에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출가학교(학장 법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새로운 사상과 삶의 대안임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출가학교는 불교와 대안적 삶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불교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찰 예절과 참선, 사경, 염불 수행 등을 기본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과 전문 인사들이 바른 출가 수행의 길을 바르게 안내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부처님의 삶 △현실 모습 파악하기 △삶의 방향성 찾기 △내려놓고 바로보기 등 크게 네 줄기로 구성된다. '부처님의 삶'에서는 조계종 자성과

20대 청년 대상으로 진행
도법, 혜민 스님 등 멘토로
적극적 출가인재 영입 일환
6월 22일까지 참가 접수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불교의 핵심 메시지와 삶의 지혜를 전한다.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과 고미숙 고전 평론가는 '현실 모습 파악하기'를 통해 깨어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강의하며, 미국 햄프셔대 종교학과 교수 혜민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학교 개설을 기점으로 적극적 인재 영입을 종단 출가자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가 수행자의 모습도 기존의 고행, 무소유, 독신 등만이 아닌 자유를 위한 대안적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출가 학교 역시 인재 발굴과 이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가 종단에 출가했을 때 불교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단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닌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하겠다"며 "향후 포교원, 교구본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출가 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참가자들이 전부 출가하지 않더라도 대학생, 청년 층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가를 생각했거나 자유의 삶을 살고자 하는 20대 남녀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출가학교는 조계종에서 전액 지원해 참가비는 무료다.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접수는 입장 지원서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과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인원은 30명에서 50명 선이며, 서류심사와 e-mail 인터뷰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전격 개편

총무 지현, 기획실장 법미 스님 등 6명 임명

문화부장 진명스님은 유임

백양사 도박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한 조계종 집행부 부실장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4일, 15일, 16일에 거쳐 집행부 신임 부실장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신임 총무부장에 전 문화사업단장 지현 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에 부산 흥법사 주지 법미(심산) 스님, 사회부장에 중앙종회의원 법광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이 각각 임명했다. 신임 재무부장에는 일감 스님이, 지현스님의 총무부장 임용으로 공석이 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는 법진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사표를 반려해 유임됐다.

자승 스님은 새로운 집행부장들과 배석한 종무원들에게 "총무부장 스님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지혜롭고 원만하게 풀어가도록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과 제12, 13, 14, 15대 중앙종회를 역임했으며, 현재 봉화 청량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기획실장 법미(심산) 스님은 현재 흥법사 주지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부장 법광 스님은 제13, 14 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호법부장 서리 정념 스님은 총무원 재무부장, 종책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지현 스님


법미(심산) 스님


법광 스님


정념 스님


일감 스님


법진 스님

신임 재무부장 일감 스님은 현재 보리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며 문화사업단장 법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강원) 학장을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에 잘 오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캄보디아 승왕(僧王) 템봉 스님의 방문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템봉 스님은 한국불교의 교육 수행환경에 감탄했고, 자승 스님은 양국 불교의 유대가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템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중앙승가대학교에 캄보디아 대장경을 선물하기 위해 방한했다. **글 · 사진= 신중일 기자**

종교계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불교 등 쌍용차 해결 촉구

불교 등 5대 종교계가 쌍용차 사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용훈 천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성도종 원불교 서울교구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등 5대 종교 대표자들은 5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해결을 위해 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좌우대립, 노사갈등, 여야정쟁 등의 진영논리는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쌍용차 사태는 예상된 죽음의 행렬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죽음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대 종교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공동기도문을 만들고 종교별 1백일 간 기도와 해고 노동자를 위한 희망공장 건립, 모금운동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진영의 논리를 넘어선 1백인 국민원탁을 구성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두 원로원원장 석법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무송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서울중앙종무원장 석설정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아포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봉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1부장 석금정 중앙포교2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보성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성원 연수국장 석함월 수행국장 석보각
수행특보 석성민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법천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원
포교국장 석태룡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명보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국제국장 지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사천국장 여랑
대전부장 정대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포교국장 성견 창원국장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5월 19일 제등행렬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지도자 스님들과 최광식 문화관광부 장관이 봉축 연등을 들고 행진 중이다. 연등축제에서 10만여 불자는 저마다 든 연등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하는 발원을 담아 밤하늘을 환히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오늘 이 등불로 세상 밝게 비추자”

전국은 봉축행사 start! 신명나게 거리 행진하며 부처님 오신뜻 새겨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오신날!”

전국에서 불기 제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회 연등축제가 시작됐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서울 동국대 운동장에서 5월 19일 큰 함성과 함께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연등축제 막을 열었다.

이날 어울림마당 행사에는 3만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율동 리허설 △등 경연대회 시상식 △관불 △개회사 △삼귀의 △경전봉독 △기원문 △행진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집니다.”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등을 밝히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라며 “삶에 지친 이들에 희망을 전해주고 도반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어울림마당 법회에 참석한 대중은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의 대표낭독을 통해 △수행정진 매진 △문화자산 보존·전승 △생명공존 가치 실현 △나눔실천 △남북평화 정착을 발원했다.

이어 어울림마당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행진선언과 함께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박애리, 연꽃소녀들 등 축하공연이 펼쳐지는 회향한마당으로 이어졌다.

이날 3달간 준비한 율동을 선보인 봉은사 청년회 김보경 씨(22)는 “오늘의 기쁨을 평소에도 갖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연등회 연등축제 꽃인 연등행렬에는 10만 연등이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밝혔다. 5월 19일 오후 6시 동국대 대광장에서 축포와 함께 시작된 연등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울 종로를 지나 조계사까지 거리를 장엄했다.

색색의 옷을 입은 불자들은 저마다 의미를 지닌 연등을 들고 신명을 더했다. 이번 연등행렬에는 ‘연등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지정을 기념해 전통장엄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연등행렬을 모르던 시민들도 행렬에 박수를 치며 함께 호흡했다. 불교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상한 불자들의 자신감을 살릴 수 있는 한마당이었다.

홍은동에서 가족과 함께 온 김재철 씨(41)는 “최근 불교계 안좋은 일로 실망이 컸는데 다시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 바르노바 씨(28)는 “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너무나 예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란에서 남편과 함께 온 미트라 씨(35)도 연신 “판타스틱, 뷰티풀”을 외쳤다.

봉축위는 올해 참가 외국인 규모가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3시간여에 걸친 연등행렬은 조계사에서 열린 회향한마당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일 조계사 일대에서는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피리만들기, 향만들기, 연꽃초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로 연등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연등축제 분위기는 지방에서도 이어졌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5월 9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 봉축탑 점등식을 열었다. 20일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회원 50여 명의 3보 1배로 시작된 점등식에는 300여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 탑돌이가 거행됐다.

대구에서는 한국 전통등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제1회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축제가 17일부터 대구 두류야구장 일원에서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5월 4일 점등식에 이어 12일 연등문화제를 개막한 부산에서는 20일 5천여 불자들이 모여 국태민안기원 영산대재 이후 제등행렬을 봉행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속초 신흥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신흥사(주지 우송)는 5월 19일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자비나눔 연등축제를 열고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저소득층 가정 500세대에 자비 물품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행 스님 가르침’ 실천 다짐

12일,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대법당 준공…215㎡규모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5월 12일 김해시에 중부경남지원 대법당을 준공했다.

준공법회에는 중부경남지원장 혜보 스님, 혜솔 스님(대구지원장) 등 지원장 스님을 비롯해 성남 스님(김해사암연합회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태호 국회의원 등 1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보 스님은 “대행 스님 가르침 속에 수행해 나가는 불자들이 모여 이곳에 지원을 개원한 지 13년”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인연을 맺고 법다운 공간에서 보살행을 닦을 수 있는 정진 도량이 되기를 발원해 오던 중 대법당을 준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혜보 스님은 “2년 7개월 동안 대법당 불사를 하면서 어떤 제약이나 간섭도 없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갔다. 바로 ‘내가 한 것이 없다’는 증명이다. 부처님 일이니 그렇게 돌아간 것뿐”이라며 “대법당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공덕을 모두 부처님에게 회향한다”고 말했다.

중부경남지원 대법당은 대웅전 215㎡(65평)에 부속동 7평으로 이루어진 전통 목조 양식의 내외 7포합각 팔작집이다.

3층 법당의 불상을 대법당으로 옮겨 봉안한 중부경남지원은 후불탱화는 목탱화로 장엄됐으며 부처님 양편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부처님의 10대 제자 등을 모셨다.

한편 중부경남지원은 대법당 불사에 참여한 신응수 대목장(대웅전 건축), 청원 스님(후불 탱화), 변종복 금속공예명장(우주탑 조성), 정수화 칠기장(우주탑 개금), 윤수열(단청), 이상찬(전기) 씨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부경남지원은 1991년 대행 스님의 경남 여성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마산대법회를 계기로 설립됐다. 1992년 경남 마산시 동성동 한마음선원 마산지원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1995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로 법당을 이운했다. 이후 1999년 2월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으로 개명한 뒤 2000년 가섭, 아난존자상 및 해수관음 보살상과 영탑공원 등을 세웠다.

이나은 기자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215㎡(65평)규모의 대웅전을 준공했다. 준공법회에는 중부경남지원장 혜보 스님, 혜솔 스님(대구지원장), 성남 스님(김해사암연합회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태호 국회의원 등 1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

포교원 전법중심도량 집중 육성

17일, 어린이청소년 사찰 지원

조계종 포교원은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 장학사업 지원 및 지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결연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은 구미 원각사, 제주 봉림사, 부산 광명사, 서울 금장사, 서울 화계사, 제주 약천사, 속초 원각사, 울산 정토사, 경주 덕숭사, 대구 동화사, 남양주 봉림사, 창원 봉림사, 고양 흥국사, 강릉 백운사, 밀양 용궁사, 서울 국제선센터 등 16개 도량이다. 포교원은 이날 이들 사찰에 안국선원과 화성 신흥사, 한마음선원이 후원기금으로 내놓은 126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 포교원은 2012년 우수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된 21곳에 표창패와 함께 빔프로젝터와 디지털 피아노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 포교원은 5월 15일 장애인·어린이 전법중심도량에 현판을 전달했다. 장애인 전법도량은 서울 국제선센터, 서울 광림사, 서울 화계사, 의왕 청계사 4곳이다.

노덕현 기자

케이블카 설치 환경 관점 엇갈려

16일, 제 2차 공론의 장 펼쳐

조계종 사회부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스님)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공론의 장’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5월 1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에서는 케이블카 운영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관점에서 과연 효용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토론 역시 지자체는 자연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삭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삭도를 건설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지자체의 주장은 모순된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자체 대부분이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삭도를 설치하고 탐방로와 등산로를 폐쇄하는 대신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도보등산이 대세인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혜숙 기자

‘불교포럼’ 조직 후 본격 활동 시작

16일, 앰버서더호텔서 첫 강연

2012년 1월 불교지도자 네트워크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불교포럼’이 5월 16일 조찬 강연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은 5월 16일 서울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표현명 KT 사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불교포럼은 제33대 조계종 집행부가 추진하는 ‘불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회원은 160여 명.

이날 표 사장은 “환경변화로 인해 정보공유가 쉬워진 만큼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SNS로 예전 10년, 5년, 1년이 걸리던 정보공유가 불과 몇 시간, 몇 분만에 이뤄지는 세상이 됐다”며 “잘못된 정보 또한 빠르게 공유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초기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포럼은 7월 18일, 9월 19일, 11월 21일(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 앰버서더호텔에서 차례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봉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축
한국대승불교조계종

불 국 사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지 장 사 (경남 밀양시 삼랑진 소재)
금 정 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법 성 사 (대구 광역시 동 구 소재)
문 수 사 (대구 광역시 동 구 소재)
약 샘 사 (경남 밀양시 초동면 소재)
도 암 사 (경남 밀양시 하남읍 소재)
청 호 암 (경남 김해시 흥 동 소재)
보 성 암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당 포 사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소재)
개 남 사 (경남 경주시 조양동 소재)
운 고 사 (부산 광역시 연제구 소재)
동 방 사 (부산 광역시 부산진 소재)
불 현 사 (부산 광역시 부산진 소재)
용 연 사 (부산 광역시 수영구 소재)
자연선원 (부산 광역시 해운대 소재)
태극선원 (부산 광역시 기장군 소재)
향 비 암 (부산 광역시 동래구 소재)
무량선원 (부산 광역시 수영구 소재)
범 굴 사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무 심 사 (울산 광역시 중 구 소재)
보광정사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불심정사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쌍 암 사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갑 룡 사 (울산 광역시 북 구 소재)
약 불 암 (울산 광역시 북 구 소재)
현 덕 사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미륵정사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미 정 사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미륵정사 (울산 광역시 중 구 소재)
칠 성 암 (울산 광역시 남 구 소재)
보 우 사 (경북 경주시 남산동 소재)
약 불 암 (울산 광역시 중 구 소재)
천광정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벽 련 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소재)
화 성 암 (전남 담양군 남 면 소재)
극락정사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소재)
대 연 사 (전남 영암군 삼호리 소재)
금 강 사 (전남 장성군 동화면 소재)
쌍 봉 암 (전남 보성군 미력면 소재)
법 광 사 (광주 광역시 북 구 소재)
내 원 암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소재)
천 운 사 (대전 광역시 중 구 소재)

■ 총 본 산 불 국 사 055) 521-1236
■ 부산종무원 운 고 사 051)852-3707
■ 총 무 원 천 광 정 사 055)275-4704
■ 울산종무원 불심정사 052)275-5530

바른 신심과 역사 의식 증장

불국사 어린이 사생대회

조계종 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성타)가 주최하는 제27회 어린이 그리기 · 글짓기 대회가 5월 13일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종교적 차원을 넘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행사에 참여한 6천 여 어린이들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각각의 재능을 펼쳤다.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개막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숨겨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 · 글짓기 대회는 27년 어린이들에게 바른 신심과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신라문화의 역사의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 대회 장면

無心으로 펼치는 참회 대장정

수행공동체 무심회, 국토순례 올라

"제방의 운수행각 수행인과 허물이 있는 사부대중은 진참회로 서원하며 오늘 저희들의 자성과 쇄신결사의 서원을 언제나 굳게 믿어 주시고 용기와 서원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며, 흔들릴 때는 준엄과 비판 경책으로 야단쳐 주소서."

최근 도박 사태를 참회하기 위해 범종단 스님 10명이 참회의 국토대장정을 떠났다.

수행결사공동체 무심회(회장 법장)은 5월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입재식을 열고 국토순례를 시작했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을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대장정은 승가의 일원으로 도박 사태에 대한 참회와 불우이웃을 위한 탁발로 진행된다.

이날 입재식에서 무심회 회장 법장 스님은 선언문에서 "최근 불거진 스님들의 도박 사건을 참회하는 시간도 다지며 승가 일원으로서 수행과 나눔에 매진할 뜻을 발원했다"며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발심 수행에 범종단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행결사공동체 무심회의 참회 국토순례는 총 23일간 720km를 걷는 대장정. 매일 꼬박 27km를 걷는다. 부산을 출발한 무심회의 장정은 경남 김해와 밀양, 대구, 경북 김천과 문경, 충북 충주, 경기도 광주, 서울 봉은사 등을 거쳐 6월 5일 조계사에서 마무리된다. 무심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회향법회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무차법회를 함께 봉행할 계획이다.



수행공동체 무심회 회원들이 5월 14일 현 사태를 참회하기 위한 국토순례를 떠나고 있다.

"도박사태 부끄러운 일"
23일간 720km 탁발순례
6월 5일 조계사서 회향

한편, 무심회는 2년 전 토굴 수행에서 만난 범종단 스님 모임으로 운암사 주지 법장스님, 여여정사 김해포교원 주지 도명스님 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국토순례를 위해 무심회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김해 덕운사에서 참회기도를 가진 바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위대한 한국불교 위상 재건"

(사)부산불교聯 회장 이취임 법회 봉행

(사)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이하 연합회)는 5월 14일 제10, 11대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전 회장 정여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을 이뤄 연합회의 수승한 발전이 있길 바란다"며 발원하고, 연합회기를 신임회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에게 전달했다.

수불 스님은 이어진 취임사에서 "오늘 우리가 점화하는 부산불교 중흥의 불씨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위대한 한국불교를 재건할 것"이라며 "부산의 모든 불교 종단과 신행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국불교의 자부심과 위상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연합회기를 이임받은 수불 스님

이날 법회에는 前 조계종원로의원 정관스님을 비롯해 종단 연합회 스님과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등 2천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템플스테이로 결혼까지 골인

선운사, 국제커플 1호 탄생

"이제 두 사람은 부부로 맺어 졌기에 지금부터는 서로를 믿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5월 10일 결혼식이 진행됐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호주출신의 그레고 도슨(40 · 사진 좌)씨와 김윤미(31 · 사진 우)씨. 이 둘의 인연은 템플스테이로 맺어졌다. 지난 해 12월 서울 한 커피 전문점에 들른 그레고 도슨씨는 김윤미 씨에게 첫눈에 반하게 됐다. 이후 둘은 친구사이로 지내다 올 1월에 김윤미 씨에게 템플스테이 참가를 제안했다.

그레고 씨는 지난해 11월 선운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한국 불교문화에 매료되게 됐다. 그레고 씨는 "한국 템플스테이에 깊은 감명을 김윤미씨와 꼭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해 보고 싶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레고 씨는 김씨와 함께 양가 가족과 지인을 모시고 선운사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날 주례를 맡은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부처님 앞에서 미래를 약속한 만큼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결혼식을 마친 그레고씨는 "템플스테이는 종교이상으로 살아 숨 쉬는 곳이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두사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결혼식 후 기념촬영 장면

국태민안과 경제발전 기원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5월 15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봉축행사 일환인 국태민안과 경제발전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50여 종단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고승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이종기 대전 정무부시장, 강창희 국회의원 등 5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영산대재를 성대히 봉행해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길 기원했다.

이와 함께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제16회 생명존중과 평화정책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5월 16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에서 개최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대법회 모습

5 · 18 광주항쟁 아픔 부처님 자비로 보듬다

불교계, 5 · 18항쟁 맞아 행사 다채

5.18광주민주항쟁의 아픔을 추모하는 불교행사가 광주지역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광주전남불교NGO연합회(대표 현지)는 5월 17일 광주 원각사에서 5.18전야제와 추모법회 'Free Tibet을 위한 열린 대화마당'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티베트독립과 종교자유를 기원하는 자리로 남카 스님(티베트코리아하우스 대표), 이병구(랑㊻코리아 활동가), 정의행(평화행동지금 운영위원)이 대담자로 나서 현 티베트의 상황과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티베트인의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5월 17일 광주 원각사에서 열린 5 · 18 추모법회 'Free Tibet을 위한 대화마당' 에서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대표 남카 스님이 현 티베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남카 스님은 "2009년 2월 티베트스님 타페이가 분신을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총 16명의 티베트인이 티베트 자유를 외치며 소신공양을 했다"며 "32년 전 계엄군의 총부리 아래 있던 광주의 모습이 지금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수많은 티베트인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과 불자들이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전국비구니 작은모임도 5.18희생자 어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5월 16일 광주 무각사 교육관에서 묘운 스님과 박희석 조선대 교수 등 '5월 어머니회' 회원 등 100여 명 참여해 5.18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한 마음명상과 장애를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상황극을 진행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도 5월 18일 국립5.18묘역에서 5.18영령을 위한 영산재를 봉행했다. 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망월동 구 묘역 참배객들을 위한 음악회와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9회 전북어린이큰잔치 개최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지부는 5월 12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맑고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속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를 주제로 제9회 전부 어린이큰잔치를 개최됐다.

행사는 전북지역 초등학생 및 학부모 2000여 명이 참가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다양한 민속놀이와 불교문화체험,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불교신도회 한마음 명랑운동회

익산 불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불교신도회(회장 박중근)는 5월 13일 지역 스님들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익산불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 를 개최했다.

운동회에는 미륵, 관음, 보현, 문수의 4개 팀으로 나눠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2인3각 이어달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임원진

고문 : 석인왕 대종사 (재)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석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3세종정

원로의원 : 석동산 대종사 대선불교 조계종 종정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인종 종정
석동원 대종사 대한불교 연화종 종정
석양명 대종사 한국선불교 대불종 종정
석석봉 대종사 대승불교 삼론종 종정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동종 종정
석혜우 대종사 한국불교일광종 종정
석보광 대종사 (전)중앙불교 조계종 종정
석덕산 대종사 대한불교천지종 종정

회 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이사장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 정토종 이사장
상임이사 : 석대응 대종사 선불교조계종 종정
상임부회장 : 석영월 대종사 대한불교 법사종종정
부회장 : 석혜륜 대종사 (사)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종정
부회장 : 석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감 사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 조계종 종정
재 무 : 석법정 대종사 조선불교 대선종 종정

이 사 : 석청운 대종사 대한불교 원각조계종 종정
이 사 : 석혜은 대종사 국제선불교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일강 대종사 대한신불교 천우종 종정
이 사 : 석강암 대종사 한국불교 임제종 종정

이 사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 조계종 종정
이 사 : 석법홍 대종사 (재)세계불교 미륵대종 종정
이 사 : 석일암 대종사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종정
이 사 : 석무영 대종사 대한불교반야선종 종정
이 사 : 석현불 대종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이 사 : 석청암 대종사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이 사 : 석법정 대종사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이 사 : 석정안 대종사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일붕신문사 대표
기획실장 : 건진 전성배
사 무 장 : 배상광

※ 미가입 종단 종정스님께서는 필히 입회 하시여 본회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회원종단 행사는 물론 애경사시 종정스님 전원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하게 하며 화환 및 조화를 모두 보내주고 특히 회원(종정)열반시 100만원 상당의 위로금과 회원(종정) 전원이 동참하며 조화를 모두 보내기로 정관내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4천평 부지에 복지회관과 대웅전을 건립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3 - 6 전화 : (042) 285 - 1227

사무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02) 756 - 1227 팩스:774-148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

법륜 스님 강연 – '붓다의 시대적 조명'

2천 6백년 전 우리 곁에 오셨던 붓다는 시대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했던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였다. 불교의 위기라고 말하는 요즘, 붓다의 자취를 통해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돌이켜 보는 자리가 있었다. 5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의 구국구세 강연 '붓다의 시대적 조명'.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본부(지도법사 송암 · 도피안사 주지)가 주최한 이 강연에서 스님은 부처님의 실천적 사상을 현 사회에 비추어 강연해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붓다의 삶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제가 고 1 때 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불교의 합리성 과학성 이런 것이 어린 나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줬고 불교의 역사성에 굉장한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불교의 사회성 문제입니다. 70년대 독재 도시빈민의 고통, 노동자들의 어려움, 농촌의 붕괴, 청년 학생들의 아우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불교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10 · 27 법난 이런 큰 사건을 겪었는데 당시 불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불교를 좋아했던 저는 처음으로 불교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나이 서른이 넘어 미국으로 갔습니다. (출가 전의 꿈이었던) 천문학자 공부를 늦게나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즈음 만난 서암 스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라네. 그곳이 절이야. 이것이 불교라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불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발심해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역사와 사회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간 한 인간으로서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고뇌를 했는가 등을 생각하며 부처님 일생에 관련된 글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공부를 하니 신 같은 존재의 붓다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과 역사 속에서 살아간 청년 붓다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지침이 될 나의 스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첫째 '왜 불교를 공부하고 믿으려고 하는가' 입니다. 불자가 되었을 때 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삼보와 오계로 삼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참회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붓다라는 분이 누구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인격으로 살아간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2천 6백년이 지난 지금 인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붓다의 구체적 인격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천 수행자라면 나의 삶 나의 말 행위에 있어 그분의 삶이 지침이 되어야겠죠.

그다음으로는 불교의 근본가르침을 정리하고 불교의 역사를 알아야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역사속에서 변질되기도 하고 개혁되기도 하잖아요. 결국 이런 공부를 하고 내가 불교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붓다의 인격에 감동을 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고 불교관이 정립 되었을 때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생전에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브라만은 우주의 근본이었어요. 카스트 제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였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계급에 따라 살아야 했어요.

세상의 때를 닦아 내는 것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

"왜 불교를 믿으려 하는가
붓다는 누구인가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공부하여 불교관 정립 돼야
불교신자 될 수 있어요"



법륜스님은 '붓다의 시대적 조명'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고 불교관이 정립 되었을때 불교신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세상을 창조한 주인 브라만은 없다. 계급 부정체제 부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거예요. 붓다께서는 근본적인 인간의 사유를 뒤집어버렸죠. 붓다야말로 그 어떤 혁명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혁명가였기에 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부처님은 남녀 차별도 부정을 하셨어요. 여성 수행자를 인정하신 거죠. 아직도 가톨릭에서 수녀가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비구니가 인정이 된 거에요.

지금은 당연시 되는 것들이지만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지 못하면 출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집 나가고 가족 떠난다고 출가가 아니에요. 정신적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초견성을 해서 길을 확연히 알아야 해요. 봉사가 눈 뜨듯이 탁 깨달아야 해요. 붓다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봐도 붓다의 삶은 흠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절집도 월급 받고 공양주가 밥해주고 불 때주고 해주잖아요. 이런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불교가 사회적 세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사회 시설 몇 개 짓고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문명의 혁명을 해야 합니다. 소비문명을 뛰어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기본 관점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현실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굶어죽는 사람 살려야 하고 전쟁도 막아야 됩니다. 또 물질에서 자유로워져야 붓다에 귀의할 수 있습니다. 나무 밑에 자고 버려진 옷 입고 걸식을 했던 붓다의 삶에 걸맞는 이 시대의 검소한 삶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실력도 안 되는 자식 명문대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렇게 기도를 해서 실력도 안 되는 자식이 명문대에 간다면 부처님은 입시 브로커가 되어야 합니다. 입시 브로커를 믿는 게 신앙입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붓다는 이런 붓다일 겁니다. 다들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입시 브로커를 믿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신앙이니 실천이니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모순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난존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래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아난다여. 세상에 여래에게 올리는 공양과 같은 것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병든 자에게 치료할 약을 주는 것,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돕는 것,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덕을 짓는 기준은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붓다께서 2천 6백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가장 앞선 언어입니다. 왜 부처님이 계급을 부정하고 창녀 5백명을 출가시키고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출가시켜 세상의 비난을 받았습니까? 부처님은 바른 법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민중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수행을 위해 속세를 떠났다는 이유로 세상 고통 외면하면 소승은 돼도 대승은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그것에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사람은 성인 보살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세상을 정화하는 그래서 세상의 때를 닦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수행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수행자는 온전히 자신을 간직하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해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됩니다. 작든 크든 언제나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승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것이 분단된 상태의 발전이다 보니 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 · 중의 싸움에 휘말리면 100년 동안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통일이 되어 미중의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하면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주변국의 평화, 우리의 이익이 주변국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정세를 잘 읽을 수 있는 안목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한국 불교가 세계화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는 현대화 세속화 되어 있습니다. 수행이 근본이 되어 내공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남 비난하지 말고 소박하게 자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현 불교는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억압당했던 불교를 100년 만에 빠르게 회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 형식적 성공이죠. 이제는 담마에 귀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불교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역경원장 :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사서실장 : 대산 혜산법종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정대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남산
교육원장: 원광
교육부원장: 광덕
의식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규정국장: 영암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국장: 수산
감찰1국장: 무아
감찰2국장: 인산
감찰3국장: 봉산
비구니부장: 지성
총무: 묘현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흥산
강원: 덕산, 원산
복지: 정해, 보현
감찰: 본각, 련성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영산, 지해,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보덕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남종무원장: 혜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경남종무원장: 도홍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원광
부산중부종무원장: 정오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일봉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인권식 박국서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A6 전면광고

새로 짠 우유는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는 그대로 있듯 지어진 업은 당장에는 안 보이나 죄는 그늘에 있어도 언제나 그를 따른다.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慧草**

宗正禮敬室長 淸光

僧正院 院長 **南坡**
副院長 **法藏**

元老會議 議長 **雪峰**
副議長 **大雲**
副議長 **錦龍**

中央宗會 議長 **島山**
副議長 **慧空**
副議長 **祥河**

總務院長 **印空**
副院長 **靑峰**
總務部長 **能解**
敎務部長 **道珍**
財務部長 **慧山**
文社部長 **智虛**
糾正部長 **端峯**

護法院長 **芸谷**
副院長 **一雲**

종도일동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 실장 **정장호**

총무원
총무원장 직무대행 **김무원**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재무부장 김용암
교육부장 김세운
규정부장 김영제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조용문

종의회
종의회의장 직무대행 **정명구**
종의회부의장 최인규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부이사장 **전운덕**
금강대학교 총장 **정병조**
참의원장 **권영철**
중앙신도회장 **김학송**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8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2556 BUDDHA'S BIRTHDAY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진언향기 가득한 참 세상 구현되길 서원합니다.

총인 **성초**
사서실장 덕정

통리원장 **혜정**
총무부장 무외
총무국장 일경
기획국장 상명
전산국장 재당
재무/건설부장 수성
관재국장 대원
건설국장 원혜
포교부장 상제
포교국장/국제불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수각
문화사회부장/국제불교연구소장 덕정
문화사회국장 정법

교육원장 **경정**
교법부장 지정
교법국장 혜담
교육부장 관천
교육국장 법경

종의회의장 **혜명**
부의장 일석
부의장 경일
사무처장 관명

사감원장 **증광**
사감부장 혜언

진각대학원장 **수성**
교학처장 혜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하월곡동)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불기 2556년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관음종은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T :02)763-0054 / F : 02)763-5851 www.kwanum.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원로원장 성인
원로원 선명. 신수. 정각. 법성

승정원원장 평신

중앙종의회
종의회의장 송운
의원 보각 태상 도현 진월 진조 혜은 법성 의성 지문

총무원부원장 승덕 총무부장 정안 종정예경실장 대천

교육원장 **해안** 규정원장 **도현** 문화원장 **혜광** 포교원장 **담원**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진월** 사업부장 **태상** 중앙비구니회총무 **체진**
국제포교부장 **도우. 체상**

부산종무원장 **해주** 전라종무원장 **각우** 충청종무원장 **의성** 경상도종무원장 **우담**
경기종무원장 **정안** 강원종무원장 **보원** 제주종무원장 **원각**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大韓佛教 佛入宗

宗正 **勉哲**

元老院長 正觀
總務院長 鏡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보성**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선률** 포교부장 **서희**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대원**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광**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광**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학장 **대원**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계율 받들어 행하면 가정과 인류가 행복”

참나 찾아 반야 지혜 회복하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마야부인이 무우수나무를 잡음이여, 우레소리가 천하를 두루함이요. 태자(太子)가 주행칠보(走行七步)하니 우담발화가 만발하였도다. 하늘과 땅을 가리킴이여, 일체 마군(魔軍)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고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하니 천하(天下)가 태평(太平)하도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으로 환희로운 날입니다. 부처님 오심은 온 우주의 생명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라는 희망을 열어주기 위함이요, 일체 생명들이 참나를 찾아 더불어 즐겁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반야(般若)의 밝은 지혜(智慧)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인개개(人人箇箇)가 참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나를 찾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참나는 모든 생명(生命)의 근원이요, 형상(形相)과 사상(思想)의 갈등을 넘어선 상호이해와 자유평등의 당체(當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一念)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정진(精進)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여, 안으로는 참나를 찾는 데 게으름이 없고, 밖으로는 남을 돕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나를 찾지 않으면 마음의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복은 짓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남을 도우면서 바르게 참선을 닦아 나가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갈등이 봄눈 녹듯 사라져 다 같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남이 없게 될 것이니, 어찌 남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산승이 오늘 한마디 덧붙이건대,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성교육(人性教育)의 일환으로 산승이 다음과 같은 오계(五戒) 사상(思想)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요, 셋째는 친구를 사귐에 있어 서로 믿음, 사랑, 공경으로 대하는 것이요, 넷째는 맡은 바 일에 있어 성실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계입니다. 모든 학생들, 나아가 만인이 이 같은 다섯 가지 계율(戒律)을 잘 받들어 행할 것 같으면 온 집안이 화목하고 온 인류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모든 불자와 국민, 온 인류가 참나를 찾는 수행으로, 마음에 밝은 지혜와 자비의 등을 밝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成群作隊隨他轉(성군작대수타전)이나
幾介男兒頂額眼(기개남아정액안)고
무한한 사람들이 저(부처님)를 따름이나
몇몇의 남아(男兒)가 정안(正眼)을 갖춤인고?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화의 동행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우주의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 만물이 생동하는 환희로운 시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청정한 신심과 지극한 바람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는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이웃 생명이 고뇌하고 있으니 내 마땅히 구제하리라.”는 부처님의 탄생선언에서 우리는 뭇 생명의 절대적으로 존엄하고 평등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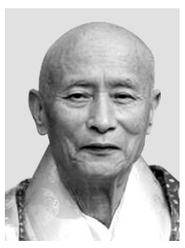
“그대들이여! 이제 길을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진리를 말하라.”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진리에 의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행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을 새겨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으로 오십니다. 무명과 욕탐의 세계에 지혜와 나눔으로, 대립과 갈등의 삶터에는 화해와 공존으로, 서로의 차이에는 차별과 배타가 아닌 존중과 상생의 말씀과 손길로 오십니다. 부처님오신날! 이웃생명이요, 한생명인 우리 인류는 부처님이 걸으신 길에 동행할 것을 발원합니다. 모든 이웃과 실천으로 동행하는 길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참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지혜와 동행할 것을 발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관계의 동행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 노와 사,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가 대립과 경쟁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웃이요, 서로 다른 한 몸으로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가는 동행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자비보살행과 동행할 것을 발원합니다.

탐욕과 미혹의 어리석음 없애길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무우수 꽃향기 가득하고 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봄날인 오늘,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자 자비와 지혜의 무한광명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성스런 날을 맞아 우리사회에 탐욕과 미혹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오늘 밝힌 연등의 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자비와 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절대 평등하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없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 하신 천상천하유아독존의 뜻은 부처님만이 홀로 우뚝이 높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대지를 밟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각 위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는 모두가 참 부처님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만들어온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임을 잊고 전도된 가치관 속에서 진리를 외면한 채 탐욕과 성냄, 무지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비우면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자리이타의 큰 원력을 세워 세상을 너와 나, 선과 악으로 구분 짓는 분별심을 버리고 참 자비의 실천으로 상생과 공존,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서원합시다.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사부대중 모두와 함께 찬탄 공경드리며,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피력으로 오늘 밝혀지는 연등 하나 하나가 지혜와 화합의 광명이 되길 기원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인연법 펼쳐야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온 누리에 푸른 생명의 물결이 고동치고 가벼운 발걸음에는 기쁨이 번지고 있습니다. 합장하는 손끝마다 고마운 인연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오월의 끝자락,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맞는 기쁨으로 가슴 설렙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시어 모든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선언하신 부처님, 스스로 자비의 삶을 살아가신 위대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여기 사바에 오셨습니다. 또한 자비의 원력으로 불화와 갈등과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 부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은 어둠이 밝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해탈의 자유로 바뀌었으며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연의 도리를 깨달아 ‘상대가 없이는 나도 없다’ 는 무아의 자리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인연법을 펼쳐야 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원력으로 생활과 수행을 하나로 하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특히 주경야선의 수행풍토를 주창하여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나눔으로 참주인 거듭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가정에 복과 지혜 가득하여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고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자비 가득하여 우리 모두가 분별 없는 참 세상의 주인 되시길 서원합니다.

2556년 전 석가모니부처님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모두 분별 없는 진리요, 원만한 자비와 지혜이자 무한한 성품 그 자체임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연기(緣起)적 평등성과 집착을 떨친 중도(中道)의 무분별성은 세간의 차별과 치우침을 경계하는 참회와 수행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회와 수행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보고 듣는 것을 비교하여 드러난 부족만을 채우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채움 속에 자신만이 남과 다르다는 전도몽상(顚倒夢想)의 어리석음을 담았습니다.

불자여러분.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새겨 그동안 우리의 삶이 보다 나은 것만 바라보았다면 다소 낮은 곳을 향해 자비(慈悲)심을 내어 덕(德)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 원망의 절박함에 갇혀 있었다면 두 눈 감고 자신을 밝히는 지혜를 더하여 용기 있는 수행의 주인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용기 있는 수행과 함께 저마다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지혜로 나와 함께 우리를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을 힘차게 이끌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행이 부족함을 수행으로 더하고 넘침은 참회로 다스리는 불교의 현실이자 대중이 공감하는 참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대승보살의 실천행인 동사섭(同事攝)으로 가족에서 사회로 동화(同和)되는 불자, 국가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불자, 분별의 세간 속에서 무분별의 가치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주시길 서원합니다.

욕망 억제하면 정토세상 이뤄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부처님께서 빛과 진리의 당체(當體)로 이 어두운 사바에 오신 뜻은 무명업식(無明業識)의 우매한 중생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고 행복한 현실의 삶을 위하여 청정한 지혜로 안락한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 우리사회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사고와 행동하고 있으며, 지식(知識)과 지혜(智慧)를 혼동(混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만능에 전도(顚倒)된 몽상(夢想)의 세상에 살면서, 정보의 홍수와 향락의 파도 속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지식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식을 맑히고 깨끗한 영혼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혜를 닦고자 하는 참된 수행자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닦는 수행으로 식이 맑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불성(佛性)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삼독(三毒)으로 인한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망의 마음은 번뇌(煩惱)만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여 불성은 사라지고, 악업만이 치성(熾盛)하게 되어 상호갈등을 유발하며, 마침내 불화와 고통으로 인한 혼탁한 세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사고와 행동으로 인한 병통(病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신 뜻과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각자의 욕망을 억제하고 수용하며 비우고 버리게 되면 심령(心靈)이 고요하게 되어 지혜가 열리며, 투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희망과 행복의 마음을 나누는 현실정토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준동함령(蠢動含靈)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공성불도(共成佛道)하기를 기원합니다.

푸른 새싹마다 빛나는 부처님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푸른 새싹마다 부처님 모습이 빛나니
오늘은 부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모든 이웃에게 예경하십시오.
곳곳마다 공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착한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
행복은 당신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자신을 보십시오. 남이 없습니다.
모두가 내 부모 내 형제며
나의 아들과 딸입니다.

모든 생명이 나의 삶에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 꽃 뒤에는
무수한 인연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각박한 현실 자비로 보듬어

효강 정사
총지종 종정



우리 한국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날로 커지면서 온갖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이 주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베풂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 제도로는 보완하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을 가진 자의 자비와 사랑으로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합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한 원동력의 바탕은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불교 정신이어야 합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 의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진정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 행복으로 가득 찬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지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몸과 입과 뜻을 장엄합시다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룸비니동산에 무우수(無憂樹) 꽃이 피던 날
싯달태자는 꽃비 맞으며 강탄(降誕)하셨습니다.
중생의 심전(心田)에 부처될 꽃 피게 하여
사바(娑婆)의 어둠을 햇살처럼 걷어내고
하늘 땅 가림 없이 정토세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은 쉬지 않고 초목을 살려내고
다시 본래 생명으로 돌아가듯이
부처님의 본래 성품도 중생의 번뇌 따라
거래(去來)가 자재합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이 아플 때에 부처님이 오십니다.
중생들의 신구의(身口意)가 때와 장소 불문하고
불작(佛作) 진언(眞言) 심인(心印)으로 장엄하면
부처님의 탄생공덕 모든 중생에게 회향됩니다.

무진(無盡) 무여(無餘)의 중생계와 더불어
부처님의 강탄을 봉축합시다.
종조님의 무진서원(無盡誓願) 받들어 갑시다.

“흐트러진 자세와 혼란한 마음 참회를”

고통의 구석진 곳 살피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부처님께서 설하신 10중대계 중 일곱 번째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칭찬하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계율로 정하셨습니다.

지난 4월 11일 국민의 뜻을 대신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동네 골목마다 그리고 거리에서 상대 후보들을 비난했는지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사회의 율법과 도덕적 가치를 깨뜨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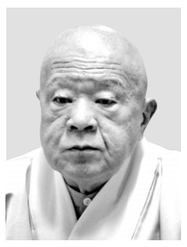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 진리를 구하되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분오열된 흐트러진 자세와 혼란스런 마음을 참회하며 기도정진합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뜻입니다.

부처님의 탄신을 환희롭게 봉축하며, 고통과 괴로움의 구석진 곳을 살펴 갑시다.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자

(사)대한불교원융원(종) 종정 일공 스님



붓다는 우리 인간계에 태어나셔서 천상천하(天上天下)에 가장 거룩한 대도사이신 붓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치의 탐조력과 이성의 창조력을 발휘하면 누구나 붓다가 된다는 인간 성불(人間成佛)의 비법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기계화 야수화 악마화한 인류를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다시 교화하고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불교도에 주어진 세기적 지상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실된 인간성의 되찾기 운동은 부처님의 교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밝고 신령하여 지극이 미묘하고 신비로운 불성(佛性)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불성을 개발하여 되찾으면 다 붇다가 된다는 이 거룩한 교훈을 다시 반성하고 경각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사자후 기억하라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자기 자신의 구제를 위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 수행 정진하는 출가 사문들이여! 부처님의 첫 사자후을 기억하는가? 부처님의 품안에 안주한 불자들이여 녹야원의 첫 설법, 교화의 일성을 배웠는가?

나는 모든 것을 이겼노라. 모든 것을 알았노라. 모든 것을 놓았노라. 모든 것에 걸림이 없노라. 모든 애착과 욕망을 끊고 스스로 진리를 알았노라. 내게는 나 자신밖에 따로 내 스승이 없노라.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불가에 몰아닥친 시련은 자신을 더더욱 성숙시키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추위와 큰 시련속에 핀 설중매의 꽃이 아름답고 우아하듯 고난 속에 핀 꽃(인연)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초발심의 계기로 삼고 더 큰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참회하는 절실한 마음과 행으로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 목마름의 고통을 여의는 자비의 손길을 보내 중생을 감동시키는 땀흘리는 고행에 앞장서는 불제자가 됩시다.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부처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의 돈 봉투 논란도 원인은 탐심 때문이요. 멀쩡한 대낮에 어머니를 해코지한 아들도 성냄 때문이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되풀이 하면서도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을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부처님 가르침에 비춰보면 해결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생명의 근원을 만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가 평화로운 곳일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깨우친 삶을 찾는데 마음의 정성을 다할 것을 발원합시다.

참회의 일등을 밝힙시다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날, 일체 중생은 불성(佛性)이 있다고 중병 환자에 어진의사로

어두운 밤길에 등불처럼 이 땅에 오셨네. 육십갑자는 일곱 번 변하고 임진년 1592년 잿빛승복에 뿌린 구국(救國)의 피의 인과를 참회 하옵니다.

광화문 종로 네거리에 빗속에 엎드려 참회(懺悔)하는 승려의 피눈물이 장삼을 물들이고 만국의 대중이 모인 여수 앞바다에서 흑룡(黑龍)이 불을 토하면 그날의 구국검(救國劍)을 들어 해원(解寃)의 넋을 건지오리다.

이제 당신 부처님오신날 뒷산 칠성봉(七星峰)과 앞산 구재봉(龜在峰)에 어둠이 내리면 지리산 빈승은 참회의 일등(一燈)을 켜오리다.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가정과 국가에 광명을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스님



世尊十方界 常放 大光明
比如千日出 照曜 大千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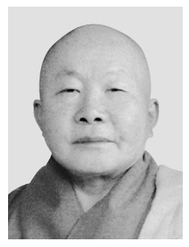
세존께서 시방세계 크신 광명
항상 나투도다 마치 천개의
태양이 뜬 것 같아서 온누리를
밝게 비추시는 도다

이제 우리는 모두 아상과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혁신을 통하여 남과 이웃을 위하고 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보리심 모두 내어 지극한 정성으로 등불을 밝혀 국가와 가내에 부처님 광명과 가호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선자비행으로 성불을

(사)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을 남기고 가신지 2556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생명의 평등을 선포하시고 진정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불자이기에 누구나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성불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부처이니 신구의로 지은 십악을 참회하고 매순간 깨어 미륵보살의 십선 자비행으로 모두 부처가 됩시다.

자신을 맑히고 밝히어 세상을 이롭고 향기롭게 하는 진정한 불자가 됩시다.

일체여래는 진여성품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過去七佛 淸淨戒律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基意 是諸佛敎
戒律淸淨 毘盧遮那佛
戒律圓滿 盧舍那佛
人間萬物 根本 萬法 主人公
人間諸法 主人 萬物 創造者
一切如來 眞如性
山川草木 實相 日月星神 本來面目

인간은 만물중에 근본이며 만법의 주인공이로다. 인간은 모든 법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주이다. 일체 여래는 진여의 성품이요. 산천초목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이며 우주만물은 본래의 면목이로다. 부처님들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을 일러 불교라 한다.

자성밝혀 스스로 행복 찾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생사거래의 은현법을 밝히기 위해
지금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법과 마음은 증득함이 없으니
성냄도 없고 또한 기쁨도 없도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자성(自性)을 밝혀 스스로 행복을 찾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석가세존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지니고 있는 소중한 부처님을 찾아 인류를 행복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연등을 환하게 밝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명(無明)에서 반야(般若)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듯,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서로의 진실된 마음의 연등을 가슴속 깊이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가정을 위해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회 이룹시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進步非近遠(진보비근원)
迷隔山河固(미격산하고)
謹白參玄人(근백참현인)
光陰莫虛度(광음막허도)

부처나 조사들은 그 길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지만 끝까지 가고 아니가는 것은 각자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현성공안(現成公案)하며 해탈성불(解脫成佛)하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고루 퍼져 어두운 곳엔 광명을 얽매인 이에게는 자유를 가난한 이에게 풍요를 고통 받는 이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진리에 어두운 일체중생들의 무거운 업장을 떨쳐 버리고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참믿음은 실천행 따라야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봉진 스님



“참 믿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信心眞心)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불법인지. 한 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있다 해서 모두 출가 제자라 할 수 있는가? 또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참한다고 해서 재가 신도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실천행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불자일수 있는가? 일 년에 한번 있는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바른 불교 바른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불향으로 처처극락 이뤄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전계대화상 능인 스님



一念普觀法界性 (일념보관법계성)
無去無來亦無座 (무거무래역무좌)
如是了知三世果 (여시요지삼세과)
超諸方便成佛力 (초제방편성시방)

한 생각으로 법계의 진리를 관찰해 보니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또한 앉음도 없네.

이와 같이 삼세과를 요달해 보면 모든 방편을 뛰어나서 부처가 이루어지리라.

육도중생은 오탁악세를 벗어나고 생사윤회는 삼계고해를 벗어나서 사바세계에 불종자 무루 심어지면 너나 할것없이 본래 부처로 돌아가 그윽한 향기로 처처극락을 이루리라.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하자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표어는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Peace to our Mind. Happiness to our World)’ 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반목과 질시가 넘쳐나는 고통스런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마음에 평화를 간직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원력이 담겨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수행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한 후 평생 전법(傳法)의 길에서 실천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행복’ 이 다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요함 속에 평정심이 깃들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속에 세상 만물의 존중과 생명평화의 행복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곧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자신이 참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베푸는 순간 참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슴 깊이 박혀 있던 사랑의 뿌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꺼내어서 베풀면 참사랑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한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바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본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과 같이 지내 왔던 것입니다. 본마음을 보았다는 것은 욕심 덩어리가 없어진 것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본래 청정했던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잘 보살피면서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해 나간다면 바로 그 세상이 평화의 세계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입니다.

모든 중생심이 부처다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佛祖從西天東來(불조종서천동래)
唯傳正法眼藏法(유전정법안장법)
直指一切衆生心(직지일체중생심)
本來處處事是佛(본래처처사시불)

부처님이 인도로부터 동토에서 온 것은 오로지 정법안장의 법을 전하여 모든 중생심이 부처임을 곳곳에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네. 우리 모두는 자리이타 자각각타정신을 일깨워 항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부처님은 항시 미혹한 중생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항시 멀리서 찾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보지 못하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불자님들은 부처님께서 이 중생세계에 오신 뜻을 다시금 되새겨서 불법을 홍포하는데 주저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전법도 좌선도 모두 불법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悠悠傳法非爲法(유유전법비위법)
坐寂無事不是禪(좌적무사불시선)
更將明眼回頭視(경장명안회두시)
依舊完然是法禪(의구완연시법선)

유유히 전하는 법 법이 아니요.
일없이 앉아 있음 선이아니로다.
다시 눈을 밝혀 돌아보니
전법도 좌선도 틀림없는 법과 선이로다.

“나를 돌아보는 마음의 지혜가 곧 부처”

행함의 완성이 곧 깨달음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각호 스님



흔히들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르면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완성이 곧 깨달음인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고통 받는 중생을 다 구한 다음 내가 성불(成佛)하겠노라고 한 지장보살의 서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처럼, 쉼 없는 행의 축적 뒤에 깨달음이 옵니다. 한마디로 보리심(菩提心), 자비심을 일으키는데서 출발해서 보리심을 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수행은 이웃을 위해 보리심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참고 인내하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항상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우리도 이젠 잘 살펴서 갈 줄 알아야 한다.

넘어지고 다쳐도 참고 인내하며 오지 않았는가.

배고픈 중생에게는 밥을 주고 아픈 중생에게는 약을 주는 참 불자가 되어 봅시다.

사바세계에 부처님 오심은 만 중생에 평화를 가르치심이니 우리 모두 고요한 담수처럼 조용히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무명 밝혀 다 함께 성불을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燃燈供養殊勝行(연등공양수승행)
無邊勝福皆廻向(무변승복개회향)
普願沈溺諸衆生(보원침익제중생)
速往無量光佛刹(속왕무량광불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중생들이 고통의 바퀴에서 벗어나 빨리 무명을 밝혀서 지혜롭게 불성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불교는 진정 지혜의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이다. 등불을 밝히는 의미는 무명을 태워 없애고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비록 연등만으로 미혹과 무명을 다 걷어낼 수 없겠지만 마음의 등불에 불을 밝혀서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 다함께 성불을 이룹시다.

자비축복 원만한 봉축을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월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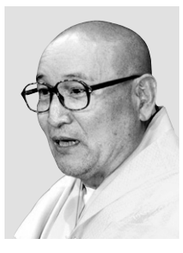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번뇌의 때를 씻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법바다에 들어가게 하기위하여 부처님은 법을 설하여주셨으니, 세존의 가르침이신 이법을 받들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기억하며 선정과 지혜에 머물러 부처님 탄신을 모두 다 찬탄하고 기뻐합니다.

바라옵건데 우리들은 깨달아서 중생을 인도하며 고난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거두어서 부처님 가피가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체 모두가 반야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옵고 부처님 큰자비의 축복이 원만할 것입니다.

하심하는 인격자가 되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勿以貴己而賤人(물이귀기이천인)
勿以自大而蔑小(물이자대이멸소)
勿以恃勇而輕敵(물이시용이경적)
勿以自佛己而佛(물이자불기이불)

자신은 귀하게 여기면서 남을 천대하지 말고
자신이 크다 하여 남을 작다고 멸시하지 말며
용감하다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처이니라.

모두 부처님 세상 만들자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우리들 본래면목이 밝고 깨끗한 불성 생명임을 깨우쳐 주시고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모든 생명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스러운 생신입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내몸 같이 사랑하여 이 땅위에 다같이 살기좋은 부처님 세상 되도록 합시다.

중생 새로 태어난 영광을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有智苦聞하면 則能信解하고
無智疑悔하여 則爲永失이라
지혜있는 이가 만일 들으면 곧 능히 믿어 해득 할 것이나
지혜없는 자는 곧 의심하여 영원히 잃게 되리라.

부처님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건지시러 이 사바세계에 자비의 화신으로 출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부터 우리 중생들도 새로 태어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화합하고 양보하며 살자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심곡 스님



불자 여러분!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어둠 밝혀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의륜 스님



번외와 무영 속에 고통 받는 인간과 일체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이어져 있어 밝은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체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온 누리에 환희 비추는 부처님오신날을 발원합시다.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자비의 손길을 나눕시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을 일 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갖추어진 행복을 찾아 내지 못한 채 외부의 행복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친 날개짓을 잠시 거두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새들에게 숲과 둥지가 필요하듯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희망과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대자비 광명이 함께하길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부처님 강탄을 봉축합니다. 불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뜻을 깨닫고 중생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찌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오며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공덕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제방의 사문이여, 수행자여, 불자시여, 소리없는 그 소리 귀큰이는 들어보소. 사자껍데기 덮어써고 불자 노릇하는 이는 불법진리 잘못 인식하는 순간 이 세상 망치나니. 그것은 눈멀고 귀가 먼 연고는 또 아닌가. 업장의 경중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도경이 이르기를 지자불신 언자불지라네.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모르면서. 변론하기 좋아하는 그놈은 웬놈이며. 행복도 불행도 나의 공덕 바로보고 정신이 건강하면 만물이 아름답네.

만족할 줄 알면 욕됨 없다

(사)통합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

初發心을 生覺하면서 知足不辱하고 知止不殆하여 可以長久니라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장구할 것이다. 즉, 재물과 권력 명성을 많이 쌓을수록 더욱 허망하다는 것이다. 늘 초발심을 생각 하면서.

하늘과 땅에 비추어 보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일이라면 비록 어렵고 실패할 일이라도 용감하게 추진하여라. 길이 가시밭이라 하더라도 참고 가야한다.

부처님 나신 참뜻 받들자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중생들아 탐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마음으로 행동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어려운 중생을 위하는 일 다시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갈등과 반목을 타파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부처님께 예불 독경하여 소원성취 이루길 바라며 사랑과 봉사와 평등과 나눔을 우선하여 실천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이 세상 나오신 참뜻을 받드는 길이 될 것이다. 성불 하십시오.

자비 온누리에 충만하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불법의 바다 임제종에 넘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임제종 가풍, 임제선법의 할은 후학을 살리고자 함이며 할은 당대후학을 깨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밝은 지혜는 영원한 생명

한국불교원융교단 대법주 마정 스님

어리석은 사람은 미혹하여 참다운 자기 자신은 잊고 물질 경계만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매사에 이해관계에 빠져들어 하는 일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지혜로 영원한 생명을 깨닫도록 인도 하시고자 이 땅에 출현하시었습니다. 안과 밖이 없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지혜신통의 불성을 깨달아 밝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시급한 사실임을 인식하여 찰나도 허비하지 말고 법음에 귀 기울여 향하는 마음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율 지키며 화합합시다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계율을 지킴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견해를 지님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수행함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서로 예절을 지킴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바른 언행을 지님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서로의 뜻을 존중함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을 생활화 합시다. 사부대중이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성을 깨우치고 스스로 성불의 길로 걸어갑시다.

마음의 평화가 곧 부처다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뭇 생명의 불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자리이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서로를 탓하며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오늘 부터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인 것을 알고 자비로서 함께 합시다.

얻을 법도 잃을 법도 없다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眞佛無形이니 無佛可求요,
眞道無體하니 無道可成이요,
眞法無相이니 無法可得이로다.

참다운 부처는 형상이 없으니 구할 부처가 없고,
참다운 도는 실체가 없으니 이룰 도가 없으며,
참다운 법은 꾸밈이 없으니 얻을 법도 없다.

두려워 말고 당당히 살자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영겁의 세월을 밝혀 오는 동쪽하늘 새벽 별빛은 생사의 속지 않는 노인의 소식이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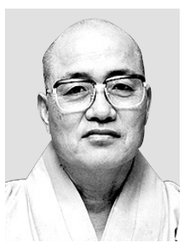
오늘도 오고 가는 벗들마다 웃으며 권하는 한잔이여.

행여 잃을까 두려워 않는 당당한 천백억불 모습이라네.

“모든것 마음이 만드니 내마음 근원 찾자”

마음 속 진리 법등 환히 밝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모두의 마음속에 진리의 법등을 환하게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삼계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으로 만든 것,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스스로 만든 것이니 우주만유(宇宙萬有)의 근본인 마음의 근원을 밝히지 않고 어찌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만유의 진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마음의 근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참으로 찾기 어렵다(心心心難可尋)”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마음을 찾겠다는 욕심에 가려서 참 마음을 못 찾는다고 하니, 찾겠다는 그 마음까지도 비워 버리고 빈 허공과 같이 모든 생각을 버린다고 하면 비로소 그 때 드러나는 참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밝고,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오래된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온 누리에 환히 비추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발원합시다.

어려운 이웃을 내몸처럼 돌보자

김희옥 동국대 총장



부처님 오신 따뜻한 봄날 세상의 모든 봄날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크나큰 대광명의 복덕으로 이 땅에 오신 봄의 부처님 생사고해(生死苦海) 헤매는 중생들 건져주시고 가슴에 처음으로 꽃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위로 더없이 높고 밝은 깨달음에 이르러도 한걸음 더 나아가 정등정각의 그 세계 일러주신 부처님 일평생을 걸어 걸어 향기나는 바른 말씀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마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봄은 오고 인간의 봄 또한 처음으로 왔습니다. 새 생명의 부처님은 봄의 스승이시오 검은 바다 밑바닥까지 밝게 비추는 대광명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부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찾아오시는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은 그래서 스승의 날입니다. 억조창생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말씀 두루 전하여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동국대는 부처님 학교 중 가장 낮은 학교,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친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학교, 지혜와 자비가 뭇 생명의 평화와 함께 하는 학교이기를 부처님 전에 엎드려 서원합니다.

연등 축제로 부처님 뜻 기리자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세상 만물이 행복할 수 있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 집안에서 가장 큰 축제인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작은 등불의 의미를 불자님들의 가정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하며 그 곳에서 시작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사바세계로 오셨습니다.

이 날은 탄신을 경축하는 국민적 축제임과 함께 부처님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깨달음을 향한 높은 뜻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법에 귀의하고 진리의 증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불자들이 가야할 길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향한 초심 회복합시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분처럼 살아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오셨던 때도 다툼과 불의와 아픔 등은 있었습니다.

그 분이 보여주신 삶의 여로는 그와 같은 관행들을 고쳐서 참인간의 모습으로 새롭게 소생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고통은 더욱 첨예화되고 깊어지는 듯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분에게서 멀어져버려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과보(果報)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는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초심(初心)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하는 일이 이 시대의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발심 그때가 곧 올바른 깨달음(初發心是便正?)

불법 수호 못해 참회합니다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삼계를 이끌어 주시고 뭇 중생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강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 정성 감읍하옵고 귀의합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부처님 앞에 고개들 수 없는 죄인(罪人)이 되어 차마 '봉축'이란 한 마디 말마저도 올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위없는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수호하지 못한 죄,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유촉(遺囑)을 받들지 못한 죄, 이 땅의 사부대중들이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누리기 위해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지 못한 죄, 좌도(左道)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죄 깊이 참회하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부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방편(方便)이나마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재정의 투명화, 계율의 실천으로 거듭나는 한국불교를 염원합니다.

참회업장원 깊이 새길 때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심을 수희 찬탄합니다. 어느새 우리사회의 화두는 소통과 화합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화합을 앞섰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들이 내 뜻에 순종해 주기 바라는데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요즈음 우리 주위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들려오는 소리 또한 어둡고 칙칙합니다. 포살은 수행자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계사를 모시고 계본을 읽으며 계를 범한 수행자가 대중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참회하는 의식이고, 자자는 안거의 마지막 날에 수행자들이 모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의 과실을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참회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과실을 고백하고 서원을 세우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참회게송 구절구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반추하고 항상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임진년 사월초파일을 맞이하여 우리불자들은 다시 참회업장원을 새기고 새겨야할 때입니다. 참회는 향상의 길로 들어서는 심주입니다.

국민 봉사 하화중생으로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석탄일은 불자로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바세계 중생의 힘겨운 삶에 자비와 안락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한 부처님의 49년간 전법의 원력이 시공의 경계를 넘어 우리들의 현재 삶 속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2500여 년 전의 과거 속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력히 나투어서 실천되고 있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불법의 진리로 이루어가는 것이 곧 부처님을 경탄하고 장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불자연합회와 소속 불자들은 매년, 매일, 매순간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으로 삼아 상구보리로 향하고,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화중생의 방편으로 삼아 자리이타의 삶을 완성하겠다는 큰 원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공무원불자로서의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연꽃 피워 나가길 발원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2000만 불자님들과 한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2556년 전 부처님께서는 무명의 마지막 고리를 끊고 광명의 본래면목을 증명하려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후 인류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켜 주신 지혜의 등불로 나를 밝히고 이웃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순간 순간이 불성의 발현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 존재가 둘 아닌 하나라는 진리, 그것이 인류를 깨어나게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 밝은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나의 존엄성을 부정했으며, ‘나’인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신록으로 가득하고 뭇 생명들이 살아있음을 찬탄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 번 부처님 전에 모여 당신이 오신 뜻을 되새깁니다. 갈등과 대립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깨어있는 불자이기를 기원합니다. 불꽃 속에 연꽃이 다시 피듯이 자비와 평화의 연꽃이 피워나기를 기원합니다.

진공묘유의 불국토 건설을

임희웅 포교사단 사단장



부처님께서는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하시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어 고해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중생을 건져 주십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길잡이가 되시어 구경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스스로 무명을 밝히는 포교사가 되고, 물과 같은 성품으로 하심(下心)하고 하심(河心)을 본심 삼아 가장 낮은 자세의 봉사를 통해 모든 분이 다 안락하고, 함께 부처를 이루는 그날 까지 신명을 바쳐 활동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행과 수행을 통해 무분별지(無分別智) 경계를 뛰어 넘어 대아(大我)를 이루는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의 경계에서 진공묘유의 실상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불국토 건설에 매진합시다. 이와 같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 사회와 민족국가를 평화롭게 하고 환희와 감동을 주는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실체 없음에 깨어있기를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



“신(神)이신가요?” 그들이 궁금해 하며 질문하였다.?“아닙니다.”?“그렇다면 천사?” “아니요.” “그러면 성인(聖人)이세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오직 깨어 있을 뿐.”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인류를 긴 잠에서 깨우는 위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루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소멸합니다. 일어나는 생각과 모든 형상과 행위가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고 싫음에 물들지 않아 훈훈한 자비와 밝은 지혜가 솟아납니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여덟 겹의 바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리석은 부처인 중생이 깨달은 중생인 부처가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희망 일깨우길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슬픈 부처님 오신 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희 속에 맞이하는 기쁜 부처님 오신 날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도 궁극적으로 마음에 달린 것이겠지만, 궁극의 마음에 이르기 전까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에 처지에 문제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이겠지요? 그러기에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네 세간은 힘들고 고통 받는 이들이 가득하기에 슬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유정무정의 가림 없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구원되어 있다고, 손을 잡아주시니 환희로 충만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왕이면 ‘마음에 평화 세상의 행복’이 부처님 오신 뜻임을 깨닫고, 현대불교의 애독자님들과 함께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여, 안녕!

부처님법 경탄하는 날로 맞자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시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길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시진 않으셨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님들은 부처님오신날의 참 의미와 부처님의 법을 더 믿고 실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된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별은 어둡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진리이며 세월이나 환경에 의해 퇴색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은 그 진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어느 시절보다 더욱 환희심 넘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회원과 대한민국 모든 불자님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삶과 법을 마음속에 담아 그 어느 때 보다 기쁨 가득하고 부처님의 법을 경탄할 수 있는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NEW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무료배송)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우리는 공업 중생 함께 살아갑시다”

불교 화합을 이야기 하다

한국사회는 현재 갈등의 도그마 속에 있다. 양극화는 사회 계층을 나누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로 나뉜 진영 논리는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더욱 경색된 남북 갈등은 그 끝이 안 보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회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스님과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윤원철 서울대 교수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도법 스님

“불교 화쟁적 관점에서 갈등 해결책 찾아야”



고준환 교수

“이제는 종단도 사부대중 참여 필요”



윤원철 교수

“종교 공멸 위기… 상생의 대책 논의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초 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높은 갈등지수는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사회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갈등의 원인이 진영 논리에 있다고 분석했다. 스님은 “진보와 노동자, 보수와 자본가로 나뉜 진영 논리는 자신의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며 “서로 입장 차이가 극명한 두 진영의 논리는 평행선을 달린다.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가 분열로 치닫는 이유”라고 밝혔다.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는 헌법상 기본질서, 가치질서가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사회를 이끄는 것은 사람인데 삿되고 분별됨이 없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다”며 “특히 사회지도부에는 이런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공심(公心)을 가진 사람이 없다보니 자연스레 사회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는 “불교의 시각에서 보자면 모든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아집에서 비롯된다”며 “상대방이 이기적이라고 여기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이기심으로 그에 대처하면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모든 갈등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동력 수준을 넘어서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또 다른 자살자가 발생해 22명이 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태와 같은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적 관점의 해결을 주문했다. 도법 스님은 “불교의 법은 공평무사하다. 사회통합적인 관점과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국 사회라는 거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공업 중생”이라며 “힘겨루기가 아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진영 논리를 넘어선 공동체 회복에 불교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교의 화쟁적 관점에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이끌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한 기업 경영 이익은 인정해야 하며, 자본가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특히 노사문제의 ‘계륵’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이 이들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고 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동결 등으로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기업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노사 양측이 모두 중시하면서 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논의하다보면 그런 넓은 시야와 높은 차원의 원리는 젖혀지기 십상”이라며 “중생은 연기적인 존재라는 깨달음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가 노사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훌륭한 현실적인 방편도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집·진영 논리가 갈등 원인
노사문제 연기적 접근 필요
물자·통신 등 남북교류 확대
‘도박사태’ 종단적 쇄신 절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놨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부회장을 지낸 고 교수는 불교계가 경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교수는 “통일은 민족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물자, 통신 등 남북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며 “현 정권은 자주는 있어도 상호적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남북 문제를 민족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60년이라는 세월을 따로 살았지만 한반도라는 공간과 민족이라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영원 가치”라며 “민족 통합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조망해야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남북간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족 배반’이다. 이제 구태의연한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갈등은 내재된 폭탄이다. 최근 종교평화위원회 자료에 보면 훼불 등의 종교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윤 교수는 학생들의 종교 인식이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가 본래의 모습이 아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익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종교지도자들이 우선 공멸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 의식이 있어야 피상적인 친목 차원의 방안을 넘어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은 종교가 사회 공공선을 함께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생명’이라는 근본적 진리에 종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종교계가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종교 간 이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시대의 가치, 공동선을 해결한다면 분명 종교 간 평화는 찾아온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불교계를 사분오열로 만들고 있는 도박사태에 대해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고 교수는 “분쟁의 핵심은 결국 종권 다툼이다. 이제는 사부대중의 종단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종헌도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하원으로 나눠지더라도 중앙종회에 재가자 참여가 필요하다. 이래야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기존 기득권 세력들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현재 종권이든 비종권이든 자신이 종도라는 자각이 없다”며 “공심을 가진 종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시민사회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 물었다. 먼저 고 교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윤 교수는 모든 것이 연기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도법 스님은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예로 들며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주문했다. “이 정신에 맞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에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주체적인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주지 성타

관	장	종상	재	무	종천
학	장	덕민	사	회	종민
선원장		종우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각천
기	획	정문	사	서	정빈
교	무	정수	회	계	성명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龍珠寺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 성 무
교무 인 해
호법 덕 현
연수 대 현

기획 법 진
포교 중 원
박물관장 보 승
신도회장 해인화

재무 응 진
사회 본 각
청소년 성 유

■부설■
효행교육원
템플스테이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 곡 사

마음을 맑게하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도량

주 지 원 혜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 041)841-6221 전송 041)841-6227 www.magok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삼호 성문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 Fax (053)985-4405 / www.donghwasa.net

한문불전승가대학원
[2012학년도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

1학기 : 3월 6일 개강 ~ 7월 4일 중강 / 매주 화,수요일 저녁 6시 ~9시까지 / 반월당 보현사 3층 천불전

과 목	교 수 사	요 일	강의시간
법화경	무비스님	화요일	16강
서 장	고우스님	1, 3째주 수요일	8강
직 지	통광스님	2,4째주 수요일	8강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 대학원에서는 2012학년도 청강생을 모집 합니다 문의전화: 사무처 053)252-3445, 010-7166-5459

노인전문요양원 동화사 자비원 치매, 중풍, 전문노인요양
☎ 053)985-2115 Fax 053)986-2115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海寺

주 지 돈 관
총무국장 도 홍
기획국장 재 경
교무국장 원 오
재무국장 혜 안
포교국장 도 융
호법국장 성 본
사회국장 성 담

문도대표 혜 인
관 장 돈 명
주지특보 덕 조
원 주 석 담

신도회장 김제용(금구)
불교대동문회장 노성현(법광)

♣ 지역의 전통 명문사학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해사 수림장 054)335-0566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FAX 054)335-0293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조실 지유 대종사
주지 수불
사부대중 일동

■범어사 행사일정
봉축 법요식 오전 10시
봉축 문화공연 오후 2시
불교 문화체험 오전 11시~오후 5시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무료진료
오전 9시~오후 4시

■부처님 오신날, 범어사는 차 없는 도량입니다
• 임시주차장 금정중학교·청룡초등학교 운동장
경외 제1주차장, 상마공영주차장
• 셔틀버스 운행시간 : 오전 7시~오후 6시
운행구간 : 금정중학교·청룡초등학교~범어사
• 경내교통통제 오전 5시~밤 12시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주지 원산 도명

유나 천진 보탑
율주 중산 혜남
강주 현진 지형
율원장 우설 덕문
박물관장 범하
재비도량관장 지철

총무국장 보화
기획국장 명현
교무국장 광우
재무국장 신본
사회국장 도심

포교국장 묘경
호법국장 선주
원주 마벽
도감 세봉
농감 보근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0)

부처님 발자국 소리 들리는 죽림정사

아쇼까 석주는 사라지고 탑만 남은 신 왕사성 터

현재 인구 10여 만 명의 라즈기르 거리에서 가장 번잡한 곳이 죽림정사 앞 같다. 사람을 태운 마차와 승용차들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주로 힌두사원이나 자이나교 사원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불교신자는 우리 일행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죽림정사에서 북쪽으로 2km쯤 가면 빔비사라왕이 조성한 신 왕사성 터가 있다. 신 왕사성이 조성된 이유가 흥미롭다. 빔비사라왕이 구 왕사성에서 살 때였다. 화재를 내는 사람에게는 성문 밖 시다림으로 추방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왕이 그만 실수로 화재를 내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빔비사라왕은 왕자에게 구 왕사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북문 밖으로 나가 살았는데, 그 틈을 노리고 바이샬리왕국이 침략하자 왕의 지휘로 성을 쌓아 격퇴시킨 바 그 성이 바로 신 왕사성이 되었다고 한다.

신 왕사성 서문 터 밖에 아쇼까왕이 조성한 스투파가 지금도 있다. 아쇼까 스투파가 사라스와티 하천가에 10m 정도 높이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끼리상이 얹혀 있었다는 아쇼까왕 석주는 사라지고 없다. 코끼리상의 석주는 상카시아에 있는 석주와 동일한데 어쩌면 아쇼까왕이 상카시아를 순례한 무렵에 조성한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장은 신 왕사성 서문 밖의 스투파와 석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카란다 연못에서 서북쪽으로 2, 3리를 가면 아쇼까왕이 세운 스투파가 있다. 높이는 60여 척이다. 그리고 곁에 석주가 있어 스투파를 세운 사적이 새겨져 있다. 높이가 50여 척인데 위에는 코끼리상이 조각돼 있다.'

현재 신 왕사성 터도 역시 구 왕사성 터와 마찬가지로 잡목이 우거진 채 방치돼 있는데, 특히 신 왕사성 서문 밖은 기원전 3세기경에 아쇼까왕이 스투파와 석주를 건립했을 때만 해도 아름다운 장소였겠지만 현장이 갔을 무렵에는 이미 공동묘지로 변모해 있었던 것 같다. 한림(寒林) 즉 시다림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죽림정사 주변에는 불교 유적지들이 많다. 정사 남쪽 온천이 있는 산자락에 가섭존자가 머물렀던 필발라 석실이 있고, 또 거기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최초로 부처님 말씀을 결집했던 칠엽굴이 있다. 정사 동쪽으로는 빔비사라왕의 아들 아자타사투를 이용하여 승단을 장악하려고 했던, 부처님의 사촌동생 데바닷타가 머물렀던 석실이 있다.

부처님, 1천 제자 이끌고 왕사성에 입성

답사일행은 죽림정사 안으로 들어간다. 죽림정사에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곳이 빔비사라왕이 기증한 절일까 하는 의아함이다. 이런 비좁은 곳에서 1천 명이 넘는 비구가 어떻게 머물렀을까 하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은 우루벨라에서 카샤파 삼형제를 따르는 수행자 1천 명을 귀의시킨 뒤 왕사성(현 라즈기르)으로 왔던 것이다.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들어오는 장엄한 모습을 불전은 제석천의 노래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복(調伏)한 이가 조복(調伏)당한 사람들을 이끌고/ 앞서 결발행자(結髮行者)였던 사람들을 이끌고/ 해탈한 이가 해탈하게 된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의 빛도 아름다운 세존은 왕사성에 들어가셨다.

벗어난 이가 벗어나게 된 사람들을 이끌고/ 해탈한 이가 해탈하게 된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의 빛도 아름다운 세존은 왕사성에 들어가셨다.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이가 생사의 바다를 넘어서게 된 사람들을 이끌고/ 해탈한 이가 해탈하게 된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의 빛도 아름다운 세존은 왕사성에 들어가셨다.

십주(十住) 시방(十方)이시며 십법(十法)을 알고 십호(十號)를 갖추어/ 1천 명의 비구에 둘러싸여 세존은 왕사성에 들어가셨다.

두말 할 것도 없이 '해탈한 이'나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이는 부처님이고, '해탈하게 된 사람들' 이나 '생사의 바다를 넘어서게 된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귀의한 카샤파 삼형제와 그 제자들일 것이다.



대숲이 우거진 죽림정사 경내. 장림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격한 빔비사라왕이 카란다 장자의 죽림원을 사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정사를 건립해 부처님께 기증했다.

부처님 머물었던 왕사성 장림
1천명 귀의시킨 위의 느껴져
설법 듣고 감격한 빔비사라왕
최초 사원 죽림정사 건립 기증



죽림정사에 있는 동자승 모습의 부처님 상.



죽림정사로 가는 길은 라즈기르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다.



부처님이 자주 포행하셨다는 죽림정사의 카란다 연못. 사박 사박, 부처님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사리불, 목련, 석가족 출가해 부처님 설법 듣다

빔비사라왕은 장림으로 달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격하여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물 장소를 찾는다. 성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다가 마침내 카란다 장자의 죽림원을 사들여 부처님께 기증했다. 죽림원에 1천 명의 비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정사도 지어 주었다. 그 정사가 바로 죽림정사로서 불교 역사상 최초의 사원이 된 것이다.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머무는 동안 초기승단을 이끌게 되는 두 지도자, 사리불과 목련도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가 된 인연 이야기는 이렇다. 하루는 사리불이 왕사성 안으로 탁발을 나갔다. 마침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된 다섯 비구 중 한 사람인 앗사지도 성 안을 들어와 탁발을 하고 있었다. 사리불은 앗사지의 당당한 위의(威儀)에 반했다. 사리불은 중얼거렸다.

'참으로 고상한 모습이다. 이 수행자야말로 확실히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사리불은 앗사지의 탁발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가까이 가서 말했다.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고요하고 당당하십니다.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저의 스승은 석가족 왕자였다가 출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스승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스승을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또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앗사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리불은 법안(法眼)이 열렸다. 사리불은 거처로 돌아가 친구인 목련에게도 앗사지에게 들은 법을 전했다. 스승 산자야와 그 제자들에게도 전했다. 그러자 산자야의 제자 250명은 사리불과 목련을 따라서 죽림정사로 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 이 사건은 왕사성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는 육사외도(六師外道)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신의 제자들을 잃어버린 육사외도 중 한 사람인 산자야의 충격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부처님이 카필라성을 찾아가 석가족들을 출가시킨 것도 죽림정사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석가족이 출가하였다고 해서 바로 죽림정사로 들어와 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정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석가족이라 하여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도 않았을 것 같다. 부처님의 속가 아들인 라훌라도 잘 자리가 없어 부처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잔 적도 있고 나중에는 죽림정사 부근의 온천림에서 머물었던 것이다. 데바닷타도 역시 죽림정사에 살지 못하고 지금도 남아 있는 데바닷타 석실에 살면서 부처님과 갈등을 일으켰던 사실을 봐도 그렇다. 데바닷타는 성품이 원만한 아난다와 형제라는 설도 있고 자존심이 강한 아쇼다라비(妃)의 오빠라는 설도 있는데, 부처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성격적으로 아쇼다라비의 오빠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다음의 일화도 부처님을 난처하게 만든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세존께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늙으셨으니 교단의 통솔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자 세 번이나 요구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내 데바닷타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데바닷타여, 여래는 사리불이나 목련에게조차 교단의 통솔을 맡기지 않고 있다. 하물며 너와 같이 6년 동안이나 군침을 삼키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군침을 삼킨다'는 속어까지 써가며 데바닷타를 경책했다. 이후 데바닷타는 아자타사투와 모의하여 부처님의 재가제자인 빔비사라왕을 축출했는데, 결국에는 아자타사투도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8등분 한 사리를 마가다국도 분배 받아 스투파를 죽림정사 동쪽에 조성한바, 아자타사투 명으로 봉안했던 것이다.

죽림정사가 예전보다는 정비돼 있지만 초라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숲 안에 있는 불상도 왠지 어색하다. 카란다 장자의 이름을 딴 카란다연못이 그래도 기운이 좋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연못물이 말랐다고 현장의 〈대당서역기〉는 전하고 있지만 지금은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일행은 연못가에 앉아서 잠시 좌선에 든다. 2천 5백여 전 부처님이 카란다연못 둘레를 포행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봉 축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종 정 화산 월인 (사단법인 종정 협의회 회장)

주석처 서 래 암

비구 범음대학학장 및 총무원장 법수 011-584-5588
비구니 범음대학원 원장 범관 051-528-4177

570여 사암일동

■ 총본산 : 진주시 이반성 만수산 승가사 / 주지 선견 055-754-1942
■ 총무원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번지 / 051)556-0278-9. 051)552-8554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www.go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 봉 근 일
회 주 송 암 혜 승
주 지 남 전 호 성
부주지 등 운

총무국장 도 륜
교무국장 성 공
사회국장 등 안
포교국장 용 담
기획국장 지 현
재무국장 함 홍
호법국장 정 우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 우
안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자 현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 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 하
템 플 스 테 이 연수국장 지 견
안동 청소년방과후센터 센터장 자 명

사 부 대 중 일 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 (구계리 116) ☎ 054) 833-2324 팩스 054) 834-6935
• 템플스테이 ☎ 833-6933 둘째, 넷째주 토~일 (1박 2일)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부처님이 오신 뜻깊은 날!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근본도량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 공 월 주
회 주 금 산 도 영
주 지 벽 산 원 행

부 주 지 성원덕 우혜산
총무기획 무무회 연승
교재무운 보보원 천성
사호포교 제 환
도 감 보 산
신도회장 김백호

사 부 대 중 일 동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 063)548-4440~2 / 팩스 : 063)548-1390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 엄 사

문 장 혜 광 종 산 대종사
선원장 장 월
주 지 종 삼

부 주 지 영 관 박물관장 종 열
총무국장 일 문 기획국장 원 문
사회국장 성 문 재무국장 우 석
포교국장 우 문 교무국장 우 범

주소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 061)783-7600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사부대중 일동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5월 28일 □ 10시 봉축법요식(육법공양 / 관불의식)
□ 14~16시 자비나눔 1080배
□ 19시 제등행열(탑돌이)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번지 전화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禪本寺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TEL 053)851-1868 ~ 9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운문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회 주 명 성
학 장 흥 륜
주 지 일 진

대 중 일 동

■ 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A15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이를 만난다 해도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고 가까이 해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원로원장 양지은

사서실장 보인
기획실장 보광

총무원장 보공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문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법장. 보월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상벌위원장 법안 호계위원장 범일 경호국장 정목

총무부장 보아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포교부장 무진 사회부장 지일
총무국장 정향 재무국장 자운 교무국장 보선 포교국장 보정 사회국장 지향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팩스 292-4586
■ 총본산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팩스 883-7796

총기 41년 · 불기 2556년

불교총지종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지 성

중앙종의회 의장	대 원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 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등
재무부장	시 정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수 현
교정부장	수 현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 공
사회부장	우 인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법 우

중앙종의회 의원 · 법장원 ·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 밀교 연구소 · 바라밀 공부방
전당건설 위원회 · (재) 사회복지재단 · 효사랑상조회
통리원 임직원 ·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심체제 개혁위원회

위 원 장 경 원
원 로 의 장 지 공
원 로 무 찰. 청 송. 수 암. 원 각. 도 기. 혜 천. 동 봉. 법 선. 법성. 도안
교구종무원장 도 허. 동 청. 만 성. 보 해. 법 해. 석 성. 승 원. 용 운. 지 언
종 회 의 원 고 봉. 이경담. 조경담. 대 각. 대 성. 도 정. 도 혜. 법 승. 법 연. 일 명. 일 운. 자 각. 자 견. 자 명. 재 성. 정 일. 제 법. 지 산. 지 연. 청 호. 현 암. 혜 일.
재단법인이사회 경 원. 혜 운. 일 명. 혜 광. 혜 천. 경 담. 자 명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02) 998-8161~ 2 / 전송 (02) 998-8384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김혜승
부종정 이인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지운. 진봉. 지심. 명산. 해불. 성희. 명재

총무원장 진 봉

총무부장	혜 관	재무부장	성 우	교무부장	해 산
규정부장	혜 암	사회부장	남 륜		
종회의장	지 경	종회부의장	혜 송		
사정원장	지 운	사정부원장	지 법		
교육원장	해 불	교육부원장	지 학		
포교원장	명 재	포교부원장	지 화		
문화원장	지 향	문화부원장	도 희		
수선원장	성 희				
기획원장	명 산	기획부원장	보 명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 전화 0502)321-3333 / 팩스 043)847-0118

(사) 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 송천
총무원장 법산 영봉
사정원장 법천 지산

승정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총무원부원장 능호. 동인
포교원장 정산 문화원장 덕일 부 원 장 보성 고시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수선원장 도공 비구니원장 지명 부 원 장 정연

서울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부산교구원장	송원(산천사)	대구교구원장	정산(범룡사)
울산교구원장	덕일(도성암)	대전교구원장	정연(대림정사)	강원교구원장	지명(지명정사)
경기교구원장	정안(금강정사)	충북교구원장	도명(대륜사)	충남교구원장	무중(구암사)
전북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남교구원장	혜신(남해사)	경북교구원장	정암(정암사)
경남교구원장	덕산(광천사)	미주교구원장	정화(신화사)		

■ 총본산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전화 042)524-2149, 935-2279 / 팩스 042)526-2149

참된 불교의 근본교단

(재)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처님 오신날을 전 종도와
함께 봉축합니다"

본 종에 입종하고자 하는 승려, 법사 환영합니다
승려가 되고자하는 행자 모집(숙식제공)

■ 서울 은평구 녹번동 69-13 송림사 1층 전화 02)358-6641-2 팩스 02)358-6643
홈페이지 www.keunbon.or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0〉

‘어린이를 큰 불자로’…삶의 답 찾고 36년

어린이·교사 포교의 대모 박정자 前 부산불교여교사 연합회장



박정자선생님은 … 1921년 경남 고성 무량리에서 출생했다. 부산 경남여고를 졸업하고 상리, 진주봉래, 부산초량,신선, 연제, 청룡 등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부산광역시 장학사를 지냈으며 1982년 청룡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임 했다. 부산시정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여교사 반야회 회장, 부산불교여교사연합회 회장,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고문, 동국불교전법대학교수 등을 지냈다. 어린이 포교와 불자교사회 조직과 활성화에 헌신했다. 〈교단낙수〉 〈내 종교 내 인생〉 〈참나를 찾아서〉 〈어린이의 꿈을 하늘 높이〉등 책을 통해 포교와 수행의 방법론과 현대 문명에 대한 종교적 성찰 등을 피력했다.

나이 열일곱에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교단에 선 이상 앳된 소녀가 아니라 ‘교사’였다. 시대는 일제강점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쳤다. 보람 있는 날들이었다.

스물두 살에 결혼을 했다.

수줍은 신부는 ‘믿음직한 사람’과 함께 행복했다. 그러나 믿음직한 그 사람과 함께 한 행복은 3년이 채 못했다. 결혼 후 2년을 서울과 진주에서 각자 지내고 함께 살게 된 지 11개월 만에 배탈이 나서 급사(急死)한 남편. 그 기막힌 시간에 울음조차 토할 수 없었다. 바로 뒷날 아들이 태어났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손을 잡아 준 것은 부처님이었다.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몸을 추슬러 다시 교단에 섰다. 그리고 열심히 절을 찾아 다녔다. 부산에 절이 많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물론 먼 곳으로도 다녔다. 부처님 계시는 도량이면 어디든 좋았다. 안정을 찾아가는 품속에서 잘 자라는 아들이 더 없이 귀하고 소중했다.

선지식들을 만났다.

통영 안정사 토굴로 성철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통영 미래사에서는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에게 귀의해 새벽 별빛을 한 아름 안았다. 구산 스님은 보리성(菩提性)이라는 법명을 지어 주셨다. 송광사 불일암에서 법정 스님을 뵈었고, 통도사 경봉스님도 자상한 가르침으로 신심에 기름을 부어 주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인연이 반가운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억누르던 고통의 짐을 덜게 되었다.

고성 문수암으로 달려가 청담 스님께 여쭈었다.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 세상 누구에게 매달려야 합니까?”

절박한 심정이었다. 청담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했다.

“용심(用心)을 잘 해야지요. 한 생각에 짙은 업장을 씻을 수도 있고, 열반이라는 최상의 즐거움도 찾게 되지요.”

그 말씀 아래 마음이 밝아졌다. 결국 마음이로구나! 내 마음을 억누르던 그것도 내 마음이었구나! 빠졌던 물에서 나온 기분이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산으로 돌아 왔다.

어느 때부터 함께 절에 가는 동행이 생겼다. 또 어느 때부터 동행의 숫자가 늘어났다. “선생님. 좋은 곳엔 같이 가야죠!” 하며 여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것. 이제 홀몸이 아니게 되고 보니, 이 또한 좋은 인연이 아닌가 싶었다.

“기왕이면 이름 하나 지읍시다.”누군가의 제안에 모두 동의 했다. 통도사로 달려갔다. 경봉 스님께 절을 올리고 이름을 갖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보살님들, 직업이 모두 선생님이잖어? 가르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해. 그래서 만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가르쳐야 해. 그러니까 ‘반야회’라고 하면 좋겠네.”

1976년의 일이다. 반야회라는 이름 아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포교하는 여교사들. 회원이 늘어나고 모임도 활성화 되었다. 서로의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발원문’을 지어 나누었다.

기름(育)에 자비 있고 가르침(教)에 지혜 있어
예쁜 아기 미운 아기 가림 없이 곱게 보고
잘난 아기 못난 아기 너 나 없이 귀히 여겨
보리(菩提)의 싹 일깨워서 힘을 주어 북돋우고
어리석음 가려내어 따뜻하게 손질하며
뜻과 슬기 불어 넣어 큰 불자(佛子) 키워지고….

그렇게 안으로 불심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교문에서 열심히 전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더러는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도 보였다. “아!” 감탄사였을까?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의 여운이 오래 가시지 않았다.

서원을 세웠다.

포교였다. 그것도 어린이 포교에 진력하고자 서원

여교사 모임 반야회 조직 지도자 양성
교육현장 경험 살려 교안 만들어 법회
살던 집 어린이 포교 위해 ‘동련’에 기증
“어린이 법회 안하는 절 많아 큰 걱정”

했다. 이제 할 일이 확실하게 생겼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을 찾았다. 교사로서 불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그토록 힘겨운 시간 끝에 찾아낸 것이었다.

평생을 어린이 포교에 헌신 해 온 박정자(朴貞子 92) 선생님을 찾아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었다.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 박정자 선생님은 3년 전 살던 집을 (사)동련에 기증했다. 어린이 포교에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리고 송광사 부산포교원인 관음사에서 지내고 있다.

“박 선생님을 뵌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가 잘 될지 걱정입니다.”

(사)동련의 최미선 사무국장은 엷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연등이 예쁘게 걸린 관음사 마당에 들어서니 몇 분의 노(老)보살님들이 서 있었다.

“아, 미선씨 왔어?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

여섯 분의 노 보살님들. 반야회 회원들이었다. 박정자 선생님의 후배 교사들, 함께 전국의 절을 다니며 공부하고 기도했고 어린이 포교에 온 정성을 쏟은 분들이었다. 스승의 날에 영원한 선배요 길잡이인 박정자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해 이틀 뒤에 온 것이다.

“아이고, 교장 선생님. 더 고와지셨네요?”

포교현장에 늘 함께 다녔던 김시애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인사 하자 박정자 선생님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신다.

“어서들 와. 어쩐 일이야? 이렇게 모여서 오고. 관세음보살~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야?”

“저, 미선이에요.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주고 도망가 버린 그 미선이?”

“하하하….”

좌중이 웃음바다가 됐다.

박정자 선생님 곁에 둘러앉은 후배 교사들은 모두 70대 노보살님들이다. 그러나 한창 절을 찾아다니고 포교현장을 누비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청춘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다 어린이 포교의 역사(歷史)였다.

“우리가 반야회를 만들고 회원이 늘어날 때는 정말 신바람이 났었어요. 회원이 늘고 다들 생활이 바쁘니까 지역별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82년에 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결성되어서 교장선생님(박정자)께서 부회장을 맡고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됐지요. 영주암 정관 큰스님 원력이 교장선생님의 열정에 또 한 번 불길을 댕겼던 겁니다. 반야회는 어린이 포교를 위한 지도교사들의 소양과 신심을 길러주는 온상이었어요. 그 중심이 교장선생님이셨고요.”

“교장선생님은 많은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께 어린이 법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다니다 보면 그 절실하고 확고한 의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야 뭘 알았나요? 그저 교장선생님 따라다니며 불교도 알게 되고 포교도 하게 되니 마냥 좋기만 했지.”

“교장선생님이나 우리는 교사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교 현장에서도 모든 걸 교육방식에 맞춰서 진행했어요. 법회를 한 번 해도 교안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놀이를 해도 계획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렇게 어린이 법회의 틀을 다진 것이 무척 중요한 일었다고 생각해요.”

“대한불교교사대학도 교장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교사들을 잘 가르쳐야 포교가 제대로 된다는 신념이 강하셨거든요. 아마 큰 스님들의 부촉을 실천하기 위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포교의 축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 포교에는 교사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장선생님의 서원이 하나의 촛불이었다면 그게 반야회라는 수 백 개의 촛불로 번져갔고, 다시 어린이지도자연합회로, 교사대학으로 확산되면서 수 만 개의 촛불이 되어 어린이 포교가 자리를 잡은 것이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연화연)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부회장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보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중앙교육위원장 김기두(동선)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범패, 육효, 학인모집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사)동련의 초대 이사장 지현 스님(앞줄 왼쪽서 두번째)과 반야회 회원 후배교사들이 박정자 선생님을 찾아 왔다.



1980년대 초반 부산 통불원에서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는 박정자 선생님

라 볼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뭐든지 나눠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마다 정성을 다하셨어요. 대강 넘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관음사로 모셔 드리고 사시던 집을 정리했는데, 모두 놀랐습니다. 새 옷은 한 벌도 없고 어지간하면 기워 입으셨고, 대부분의 물건들이 아주 낡았습니다. 뭐든지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끼고 또 아껴 쓰신 겁니다. 돈이 모이면 포교기금이나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어요. 아드님이 용돈을 드려도 그걸 다 나누어서 아주 조리 있게 쓰시잖아요?"

"교장선생님은 늘 '돈은 고여 있으면 흙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포교, 군부대, 교도소 방문으로 늘 바쁘게 사셨던 겁니다. 교사로, 교장으로, 장학사로 재직하시는 중에는 업무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고요. 평교사 때 연구수업을 하시면 전국에서 참관하러 왔을 정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박정자 선생님이 "잠깐만!" 하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당신들이 모두 나와 함께 (어린이 포교에) 애를 썼는데, 요즘은 전보다 못하지? 어린이 법회 보는 절도 많지 않고. 대구에서도 잘 되는 곳만 되고, 많이 안한다고 하던데. 어쩌면 좋을까?"

좌중이 다소 숙연해졌다. 어린이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야회 회원들은 박정자 선생님의 걱정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서먹한 분위기를 전화 시킨 것은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이었다.

예불을 마치고 들어오신 스님은 인사가 끝나고 "교장선생님 눈이 좀 어두우신 것 같다"는 김시애 선생님의 걱정을 해결해 주었다. 박정자 선생님은 백내장 수술을 하실 정도의 건강이 되므로 수술 일정을 잡기로 했다는 것. 지현 스님은 박정자 선생님

평생 돈 모이면 포교 기금 보시
"다음 생에도 부처님 말씀 전할 터"

요즘도 매일 다라니 수백번 독송
포교 위해 〈교단낙수〉 등 네 권 출간

과 인연이 깊다. 인연은 통영 미래사를 다닐 때까지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동련 초대 이사장을 맡았을 때는 누구보다 고맙고 든든하게 뒤를 지켜준 것이 박정자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관음사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정성으로 보살펴 드린다.

"박 선생님은 요즘도 매일 다라니를 수 백 번 독송하십니다. 깨어 있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정도에요. 연세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총기가 맑으시고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십니다. 포교와 봉사 기도로 일관해 온 시간들이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나이로 살지 말고 나이를 먹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항상 여여(如如)하다는 것을 박 선생님을 통해 배웁니다. 젊은 날의 시련을 불심으로 다스리고, 그 공부를 어린이 포교와 봉사활동으로 회향하시니 진정한 사홍서원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박정자 선생님의 손을 잡고 여쭈어 보았다. 지금 소원이 있으시냐고.

"응? 소원? 두 가지 있지. 하나는 불국토에 인연이 주어져서 부처님 법 널리 전하는 것이야. 나는 요즘 이걸 기도해. 사람은 발원이 없으면 사는 보람도 없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다가 그냥 그대로, 자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내가 아프면 또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슬그머니 가야지."

박정자 선생님은 포교를 위해 4권의 책을 묶었다. 어린이 포교 방법들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다. 대부분 절판이 되어 구할 수 없다. 김시애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는 〈교단낙수〉는 1982년에 처음으로 펴낸 책이다. 책의 머리말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 열일곱의 나이로 교단에 선 그날부터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글로 시작된다.

그 책이 나 오고 다시 30년이 흘렀다.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절집에서 기도하며 내생의 전법포교를 기약하는 박정자 선생님. 놀랍게도 30년 전에 펴낸 책의 서문에 이런 시를 써 두었다.

내가 다시
또 한 번
내 인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번 것은
연습으로 돌려 버리고
새로 맞는 그 나날들을
고쳐 쓸 수 없는
단 한 장의 정서(淨書)처럼
정성껏 정성껏
멋있고 값있게
인생을 엮으련만
이것이 부질없는 후회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다된
내 인생의 종점에 서고 말았네.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꺼지지 않는 등불



동국대 명예교수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는 달뜬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등을 밝혀 놓으니 어느 감돌이라 한들 분위기에 감동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들리는 것이 법음이라 한다면 보이는 것은 법견이라 한들 누가 탓할 일도 아닌 듯하다.

도심에서의 일상은 분주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한 일이 많다. 희뿌연 가로등불도 지친 도심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생기가 돋는 것은 일정 간격으로 장엄해 놓은 등 때문이리라. 마치 연초록의 가로수에 영롱한 보석이 알알이 박힌 듯하다. 이런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아닐까 한다. 특히 은행나무에 걸려있는 등을 보고 있노라면 신혼부부를 위한 청사초롱을 밝혀 놓은 듯 황홀한 상상을 더하게 된다.

부처님 오신날이 오면 가난한 여인 '난다'가 생각난다. 〈아사세왕수결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처님이 아사세왕의 간청을 받아 궁궐에서 설법하게 되었다. 밤이 이슥토록 법을 설하고 나니 사위가 칠흑이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로 돌아가려 할 때 왕은 궁궐에서 절까지 가는 길에 수만 개의 등불을 밝혀 공양하였다. 그때에 난다라는 노파는 왕이 이렇게 성대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무일푼인 가난한 여인은 자기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바 있어 거리에서 구걸에 나섰다. 몇 닢 안 되는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불 하나를 켜서 부처님 가시는 길에 공양하게 되었다.

이 한 등불은 왕이 밝힌 수만 개의 등보다 밝기가 유난히 밝았다. 동틀녘이 되자 수만 개의 등은 다 꺼졌으나, 유난히 한 등만은 더욱 불빛이 밝았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은 목련존자에게 말했다. "이 노파는 일찍이 80억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30겁 후에는 부처가 되어 '수미등광여래'라고 이름 하리라" 하신데서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는 내력이 나왔다.

등을 범어로 pradipa 라고 한다. '빛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pradip에서 나온 말이다. 문명의 이기를 만끽하고 사는 현대인에게 별반 실감나지 않는 등이기도 하다. 온 오프에 따라 일순간에 광명세계와 무명세계가 교차되지만 예전에 등이란 판이하게 달랐다. 천을 기다랗게 조각내거나 솜을 비벼 가늘게 심지를 만들어 접시에 놓고 들기름을 부어 등불을 공양 올렸다. 등불 접시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숨죽인 숨결 속에도 잔잔한 손의 떨림 속에도 서원이 소롯이 녹아났었다.

중국에서는 한 나라 말기에 연등공양이 행해졌다고 한다. 정월 초하루, 엿새, 팔일, 보름 등으로 공양 올린 날짜가 일정하지 않았다. 당나라 때에는 국가행사로 제정되었고 정월 상원에 거행되었다. 연등행사도 명칭에 따라 상원연등(上元燃燈), 상원관등(上元觀燈), 상원야유(上元夜遊) 등으로 중국인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병행되었다. 송나라에서는 화려한 연등행사가 쇠퇴하고 주로 연회의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등행사는 신라 진흥왕 때였다.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했던 이 시기에는 전사한 병사들의 영혼을 달래는 백고좌 법회를 통해 정월 보름에 황룡사에서 성대히 치러졌다고 한다. 신라의 연등행사는 종합적 가무제로 행해졌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번창하면서 연등행사도 정례화 되었다. 봄에는 연등회, 가을에는 팔관회로 정착되었다. 연등회의 시기는 정월 보름이나 이월 보름에 열렸다. 그뿐만 아니라 불사의 건립이나 새로 조성된 불상을 모실 때 등 공양을 하였다. 고려 중엽에 가서 최충헌의 아들 최이(崔怡)가 초파일이 석존의 탄신일이므로 연등행사도 이날로 변경했다는 기록을 〈고려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유교

노파 구걸해 부처님 가는길 등공양
'등'은 빛난다는 뜻 가진 범어서 비롯
가장 오래된 연등행사 신라 진흥왕때
마음의 등불, 무명 밝히는 등불

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시대에 불교적 색체는 미미해지고 민간신앙과 습합되는 형태로 초파일 연등행사가 명맥을 이어왔다.

연등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종, 북, 누각, 병, 항아리 등의 기물(器物) 모양의 등, 수박, 마늘, 연꽃 등의 채과(菜果) 모양 등이 있으며, 용, 봉황, 학, 잉어, 거북, 자라 등의 동물 모양의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칠성등, 오행등, 일월등 등의 천문(天文) 모양의 등이 있는가 하면 수복등, 태평등, 만세등, 남산등 등의 상징적 문자 의미의 등을 비롯하여 아주 다양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상의 등이야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마음의 등은 유일한 것 같다.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니 말이다.

한 주간 언론에 오르내린 교단 내 극소수의 빗나간 작태는 출가인 모두의 자화상인 듯 바라보는 세인의 눈길이 따갑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으랴'라는 속담과 같이 모두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해결 방안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결에 비단결 같은 고운 마음에 사악한 점령군이 진지를 만들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바라보며 속진을 떨치고 마음을 다잡고 본연으로 돌아가자.



결에 있어 든든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고, 우리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노력해 온 템플스테이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항상 곁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신 불자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템플스테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만나세요

템플스테이는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과 홈페이지, SNS 등에서 연중 365일 템플스테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에 자리한 홍보관은
도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체험공간입니다.

+ 운영시간 : 9:00 ~ 18:00

* 템플스테이 정보, 체험 행사, 문화상품 전시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새단장
다양한 템플스테이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문 프로그램 안내 및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종합 온라인 안내창구 입니다.
WWW.TEMPLESTAY.COM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정보
+ 프로그램 소개 및 접수, 체험후기 등 통합 서비스

www.templestay.com twitter twitter.com/templestaykorea facebook facebook.com/templestay me2day me2day.net/templestay Tel 02-2031-2000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A18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벌써 지혜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사) 대한불교삼보종

삼보조계종

●大 僧 滅空 大宗師(1세 종정) ● 名譽宗正 太然 大宗師(4세 종정)

●元老院長 금산 大宗師 ● 副宗正 회천 大禪師 代行

●원로부원장 정공. 정민 大禪師 ●자문위원 태현. 한파 大宗師
원로위원 용운. 혜공. 법령. 효성. 도문. 홍국. 청암. 정민. 정공. 향적. 법천. 조연
종사위원 오연. 화륜. 천암. 문봉. 영운. 법조. 일현. 법령. 정수. 도광. 계월. 법호

●호법원장 법천 부원장 대산 호법위원 영운. 운봉. 법건. 영담
●고시원장 해룡 부원장 일현 고시위원 화륜. 삼현. 광진. 법현

●법조고문 김인수 변호사. 백경석 변호사 (전직 판,검사) ●법조위원 주신식 법무사. 박명준 법무사 (전직 법원주사)

●총무원장 법장 부원장 법조. 법경 ●종회의장 원명 부의장 정수

●교육원장 홍인 ●감찰원장 법도 ●문화원장 도광 ● 포교원장 법륜(대행)
●중선원장 화륜 ●염불원장 청산 ●복지원장 원각
●국제원장 남산 ●건설원장 보각 ●무예원장 청도
●감찰위원 덕암. 법담. 법해. 법조. 해문. 혜광. 진암. 청암. 법진. 백산
●교정위원 혜산.계월.송파.봉화.법성.해운.지공.효진.오연.법가.지원.지월.정안.법승.자명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재무부장 법공 교무부장 무진 규정부장 도담 복지부장 보우
기획실장 선묵 호계부장 청파 포교부장 혜수 사회부장 지명 문화부장 법고 교화부장 해운
총무국장 지일 교무국장 법진 조사국장 혜담 규정국장 법전 감찰국장 선가 무예부장 도묵
기획국장 청봉 문화국장 도문 사회국장 성수 교육국장 무선 포교국장 성조 염불국장 진각
홍보국장 강천 사서국장 성타 사무장 손은진

●교구원 서울교구원장 석수산 경기교구원장 석법인 광주교구원장 석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송파(대행)
대구교구원장 석도신 경북교구원장 석용현 경남교구원장 석서암 울산교구국장 석태공 충남교구원장 석정용
충북교구원장 석지원 전남교구원장 석 일 전북교구원장 석청광 대전교구원장 석해공 인천교구원장 석법영
중국교구원장 석정륵 일본교구원장 석수원 제주교구원장 공 석

●비구니회장 삼보 전국법사회장 男 강해찬. 女 박일행

●총무원 : 전화 055)338-0089 / 서울사무소 02)927-3040.969-0108
●한국불교재단 **승가대학** 055)338-0050. 0502-889-0007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소속. 전국지원연합회** 신규모집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종 정 범해당 대화
부종정 동광. 법용 종정사서 경산

총무원장 만혁
원로원장 대원
원 로 원 관곤. 보명. 대봉. 대심. 대월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현담
문화원장 송담 복지원장 대천 염불원장 대황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혜공. 지명
종회의원 법훈. 자광. 원각. 감로. 용담. 월광. 광덕. 부용. 지선. 진묘. 대광. 자관. 현공. 혜은. 지호. 성각. 중정. 지명. 혜원. 용우. 법천. 대원. 관공. 지혜장. 법천. 청련행.

전국신도회장 대광 부회장 성덕화. 청연행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성문 교무부장 혜원 감찰부장 만공
조직부장 도광 사회부장 정오 포교부장 자관 복지부장 지연

부산경남종무원장 동광 경북종무원장 자광 충남대전종무원장 지천 충북종무원장 대월 강원종무원장 진묘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종 정 청연 월정 사서실장 노정혜

재단이사장, 법인원장 권성우 원로원 엄혜우.이혜봉.하청암.김대산

중앙종회의장
박운학

총무원
총무원장 권성우
총무부장 하동산
사회부장 주만석
문화부장 최혜원
교무부장 장법정

감찰원
원 장 나석진
감찰부장 한지관
조사부장 전법하

법인원
총무국장 양재언
재무국장 이지법
사회국장 우해암
문화국장 김보광
포교국장 노연화
비구니부장 박혜명

교육원
원 장 남석진
교육부장 한영각

포교원
원 장 김진표
포교부장 조명각

부산울산종무원장 전도광
광주종무원장 이성산
인천종무원장 지해무
대전충남종무원장 최법화
경기남부종무원장 허지월
강원종무원장 허금성
충북종무원장 고월공
전북종무원장 김태산
전남종무원장 박일주
경북종무원장 김무진
경남동부종무원장 김신진
비구니회장 강지명
벽암문도회장 나석진
월공문도회장 김대운
자비회회장 이혜봉
경기북부지부장 최병익
경기중부지부장 전민근
경북지부장 주한성

국제불교정법대교수
철학박사 장정태

연합종교신문사
편집부국장 이해균

미타종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임제불교 조계종

종 정 적진당 지암
부종정 적공당 자은

원로원장 석진도 원로위원 석지언. 석법성

총무원장 석법산 감사원장 석월산 조직원장 석동일
총무원부원장 석제현 호법원장 석법철 사회복지원장 석무애
문화원장 석지훈 사회부장 석보원 조직부장 묘 화

서울종무원장 제 현 경북종무원장 법 인 충남종무원장 혜 명
경기종무원장 보 국 경남종무원장 자 범 충북종무원장 혜 주
강원북종무원장 혜 관 강원남종무원장 금 화 전남종무원장 혜 관
전북종무원장 자 성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청암사 / 061)644-7273
총무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71번지 심곡사 / 054)335-7157. 011-537-2311(총무원장)

맑고 향기롭게 !! 불국정토 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한국불교 원융교단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개산대법주 마 정 부대법주 정 림

조계선림 제1본산 관음사 법주 혜조 조계선림 제2본산 보국사 법주 보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타사 법주 법인
조계선림 제4본산 월명사 법주 소허 조동선림 본 산 영평사 법주 정림 임제선림 본 산 호암사 법주 원돈
정토선림 본 산 쌍용사 법주 법천 화엄선림 본 산 금화사 법주 금화

사무총장 석원돈

금오선원 원장 석도일 용봉학림 강주 석의존 영산율원 율주 석혜안
법요원 원장 석대허 중앙불교대학원 재가불자 교육원장 이홍표

〈사찰등록 입종등록 받습니다〉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 전화 031)676-3960 / FAX 031)676-2960
■본산중앙협의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1

"아미타사상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토종

이사장 지산 종 정 각 호 부종정 해 심

원로의장 법보 원로의원 보 덕

총무원장 직무대행 설 진

종회의장 혜 명 종회부의장 해 조 교육원장 초 암
경기교구원장 법 천 경기북부교구원장 자 명 경남교구원장 설 봉
경남북부교구원장 정 각 전남교구원장 정 조 이사장 사서실장 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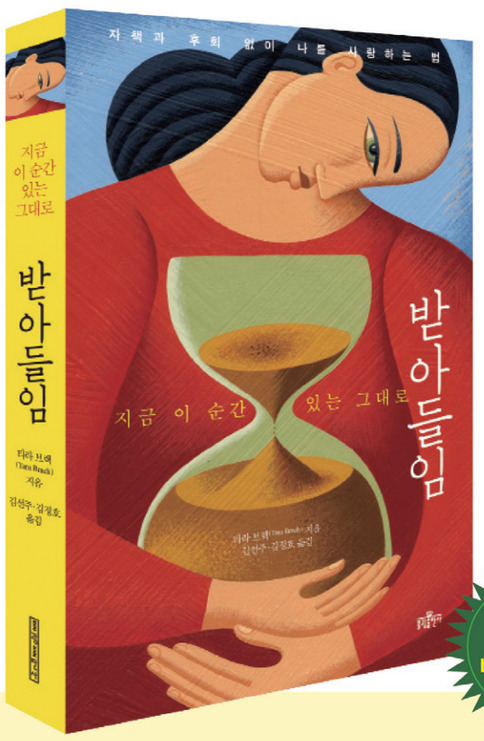
총무부장 설 진 규정부장 혜 성 감찰부장 자 운
재무부장 법 성 포교부장 해 조 법사단장 도 암
법사부단장 대 암 법사부단장 법 해

저희 종단과 함께 하실 종도 모집합니다

■ 총무원 : 인천 남구 학익동 25-12 석목빌딩 701호 / 전화 032)867-2694, 543-2693
팩스 032)868-2694 http://www.jungtojong.org

틱낫한, 혜민 스님이 강력 추천한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19,800원

출간즉시 인문 베스트셀러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2004년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Radical Acceptance」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혜민 스님
-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갈망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뜻한 기분과 굳센 마음으로 관용과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틱낫한 스님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목경찬 지음 | 264면
15,000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 나름이란 뜻?

약인욕료지 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유식불교의 이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一切唯心造] 오직 식뿐[萬法唯識]임을 밝히는 유식불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유식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한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대한 주석을 편집·정리한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이치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

강의 일정 조계사 3월·6월·9월·12월 개강 문의전화 02.720.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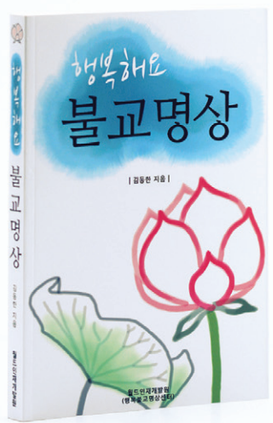
목경찬 불광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각원사·능인선원·삼광사·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 • 음반총판
(주)운주사
(02)3672-7181
www.unjusa.com

운주사에서 추천하는 불교 명상 길라잡이!!



행복해요
불교명상
| 김동한 지음 |

'불교명상 12주 프로그램'

불교명상의 목표는 스스로 깨달음을 완성하고 나아가 완성한 깨달음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불교명상을 수행하면 '왜' 행복과 건강이 증진되는지, 불교명상 수행의 원리는 '무엇'인지, 불교명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

월드인재개발원 | 302쪽 | 14,000원

깨달음으로 가는
위빠사나 명상
| 해공 지음 |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라!'

위빠사나 명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에 대한 내용, 즉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가르침을 서술. 위빠사나 명상의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완전한 깨달음의 말씀에 이르기까지가 일목요연 하게 이어지며 구도자가 가야 할 길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근원 | 313쪽 | 12,000원

서적·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3672-7181
www.unjusa.com

온가족이 함께 읽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불교만화



만화로 보는 한국 사찰의 설화와 전설 1, 2
이규성 글, 그림/사륙배판/컬러/각 246·200쪽/각 10,000원

전국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을 만화로 재구성하였다. 불보살님의 가피, 스님들의 치영한 구도행, 신비하고 기이한 이적을 보이는 이야기 등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다.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208쪽/9,000원

부처님은 전생에 강인한 용기와 지혜, 인내와 끈기, 자비와 희생정신 등을 보여주시는데, 이 책은 그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간추려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만화로 만나는 고승열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200쪽/12,000원

투철한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시인,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주창한 불교사상가, 만해 한용운의 치열한 삶과 숭고한 정신을 만화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83쪽/10,000원

임진왜란의 참화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사명대사의 승려로서의 삶과 승병장으로서의 삶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그려냈다.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88쪽/9,800원

해동의 성자로 불리울 정도로 뛰어난 사상가이자 세계적 저술가, 한국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로 꼽히는 원효대사의 삶과 사상을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왕눈이 스님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46쪽/7,800원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언기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보살행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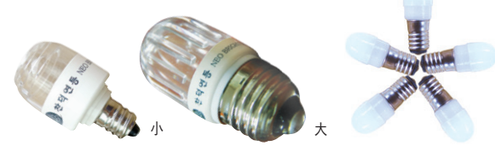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금강저 108염주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요!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재가 어려울 때, 발원기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토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큽니다.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 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 등 할인가



- 공단등(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cm) @3,3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cm) @12,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cm) @3,3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cm) @12,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cm) @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 단 접 등(10.5cm) 340,000원 (100개)
- 비 단 접 등(12cm) 350,000원 (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cm / 25 cm / 30 cm 5줄이상 @ 65,000원
50 cm 1m / 2 m 기타주문생산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LED전구
105,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막대제등램프(분홍/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부처님 손에 담긴 미학적 가치 모색”

관조스님 사진전 봉은사 미륵전서

관조스님 문도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6월 6일까지 봉은사 미륵전과 미륵대불 등지에서 ‘부처님의 손’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사진작가 관조스님(1943~2006)의 유작 중 20점을 선정 불교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관조스님은 사진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사진작가다. 그는 생전에 〈승가〉〈한줄기 빛〉〈사찰꽃살문〉〈님의 풍경〉〈사천왕〉 등 20여권의 사진집을 출간해 불교문화를 알려왔다. 이 중 〈사찰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조스님 문도회는 “부처님의 손에 담긴 미학적 가치를 지관 스님의 법어와 시인들의 글을 통해 재해석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재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 약사여래좌상을 비롯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불보살의 수인을 촬영한 작품 20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작품에는 시인 안도현 이근배 정현종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 19명의 시가 덧붙여져 작품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故지관 스님의 법어를 덧붙인 작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관조스님 문도회는 “이번 전시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우리나라 불교 수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조스님이 추구했던 ‘사소하고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보고자 한 화엄세계(一微塵中含十方)’ 정신도 전하고자 했다”며 “여기에 현대 시인들의 화두와 같은 시를 작품에 붙임으로써 관람객들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이색 전시가 될 것”이라며 전시 내용을 설명했다.

화엄세계 표현한 부처님 수인에
지관스님 법어 · 안도현 시 새긴
이색 전시로 관객들 찾아가
6월 6일까지 작품 20점 전시



관조 스님의 경주 불국사지 석조사면물 약사여래좌상. 관조 스님 문도회는 6월 6일까지 ‘부처님의 손’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법어와 시구를 넣어 이색 전시를 펼친다.

봉은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야외전시다. 일반적인 실내 전시와는 달리 미륵대불을 둘러싼 넓은 야외공간 자연광 아래 커다란 스케일의 사진 작품들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도회는 전시 작품 20점과 관조스님 행장, 불상수인 해설원고 등을 덧붙여 50페이지 분량의 도록을 발간한다. 각각의 사진작품들은 다양한 규격의 소장용 액자로 판매한다. (02)3218-48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호국 선열 넋 기리며 10년”

능화 스님 6월 6일 현충재 개최



“제(祭)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하지만, 재(齋)는 불교적 의식으로 공양을 차별 없이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종 제사음식은 물론 범패음악의 장중하고 멋스러움과 작법무의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에 정성된 마음까지 공양하는 것이 현충재입니다”

범패와 작법무보존회원들과
현충탑서 사방법고춤 선보여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범패와작법무예능보유자 능화 스님(사진)이 인천 수봉산 현충탑광장에서 현충재를 펼친다.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 동안 현충재를 지내온 능화 스님은 불교의 전통문화를 통해 순국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려 왔다.

“10여년전 현충일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현충탑을 방문했다가 재단에 흰 국화 몇 송이가 비에 젖어 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원들과 간단하게나마 예를 갖추고 범패와 작법무의식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원들과 의논해 짜임새를 갖추고 현충재라는 이름을 붙여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범패와작법무보존회는 매년 현충재 의식을 거행해 왔다. 무형문화재 전승발표를 겸하기 때문에 대형 규모의 행사로 진행되는 현충재는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원 전원이 참여한다. 또한 정아미 국악연주단과 정도사 합창단, 피안사회복지관, 남구불교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함께한다.

능화 스님은 “잊혀진 영혼까지도 아니 잊을 수 없는 분들이기에 열정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한편, 스님은 올해 안에 지난 10간의 현충재를 기념하는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부처님오신날 특집 방송…다큐·음악회 등 ‘풍성’

불교TV, SBS, MBC 등 각 방송사에서는 5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불교TV는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특별대담, 봉축음악회 등 11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월 27~28일 오후 2시 30분 2부작으로 연이어 방송되는 ‘JTS-정토를 일구다’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과 JTS 자원봉사자들이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담았다.

1부는 JTS가 캄보디아 오지인 라타나끼리 지역에 5개 학교를 개교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는 장면을 방송한다. 개교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교복과 학용품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2부는 필리핀 민다니오 지역을 방문해 종교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무엇인지 조명한다. 민다니오는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으로 무슬림과 원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지역. JTS는 인종, 종교, 성별, 사상과 이념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한다.

또 5월 26일(오후 7시 30분), 27일(오전 9시 30분), 28일(오후 9시), 30일(오전 11시 30분)에 각각 방송되는 ‘청년혜초, 길에서 길을 묻다’는 동국대 혜초원정대 탐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혜초 스님이 걸었던 4000Km 대장정을 동국대 학생 20여 명이 직접 걸으며 종교 갈등과 이데올로기에 파괴된 유적과 지역민들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담았다.

불교 TV – 정토를 일구다
SBS TV – 공양간 수고롭구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에서는 다큐 ·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진은 5월 27~28일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방송되는 불교TV ‘JTS-정토를 일구다’ 장면

이밖에 불교TV는 ▷5월 26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불교TV회장 성우 스님의 특별대담(오전 8시 30분) ▷5월 27일 1600년 한국불교의 기록 마애불(오후 9시) ▷5월 25일 선율위에 담은 부처님의 진리(오전 11시 30분) ▷5월 25일 ‘불심으로 살으리랏다’ 이배영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오전 9시 30분) ▷5월 27일 2012, 비핵화 평화대회(오후 5시 30분) ▷5월 28일 ‘천년의 꿈이 이뤄지다’ 낙산사 정념 스님과의 대화(오전 7시 30분) ▷5월 25일 보형행원 송(오후 4시 30분) 등이 방송된다.

SBS는 5월 28일 특집다큐 ‘공양간 수고롭구나’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사찰 공양간의 모습을 통해 스님들의 수행 의미를 알아본다. 또 현대인의 멘토로 떠오르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이 예능프로 ‘힐링캠프’에 출연해 그동안 펼쳐온 대북지원, 환경, 사회, 청춘콘서트 등 활동에 대해 스님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MBC는 5월 28일 오전 10시 55분 ‘룸비니에 세운 순례자의 꿈(가제)’을 특집 방송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교미술 대중화 꾀한다”
‘설명이 있는…’ 갤러리 M서



박서영 작가 출품작

젊은 불교미술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부디스토리(Buddhistory)의 ‘설명이 있는 불화전’이 5월 23~31일 종로구 낙원동 갤러리 M에서 열린다.

홍보를 맡은 김민지 씨는 “대중들은 대부분 불화가 어렵다고 얘기한다. 우리의 모임 명칭인 ‘부디스토리(Buddhistory)’는 부처님을 그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대중들에게 부처님 그림을 좀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민지 예상희 박서영 송자민 김혜민 유정현 오선혜 신지영 이혜원 등 전통회화 및 불교회화를 전공한 젊은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특별 참여로 권나현, 이준석 어린이들의 부처님을 그림도 전시된다.

(010)4425-4486 정혜숙 기자

불화작가 권지은 ‘春行’
5월 29일까지 화봉갤러리서



지장 삼존도

불화작가 권지은의 개인전 ‘춘행(春行)’이 5월23~29일 화봉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단에 전통 천연염색을 한 후 배채(背彩)기법으로 작업한 ‘천수천안십일면관음보살’ ‘석가모니불’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의 전통불화 재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선재동자, 보현보살에게 길을 묻다’ 등의 창작전통불화는 물론 ‘Illusion I’ ‘Illusion II’ 등의 현대적인 작품도 선보인다.

작가는 “전시제목 춘행(春行)은 소소한 봄나들이일 수도 불교적 의미로는 실천과 수행의 방편으로서의 불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전통회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010)7199-9760 정혜숙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승단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참회합니다.

마이크 목걸이



A타입 ₩65,000
B타입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 마이크 굵기 직경 38㎜ 이상은 장착이 불가합니다.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다라니 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진언행자 필독서!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我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봉축 부처님오신날



국제 정맥선원 대웅전

초파일 대법회 안내

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법문

일시 : 불기 3039년(2012년) 5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 국제정맥선원(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
전화 : 031)531-8805 / 010-6431-8805

* 초파일 맞이 선시화전이 열립니다
푸른 5월의 녹음과 눈부신 햇살, 청량한 바람 속에 대웅전 뜰방을 거닐며 마음을 두드리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시화를 만나보세요

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북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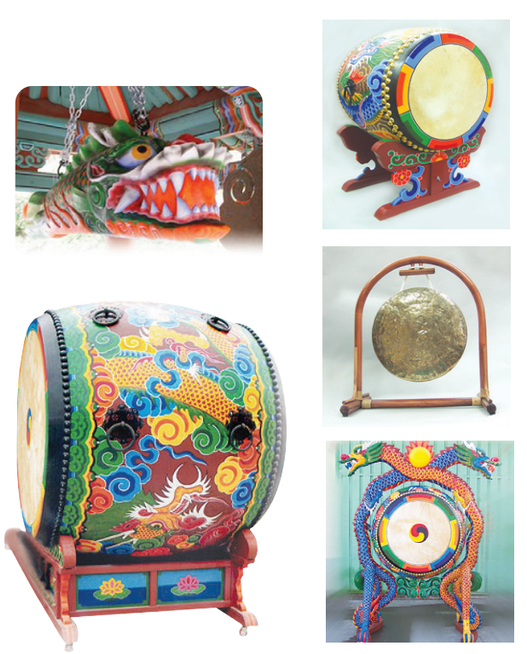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 해 약 령 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A23 전면광고

나 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길벗이 없으면 차라리 홀로 굳세게 착한 믿음의 길을 가라. 어리석은 사람과 길벗이 되지 마라.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상 심곡

부종정 법호 서호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천 청화
종회의장 법두 인곡 감찰원장 법관 일월
교육원장 혜진 기획실장 법웅 정관

총무부장 법웅 정관 교육부장 청운 교육국장 민규

부산교구종무원장 청운 경북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 입종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본산 : (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진원암 / 총무원 : 부산시 남구 우암1동 174-32
■ 전 화 : 051)638-4088 / 010-4540-4088. 총무부장 055)532-4414 / 011-507-2837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장 법준
위 원 정화. 고산. 경호. 보장. 동원. 수운
종 정 혜봉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중앙종회의원 청산. 지선. 연각. 백파. 이타. 수진. 지성. 혜광. 혜언. 정암. 삼자

중 앙 사 정 원 원 장 동원 부 원 장 옥용 사 정 부 장 백파
중 앙 포 교 원 원 장 정화 부 원 장 보담 포 교 부 장 혜일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부 원 장 현법 교 육 부 장 혜일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청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북(대구)종무원장 수진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전북교구종무원장 광호 전남교구종무원장 정암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혜련

사단법인 해동자비원원장 덕광 국 제 교 화 원 원 장 공덕 중 앙 법 사 단 단 장 혜일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법 사 단 부 단 장 혜일 법 사 단 총 무 혜련
전국비구니회회장 법인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 전화 031)262-1577, 265-8386 / 팩스 031)263-1353

허가번호 08-1-56-호. 등록번호 13467-000292호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사단법인 중앙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향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정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대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본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일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덕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대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고 (대한불교법사종 종회의장)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회장 031)262-0606 . 사무총장 051)335-2210 / 011-9330-6210

(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부처님 오신날을 전 종도와
함께 봉축합니다"

총 재 의 륜
회 장 청 운

회 원 일 동

■ 사무실 : 서울 은평구 논번로 6가길 7호 / 전화 02)358-6641-3. 팩스 02)358-6643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 정 법성 혜암

원로원장 무성 고제

총무원장 청송 청파 기획실장 원효 동암 종 회 의 장 대공 동곡
감찰원장 학봉 동일 총무부장 대월 동산 종회부의장 도진
복지원장 무관 도원 사 무 국 장 동만 동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사서실장 백천 동담

종회의원 일동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3장,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 팩스 055)336-7070 / 핸드폰 011-595-6522

“화 치밀 때 원인과 변화과정 관찰해라”



선수
둥자닝 지음
김진무 옮김
일빛 펴냄
2만5천원

최근 ‘화(火)’가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억누르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는가하면, 이유없이 방화를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소위 특정 집단에서만 발생되지 않는다. 평소 온전히 생활 하던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못참아 화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잠재된 ‘화’를 다스릴 수 없을까? 이 책은 이런 현대인들의 감정적 문제를 ‘선수’, 즉 ‘선(禪)의 수행(修行)’이란 정신적 수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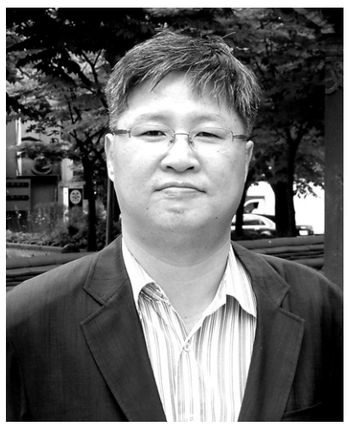
예를 들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 책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따로 변별한 다음 분노의 원인과 그 변화 과정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호전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자신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주의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이렇게 화내고 있는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인 치유법”이라고 설명한다.

‘선수’는 원래 불교에서 중시되는 전통적 수행 체계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서양에서는 선수에 대한 관심과 수행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것의 재조명을 통해 선수를 심리 치료의 영역으로까지 확대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새 시각으로 선수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러한 관심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선수’는 마음의 평정을 제공하고, 우울증이나 초조감 등의 각종 심인성(心因性) 장애를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선수’에 대한 개념부터 그 수행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담고 있다. 특히 수행 방법에서는 분노, 두려움, 집착 등의 ‘번뇌’를 처리하고 치유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정을 즉각 표출해 단박에 풀어버리는 현대인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뒤틀린 감정을 표출해서 잠시 해소하는 것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慈悲)’라는 개념을 원용해 그 원인을 찾아 영혼을 ‘치유’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 불교 수행 법문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심리적 요구를 결합해 새 형태의 수심(修心)법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책서 이



‘禪修’ 심리치료 영역으로 확대
‘선수’ 개념부터 실천법 총 망라
불교의 자비 원용해 분노 치료
3백여 일러스트로 ‘선수’ 설명

야기하는 지선(止禪)에서 관선(觀禪)까지, 관호흡(觀呼吸)에서 여러 부처님에 대한 관상(觀想)까지 이 모든 하나하나의 방법이 모두 심신의 평안과 계발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은 망념의 일종이거나 불안의 정서가 아닌 ‘아(我 :나)’가 사물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인식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며, 두려움의 대상을 파악한다는 전제 아래 정신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이 마음가짐을 관호흡으로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두려움의 긍정적인 방면을 끌어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좀더 쉽게 비유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차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 안전에 더욱 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수’는 부처의 지혜와 경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정력(定力)과 자비심을 배양하고 세계와 생명의 실상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선수’는 사물의 본성과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주고 각종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 이것은 두려움을 두려움 자체로만 인식하여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호흡을 통해 두려움의 상황을 방지하거나 보구(補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수’는 무거운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기 회의를 내려놓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한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에 ‘안거(安居)’라는 용어가 있다. 안거란 본래 승려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수행에 몰두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안거는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15일까지 행해지는 하안거(夏安居)와 음력 시월부터 정월 보름까지 이어지는 동안거(冬安居)로 나눠진다. 바로 이 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이 산문 출입을 자제하고 수행에만 정진하는 기간에 행하는 수행이 선수, 즉 참선수행이다.

이 책은 ‘선수’에 대한 기본적 개념으로부터 실천 방법을 다양하게 편집했고, 총 여섯 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우선 1장에서는 ‘수심(修心)을 위한 선수(禪修)’로서 가장 기본적인 ‘선수’에 대하여 개념과 형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장의 ‘선수(禪修)의 수련’에서는 수련을 할 때의 호흡 방법과 자세, 마음가짐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3장의 ‘관심(觀心)’은 스스로의 내면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도록 도와준다. 이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색을 통하여 이를 해결토록 도와주는 4장의 ‘사고식(思考式) 선수’, 불교의 관점에서 수련의 방법을 모색하고 효과를 얻게 해주는 5장의 ‘관상선수(觀想禪修)’와 6장의 ‘그 밖의 수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인 ‘선수’로부터 전체적인 선수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저자의 생각이라 하겠다. 4층을 오르려 하는 이가 1층~3층을 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일상적 용어로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 불교나 수심(修心)에 대해 관심 없던 사람들의 빠른 이해를 도왔으며, 300여 컷의 일러스트와 도표를 첨부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정신적 수행의 단어인 ‘선수’를 책 전체에 아울러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도 정신문화의 원천

우파니샤드

지은이 미상 | 임근동 옮김 | 을유문화사 | 3만8천원



인도 정신문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가, 힌디 어와 산스크리트 어를 전공한 소장 학자 임근동 교수(한국외대 인도어과)의 노고로 국내 최초로 산스크리트 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우파니샤드〉는 본래 단일한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지은이를 알 수 없다.

이 책은 인도에서 나타난 철학적 사유는 고대 신비주의 문헌이자 인도 최고(最古) 경전인 〈베다(Veda)〉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베다〉는 자연의 사물과 자연 현상, 그리고 자연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신격화하여 찬양하고 기원하는 시(詩) 모음집으로, 신에 대한 예배와 제사를 목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다.

이러한 〈우파니샤드〉는 그 자체가 신비주의 문헌인 〈베다〉의 핵심을 담고 있다. 비전(秘傳)을 통해 전수되는 신비주의 전통에 따라 함축과 많은 대명사 사용을 통해 스승의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게 스승의 곁에 바짝 다가앉아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우파니샤드’라고 부른다.

〈우파니샤드〉의 핵심적 메시지는 바로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궁극적 지식이며, 무의미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서양철학 미학으로 버무린 〈금강경〉

오늘의 금강경

류종민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근본경전)이기도 한 금강경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경전으로 손꼽히는데 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해설서가 출간된 것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0여년동안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살아온 저자의 금강경 강의록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한 마음으로 해탈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저자는 이 책에 담긴 금강경 해설을 통해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한다. 또한 저자는 오랫동안의 강의 경험으로 금강경을 맛깔스럽고 현장감 넘치게 풀어 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금강경 전체에 대한 해설과, 금강경 요의와 수행, 경의 해제와 결집을 담고 있다.

미학으로 단련된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사유의 정수가 현대물리학과 서양철학의 개념들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경전을 해설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소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전의 가르침을 대비시키는 접근방식을 써서 읽기가 수월하다.

예를 들어 ‘금강경’의 근본 사상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부처님께 바치는 법으로 해석하면서 매순간을 부처님께 회향하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일상서 매일 마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발원하고 살라는 의미이다.

저자는 서울대 미대 조소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대 조소학과 교수, 예술대학장을 겸임하였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백성욱 박사가 주석한 금강경독송회 혜화법당에서 시작해 현재 성북법당까지 20여년동안 청년법회와 보살법회에서 금강경 강해를 했다. 불교문화와 유산 및 조형예술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시집으로 〈천강의 달그림자〉 〈달 항아리〉 〈빛의 길〉이 있다. 유나방송에서 12회의 금강경 강독 지난방송을 들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다시 보는 성철스님의 구도 역정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택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3천원



성철 스님을 곁에서 20년간 모신 원택 스님을 통해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성철스님 시봉이야기〉가 출간됐다. 1, 2권으로 나와 불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시봉이야기를 압축해 한권으로 엮었다.

장좌불와 8년, 동구불출 10년의 철저한 수행과 평생 누더기 장삼 한 벌과 서책만을 남긴 무소유와 절약 정신으로 시대의 큰 스승이던 성철스님. ‘가야산 호랑이’처럼 엄격하면서도 제자가 지은 돌 섞인 밥을 묵묵히 드셨던 자상한 스님. 일시적 행복보다 영원한 자유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부처와 같이 치열했던 스님의 구도적 삶이 이 책에 다시 펼쳐진다.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등 세대를 초월한 화두를 던지는 스승과 제자 간의 진한 교감과 깨달음의 이야기는 때로는 미소를, 때로는 진지한 성찰을 가져다준다. 성철스님의 미공개 사진과 에피소드로 가득한, 영원한 스테디셀러 성철스님 시봉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만난다.

저자가 기억을 더듬으며 담담하게 써내려간 시봉이야기들은 법문을 넘어선 깨달음과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9~5/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탄허록	탄허	휴
6	경허	일지	민족사
7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8	걱정말고 기도하라	법안	은행나무
9	깨달음으로 가는 위빠사나 명상	해공	근원출판
10	행복한 마음 휴식	석지현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대한불교원효종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종 정 벽송

원 로 원 장 창해 원로위원 불인. 법성. 호성
총 무 원 장 향운 총무부원장 운오

중앙종회의장 원봉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진혁 중앙종회 법규위원장 지호
감 사 원 장 일륜 중앙종회 사무총장 진산 중앙종회 법 규 위 원 상경. 운영 .지상
중앙종회의원 도명. 옥운. 성은. 원각. 성원

부산종무원장 석불 강원종무원장 청암 충북종무원장 석암 전남종무원장 마명
전북종무원장 경오 경북(북)종무원장 성죽 경북(남)종무원장 법진 경남종무원장 법승
서부경남종무원장 정광 제주종무원장 법월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전국비구니부회장 자성

고 시 위 원 장 태운 교 육 원 장 수혜 문 화 원 장 효산 포 교 원 장 태일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 성암 의 전 실 장 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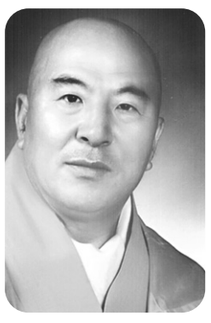
총무부장 우석 교육부장 대각 감사부장 해운 문화부장 대호 재무부장 상기 복지부장 범일

총무국장 상일 사회국장 상천 교육국장 상오 복지국장 우담 재무국장 능인 문화국장 무해
규정국장 행길 감사국장 남수 포교국장 선법

원효보살승단장 홍일랑 중앙신도회 회장 이웅균 중앙신도회 부회장 김용태

종 도 일 동

봉 축 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만물이 생동하고 연한 초록빛으로 산과 들이 물들어 가는 계절에, 초파일을 맞이하여 일평생을 불석신명 하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봉축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것은 그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서원과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무지의 시간을 끝내고 이해와 화합과 평화의 시간을 맞고자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삶의 지향도 찾을 수 없었던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궁극적인 삶의 지향이자 목표인 세상 삼라만상이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주변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열고, 또한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먼저 남을 배려하는 커다란 양보의 미덕을 기르는 불자님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601호 전화 02)735-0501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 전화 052)262-6857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A25 전면광고

부용이나 전단의 좋은 향기도 바람을 거슬러서는 전해질 수 없으나 덕의 향기는 바람도 거슬러 그 향기 어디고 두루 퍼진다.

삼탑인 대승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은파

원로원장 **대호** 원로부원장 **만송. 경월**

중앙종회의장 **만송** 부의장 **명현** 사무처장 **현담**

중앙종회의원 **만송. 혜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명현.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선산. 정혜. 법공. 법인. 유초. 무애.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혜광. 현담**

총무원부원장 **혜암**

총무부장 **현담** 재무부장 **법우** 교무부장 **무적** 감찰부장 **법인**
규정부장 **인각** 교육부장 **성각** 포교부장 **도일** 사회부장 **혜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유초**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월**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명현** 중부교구종무원장 **정암**

◇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 1장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찰 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23-16번지 301호 전화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부산교구종무원 051)468-6790 휴대폰 010-4133-0333 경남서부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경남동부종무원 055)291-7263 휴대폰 011-845-2446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社團法人 大韓佛教三界宗

종정 서허석법수

총무원장 **박일초** 종회의장 **우원경**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삼계종 의료법인 정광병원

http:www.samgyeoijong.org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1-10호 인해빌딩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3-8066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한국불교예술대학 TEL 032) 529-5190

■ 총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으로부터 자비로운 평화와 해탈을 누리게 하소서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덕현벽운
부종정 성주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성해**
포교원장 **해인** 교육원장 **화원** 포교사단장 **원각**

◇ **총무원 임원, 각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해 성문 법진 연담 법인 지밀 천봉 도선 금산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고암 덕행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성수 진광 현공 진산 해인 화원 이착 무상 성일 현광 보현행 보리심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 · 주지 동화
전화 042)283-5896 / 011-769-0300

대한불교본조계종

"부처님 오신날을 전 종도와
함께 봉축합니다"

종도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중랑구 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팩스 02)2201-1163

(사)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 총 무 원

총무부원장 : **도일**
사정원장 : **인산**
포교원장 : **각정**
교육원장 : **일공**
참선원장 : **소운**
홍보원장 : **해암**
연구원장 : **보월**
역경원장 : **관도**
참선부원장 : **선담**

총무부장 : **대광**
사정위원 : **지안.대광.강명**
포교부장 : **선명**
교육부장 : **혜각**
재무부장 : **선혜**
홍보부장 : **법성**
연구부장 : **선경**
역경부장 : **법화**
사회부장 : **법산**
문화부장 : **법연**
교무부장 : **성운**
복지부장 : **지공**
호법부장 : **선우**

▣ 지방교구 종무원

총무국장 : **관보**
포교국장 : **관지**
교육국장 : **수운**
재무국장 : **법성**
홍보국장 : **법은**
연구국장 : **무상**
역경국장 : **임오**
사회국장 : **관덕**
문화국장 : **법지**

서울종무원장 : **지선**
부산종무원장 : **혜명**
대구종무원장 : **강명**
인천종무원장 : **원각**
대전종무원장 : **송암**
울산종무원장 : **석천**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운**
경기북부종무원장 : **성상**
강원종무원장 : **불통**
경남종무원장 : **일공**
충남종무원장 : **경천**
충북종무원장 : **강월**

▣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장 : **천웅**
중앙종회부의장 : **경천**

미륵세존을 주불로 십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도의를 앙양하고 사회복지를 개척함으로써
지상천국 용화세계를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법사,포교사)를 모십니다

◐ 총 무 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bsj.or.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paran.com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혜 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
수 석 이 사 **혜 성** (대한불교구화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향 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남 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중 식** (법화종 총무원장)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준 석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숙 희**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감 사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진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A26 전면광고

어리석은 자들 혼탁한 마음으로 정념을 모른 채 어지러이 살아갈 때 지혜로운 이들은 마음챙김 하나를 가장 고귀한 보배로 여겨 오롯이 지켜가네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부원장 대오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수암 지성 수인
연수원장 혜도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정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경덕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대오　부의장 성원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사무처장 소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법수 소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혜도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대오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창녕지회장 연아　김해지회장 도하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정원수 법사, 부회장 신우연 법사
신풍사신도회장 이정민(청암)법사

총무부장 대광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연아　사회부장 도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경덕 범수 법조 혜인 혜도 대오 도하



-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 숙식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한국 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9 / 사무장 010-8548-86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룸비니부처님탄생지에서 세계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전계대화상 석능인
종　　정 석용기

원로의장 석범아　종회의장 석혜광　총무원장 석용산
법계고시원장 석현덕　승가대학원장 효 천　사정원장 석심공
포교원장 석석문　교육원장 석덕암　호계원장 석용진
감찰원장 석현각

총무부장 수 현　기획부장 서 상　교육부장 각 현
사회부장 혜 능　규정부장 광 명　호법부장 도 신
비구니부장 길 상　사서실장 전 진　법사위원장 금 구

사찰등록환영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　총무원 053)325-0400
원장실 053)325-5288. 종정실 070-7763-9922. 팩스 053)325-4848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봉
총무원장 본 자

종정사서실장 도현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승정위원 대현
종회의장 승법　종회부의장 홍운　법신　종회의원 도암

감사원장 법안　교육원장 혜초　호법원장 원광　수선원장 서연
의전원장 동선　기획원장 법장　비구니원장 효상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감사부원장 현공
경남교구원장 제법　울산교구원장 갑태

총무부장 불현　교무부장 도문　재무부장 혜진　문화사회부장 현공
사업부장 혜명　규정부장 도영

종도모집 안내

종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으로 함께 하실 종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

대 한 불 교 선 종

종 정 효담
총무원장 정 관

총무부장 인성　재무부장 행우　포교부장 효은　사회부장 인호
홍보부장 행수　호계부장 심인　감 사 무 구　사서실장 인우
예경실장 효웅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인성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인성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48-0462 팩스 054)771-6606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 정 법정 홍인
총무원장 혜 상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도 일 동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장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1-228-7813

佛紀 2556年 壬辰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6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6월 5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A27 전면광고

농부가 물길을 내어 원하는 데로 물을 대고 활 만드는 사람이 능숙하게 화살을 다루며 목수가 솜씨 좋게 재목을 다루듯 반야를 얻은 이는 자신의 마을을 마음대로 부리네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회주 성직 스님
주지 지우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17번지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 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TEL 063)222-2555~6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도 가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화중생연 육신등공도량 호명산
감로사 · 승가사
우.477-81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5
청평면 우무내길 210 (새주소) 청평검문소 남쪽 2키로
전화 031)584-0117, 02)2292-3418 / FAX 031)585-5747
카페:http://cafe,naver.com/kamrosa.cafe
서울 승 가 사
우.131-833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92-2 나동용마산길 113
(농협 용마지점 옆) 지하철7호선 용마산역3번. 사가정역 4번
전화 02)2292-3418,2282-3418 이메일 ljk3418@naver.com
한국불교태고종 서울교구 동부종무원장
주지 이지성 합장 H·P 010-3722-3418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72-15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 진관사
회주 진 관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포교원 보현정사,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타
불광노인복지센터,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 주 대종사 무진장
이 사 장 이상우
봉축위원장 안동일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홍천운봉산 광운사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577번지
TEL 033)433-9108
서울포교원 광운정사
부설 광운불교대학
TEL 02)381-8966
주지 청 운
법회(음) 1, 18, 24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657-2
TEL 02)907-3706

첫동대불봉안도량.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 각원사·각원사불교대학
조실 경해 법인
주지 대 원
각원사 신도회
불교대학총동문회
www.gakwonsa.or.kr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45
TEL 041)561-3545 / FAX 041)556-1425

(사)대한불교무량종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 일동
■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佛紀 2556年 부처님 오신날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무형문화 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 원 사
주 지 마일운
부주지 최원허
총 무 조고담
교 무 전지암
사 회 박처명
재 무 김미산
기 획 이동훈
봉원사 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대한불교조계종
등 명 낙 가 사
주 지 청 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547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 경 국 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부처님 오신날
만불산 ## 만 불 사
회주 학 성
■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산 46
TEL 054)331-0101
www.manbulsa.org

부처님 오신 날
구족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사부대중 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전화 041)855-3566~7

公益法人 ##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 師 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 / 전송 730-0799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 흥 국 사
주 지 대 오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전화 02)381-7970 / 전송 02)381-7329
홈페이지 www.heu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회주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전화 02)444-4321, 7215

부처님의 가르침 붓끝에 담아
space 선+
academy 선그림
studio 선불화공방
선아트스페이스
www.sunarts.kr

'현우경' 이야기 (21)

금빛 사자의 성불

사자가 화살에 맞아 죽자 꽃비가…

어느 왕궁에 아자타샤트루 왕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데바닷타가 왕자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의 새로운 부처다.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보지 않겠느냐."

"지금 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찌 제가 나라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부왕을 죽이고 네가 새로운 왕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아자타샤트루 왕자는 데바닷타의 말에 넘어가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백성들은 아자타샤트루 왕자를 꾀어내 부왕을 죽이도록 시킨 데바닷타를 몹시 미워했다. 그리고 부처와 스님들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다.

스님들은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오면 빈 발우만 들고 산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스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굶주리게 되자 부처님을 찾아갔다.

"데바닷타가 아자타샤트루 왕자를 꾀어내 부왕을 죽이도록 시켜 온 나라 백성들이 저희들을 미워합니다."

"스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아라한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 마음으로 여러 성현들을 대하기 때문에 많은 죄업과 과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스님에게 믿는 마음을 낸다면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된다. 나도 아주 오랜 옛날 스님을 공경하고 받들었기에 지금 부처가 된 것이니라."

"어떻게 스님들을 공경하셨습니까."

먼 옛날 견서라는 사자가 살았다. 사자의 몸에서는 금빛이 났다. 사자는 다른 동물과 사람들을 절대 해치지 않았다. 오로지 과일과 풀만 먹으며 지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사냥꾼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있었다. 사냥꾼은 사자를



삽화 · 강병호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

"세상에! 저런 사자가 있다니!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구나!"

사냥꾼은 가사 안에 숨겨뒀던 활을 꺼내 독을 묻혀 사자를 향해 쏘았다. 이 광경을 본 사자는 깜짝놀라 얼른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사냥꾼이 가사를 입은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탈할 것이다. 저 옷은 분명 스님의 가사이다. 내가 스님을 해치면 큰 과보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사자는 몸을 피하지 않고 화살에 맞아 죽었다. 사자가 죽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사냥꾼은 이를 더욱 신기하게 여겨, 사자의 가죽을 벗겨 왕에게 찾아갔다.

"짐승의 몸이 금빛이면 큰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자의 가죽을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상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임금이 사냥꾼에게 물었다.

"사자가 죽을 때 이상한 일은 없었는가?"

"갑자기 하늘이 흔들리더니 꽃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보았나. 이 사자는 하늘사람들과 인간들의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런 사자를 죽여 놓고 상을 내려달라 하다니!"

왕은 사자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다. 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7가지 보배로 높은 기둥을 만들어 사자 가죽을 걸어 놓았다. 왕과 신하, 백성들은 사자의 가죽에 꽃과 향을 올렸다.

왕은 또 금으로 관을 만들어 사자 가죽을 담아 탑을 세웠다. 백성들은 모두 그 탑에 절을 했다. 왕과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 모두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냥꾼이 스님은 아니었으나, 사자는 스님인 줄 알고 좋은 마음을 냈다. 사자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태어나 중생들을 다스렸다. 그때의 사자가 지금의 나이며, 왕은 미륵보살이 됐다. 스님 행세를 하며 사자를 죽인 사냥꾼은 지금의 데바닷타이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 성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가엽게 여겨, 저희가 지은 죄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백성들의 참회를 받아 주셨다. 사람들은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으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어 참되게 살아갔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패션카페 전국 대리점 모집

'새로운 개념의 여성의류판매점 & 커피전문점이 되는 이유 4가지'

1. 재고가전혀 없는 옷가게 패션카페
본사에서 매주 재고는 거두어가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급함으로서 대리점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2. 수익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패션카페
좋은 원두 커피와 다양한 메뉴를 거품없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도 여성의류와 패션잡화 등의 판매수익으로 수익성은 많이 높아집니다.

3. 인테리어! 점주가 직접 하시는게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요?
본사 디자인과 컨셉에 맞추어 직접 시공하실 수 있도록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기술인력(전기,목공, 도장,기계설비 등)을 보유하여 지원해드립니다.

4. 패션카페 마지막 대리점은 360호점 입니다.
대리점의 권리를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전국 360개 대리점 까지만 진행합니다.

5. 수익성때문에 고민하시는 커피전문점 업종변경 가능합니다.
간단한 시설 추가로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www.fashion-cafe.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8-5
☎ 070-7759-0852

나눔과 공생으로 큰 하나 되어가는 공생실천 캠페인

'공생장터'

법우님들의 경기 부양과 재능 나눔을 위하여 **현대불교 협찬**으로
공동 운영 쇼핑몰 '공생장터'를 운영합니다.
법우님 또는 신행단체에서 생산하시는 제품과 상품,
농산물, 문화 활동, 재능과 기능 등 홍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여 개의 품목을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품목은 사진작업과 온라인 이미지 작업,
쇼핑몰 주문 및 배송관리, 행정업무 등을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와 함께 천여 명의 공생인들과 신행단체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상품을 홍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공생장터

참가 자격: 불자 및 각 종 신행단체
문의: 070-4122-0041 공생장터
www.gongseang.com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행 스님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린다면 증오도 미움도 없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이 여섯 번째, 부처님 법설입니다. 스님네들도 알아둬야 할 일이고 또 스님네들을 따라가는 분들도 알아둬야 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의 용어를 방편으로 쓰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한문으로다가 다 해놨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님네들은 반드시 그것을 끌어내려서 잘 뜻으로써, 이 글자 풀이만 해서도 아니 되고 글자 풀이로만 해서 말만 해줘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또 한문으로도 남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감응도 되지 않게끔 그냥 읊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단, 있다면 뜻으로 풀어서 요리를 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해놓고 잘 맛있게 집어먹을 수 있도록 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를 쌍방을 둘로 보지 않는 설법을 그대로 누구나가, 어느 사찰에서나 어느 스님네든 관법(觀法)을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로부터지 누구로부텁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먼저 깨어나야, 즉 말하자면 자기가 전체가 깨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곱번째, 각각 기도해주는 문제입니다. 허허허. 지금 각 사찰에, 그렇지 않은 절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성을 들이러 오면 개개인의 독불공을 들여줍니다. 독불공을 들여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독불공을 들여주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 향, 물 떠놓고 밥 한 그릇 공양을 올리는데, 그래서 공양입니다. 공양을 올리는데 이 스님네들 사시마지 때에 공양 한 그릇 올리면 그 밑으로다 그저 늦게 왔든지 일찍 왔든지, 자기의 소원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님네들이 대신 밥 먹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스님네들이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가 부릅니까? 모두 이거는 중요한 문제여서 아주 침착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해야죠. 스님네들은 공양을 올려드리면서 사시마지 때 통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원대로 그 생각을 주인공에다 맡기면서 모든 걸 관하는 그 마음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우주간 법계(宇宙間法界)의 일체제불에게 모두가 전달이 돼서 한 찰나에 나투어주신다 이겁니다. 나투어줘서 그렇게 밝게 살 수 있게끔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스님네한테 독불공을 해달라, 뭘 해달라 하고 조른다면 그건 너무나 뒤떨어진 사람들의 의식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 뒤떨어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까도 예금통장 얘길했지만, 여러분이 초나 향이나 또는 쌀이나 돈이나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이 가져와서 그냥 재탕 여러분이 하고 간다면, 한 푼도 에누리가 없어요. 근데 스님네들더러 우정 해달라고 한다면, 목탁 두들기고 독불공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 염불을 해주는 대가가 가야 되거든요. 대가가 가니깐 자기네한테 공덕이 갈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쌀 한 됫박 가져왔다 하면은 반 됫박은 스님네한테로 가야죠. 삯으로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고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깊이깊이 하셔서 스님네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마음. 그러나 그 믿고 따르는 마음과 또 스님네가 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과 내 주인공의 모든 게 한마음으로 찰나찰나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어찌 더러운 물이 새 물로 안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업이 본래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의 생각 자체입니다. 그러고 '이사를 가면은 날짜를 봐서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잠재해 있을 뿐입니다. 남이 그렇게 했으니깐 그걸 보고 듣고 말입니다. 그리고 '손이 있는 날 가서 안 된다는데….' 하고 또 즉 말하자면 '삼재가 들었으면 사람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애고가 닥친다는데….' 하는 그 관습입니다, 인제 이게. 그게 바로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모두 잠재해 있으니깐 이사를 가려도 걱정, 뭐 삼재가 든다고, 왜 보기는 또 보는지. 허허허.

보고선 그냥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약한 데에 들어오는 거지, 싸우는 데 약한 사람이 지는 거지 강한 사람이 집니까, 예? 약한 사람에게 칼이 들어오지 강한 사람에게 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약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도 다 약한 걸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깐 딴 데서 세균이 들어와도 되고, 영계성이 들어와도 되고, '이거는 내 판이야.' 하곤 그냥 남의 집을 막 뺏는 거죠, 그냥.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곱째 얘기하다가 그냥 내내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각각 독불공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다. 내가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내 발로 내가 짚고 일어나야 된다. 누구가 '저 사람 불쌍하니깐 대신 먹어준다.' 이럭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부적이나 관상입니다. 이 부적은 예전엔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한 십리 나가면 또 마을이 있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어느 스님이 지나다 보니 저 마을이 필연적으로 사태가 나서 마을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이치가 보이거든요. 참, 그 산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깐 방편으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선 "이거를 붙이고 어느 날 어느 시에 피신을 해라." 이렇게 일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부적을 믿게 됐죠, 이제. 스님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죠. 스님의 말을 안 들으면, 즉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지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마음과 마음을 한데 붙이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방편을 쓴 것인데, 이제는 장사가 돼버렸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이게 무슨 효득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깨비 장난이요, 귀신짓이요, 모두가 독불공 들여달라고 해서 들여주는 사람도 도깨비 장난입니다, 그게 다, 모두가.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신 그 뜻과 가르침을 진정코 제대로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소행입니다.

그러고 관상이라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심상을 올바르게 가진다면 관상도 좋아질 거고, 하하하, 수상도 좋아질 거고 족상도 좋아진다 이겁니다, 심상 하나만 좋으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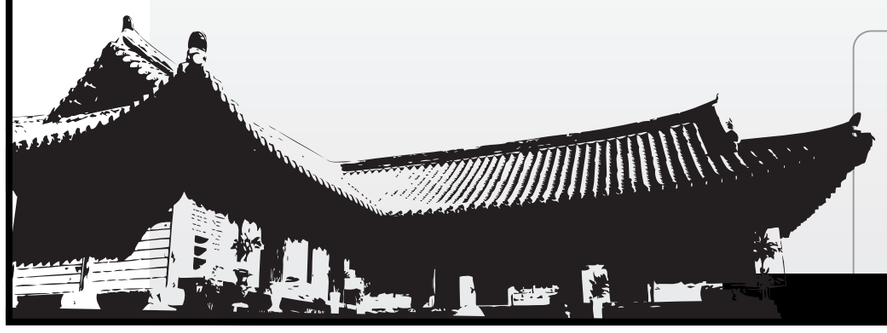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량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입종안내

■ 입종구비 서류 ■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사암 사진 (안 · 밖)

종정 큰스님의
법성게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게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게 휘호는 신묘한 氣가 있습니다.

○ 보급가 15만원 (해인도 2매+족자 1매)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 · P 010-6478-1569



해인도 10.5×17.5㎝

〈족자〉



법성게 38×145㎝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상 하나가 좋으면은 모두가 이 얼굴 자체도 전부 웃게끔 돼요. 그리고 심상을 잘못 쓰면은 손장난도 나쁘게 나가죠. 걸음걸이도 나쁘게, 나쁜 일 하려니깐 막 돌아가죠? 그러니깐 족상이 나쁜 거고 수상도 나쁜 거고 관상도 나쁜 거죠. 그러니깐 심상 하나만 올바르게 생각을 잘 해낸다면 관상도 수상도 족상도 다 좋으니라. 이래서 공덕이 되느니라. 그러니 족상이니 수상이니 관상이니 볼 게 아니라 심상 하나만 진짜로 잘 보고 잘 쓴다면 이거는 세세생생에 공덕을 이룰 것이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생각해보면 허탕한 짓들을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보면 병이고 안 보면 약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모르걸랑 아예 보질 말아요, 허허허. 차라리 모르면은 편안하게 마음을 둠으로써 편안한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구, 올해는 뭐가 또 언짢지는 않을까?' 하고선 가서 온통 관상도 보고 부적도 사고, 뭐 또 점도 치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 좋은 거는 세 가지라면 언짢은 건 일곱 가지나 돼요. 하하하, 그러니 누가 언짢고 누가 언짢고 누가 좋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냥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다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주고 나오는 건 또 좋아요. 와서까지도 이 뇌리에 아주 알쏭달쏭하게 잠재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걸 어떡합니까? 조금만 일이 안돼도 '아이구,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쿠, 이것이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가기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먹고 살기도, 아주 올바로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참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받느냐 이 소립니다.

애고나 질병이나 망상 같은 거, 업보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애당초부터 붙어있던 게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잠재해 있는 그 관습 때문에 아이구,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 '아이구,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에 이래?' '에이그, 죄를 그래도 많이 졌기에 그렇겠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애고가 생기면은 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즉 그 일어나는 마음이 그 업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하죠.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는데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딨고 아니, 우리들이 마음이 쉴 자리가 어딨고,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습니까? 아니, 세상이 정맥 동맥이 막 똑딱 똑딱 똑딱 똑딱 그냥 막 뛰고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다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살아나온 관습들이 잠재해 있죠? 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또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일어나죠? 이러니까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것이 망상이다 업보다 이러질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100%다 이런다면, 자꾸 생각이 나와야, 요것도 나오고 조것도 나오고, 요것도 보고 조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올 수 있어야 목석이 아니지,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요런 생각 조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하하하. 아, 그것더러 망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네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자생중생의 업식들이, 업식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생중생들이 자기가 자꾸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니 무슨 망상이니 이러니까, 퇴박을 하니까 '에이, 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봐라.' 이러곤 그냥 망상으로 밀어가는 거죠. 아, 생각해보세요. 회사엘 다니면서 극진히 정성스럽게 하는데 '너는 요놈아 도둑놈, 너는 요놈아, 만날 그래도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만날 지청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도둑놈 됩니다. 네?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말씀해드렸는데, 불교라는 이 단어는 포괄적인 불교기 때문에 일체 생명 어느 거 하나 불(佛) 아닌 게 없으며 말로 전달, 뜻으로 전달, 통신으로 통신, 마음과 마음이 전달, 이렇게 해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이 자체 단어가 너무나 실감이 나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이고 또는 진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이름이죠, 이름만으로도. 예전에 이조 때에 탄압을 받아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놓고 하면은 그 앞에만 갖다놓으니까,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으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써먹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개선을 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거는 고쳐가면서 써야죠.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고요. 옛날에 부처님한테 어느 제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맑고 깨끗한 하늘 눈으로 보니까 여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율이 너무 많으니 그건 무슨 까닭이며 또는 여인들에게는 계율을 많이 매기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이며 또 여인들은 성불하기가 극히 어렵다 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지 그 세 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을 거슬러가진 못하는데 거슬러가는 향도 있습니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께서나 또 깨달은 분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 그것이 지금 현 시점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니라. 지금은 남정네들이 열 처를 둔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들이 함부로 바깥에 출입을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탐욕과 집착과 미움과 증오 또는 애욕, 정욕, 질투 이런 것이 여인네들 마음속에 꽉 차있으니 어찌 성불하기가 쉽겠느냐? 그러니 잘 생각해서 계율을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또 지옥에 많이 떨어지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니라. 그런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섯 가지 마음의 계향(戒香)을 마친다면 자재천(自在天)에 들어 아주 자재로이 이 계율도 더했다 덜했다 이런 것도 없을 것이지마는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을 것이니라. 성불을 한다 못한다도 없을 것이니라. 여자 남자도 없을 것이니라. 이 모두가 길고 짧음도 없을 것이고 어제 오늘 내일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그 까닭은 그 수행을 다 마쳐야, 끝마쳐야 되느니라."

다섯 가지, 엊그저께 내가 오계향(五戒香)을 얘기했죠? 이 세상에 내가 났으면 바로 내 탓으로 일체 만법을 돌려라. 그런다면은 증오도 미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세상법에 누(累)가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도 없이 계율을 지키게 돼 있고, 바로 자기도 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둘째, 이 모든 것을 내가 난 탓으로 돌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기고 들고 나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잘되게 나오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놓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는 그 마음이, 패기있게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마음이 듦으로써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로 보지 않는 관찰 그리고 체험, 그렇게 해가는 것이 셋째.

또 넷째, 그렇게 둘이 아니게 관찰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 자생중생의 무명, 수억겁을 거쳐나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무명이 묶여있던 것이 스스로 풀어진다 이거야. 스스로 풀어지고 스스로 묶였던 게 풀어지니까 여여하게 다스리고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무명이 나에게 닿기만 하면 그 무명이 무너진다 이거야.

다섯째, 이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이 모든 삼라만상 만물만생, 그 만물만생을 느끼는 거. 느끼는 거는 마음으로 항상 느끼죠? 느끼고 보살핌이 항상 밝아. 여여하고 항상 밝고 걸림이 없어. 그래서 구족(具足)함을 해탈지견향! 거기까지 마쳐야만이 여자 남자도 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즉 말하자면은 성불을 한다 못한다도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고, 계율을 더 준다 덜 준다도 없고, 모두 이런 것이 소멸되고 자재천(自在天)에 들어서 자유롭게 나툴 수가 있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을 거슬러가지 못하는데, 거슬러가는 향이 있습니까? 하고 아까 물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다섯 가지 향, 그 다섯 가지 계향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요. 둘째는 전체 놓는 거야, 우리들 지금 놓듯이. 다 어떤 거든지 다 놔서 다 버리는 거다 이거야. 다 놓는 거야. 다 놔서 다 얻는 것을 둘째라고 한다. 다 놔서 다 얻는 것! 다 놓게 되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 놔서 다 얻은 거를 둘째.

셋째는 다 놔서 다 얻었다면은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너 나 할 것 없이 보시를 달라고, 천차만별로 달라고 하더라도 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완결돼야 바로, 그 바람을 거슬러가는 향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기만 할 수밖에 없다. 바람을 거슬러가는 향도 있는 것은 그 다섯 가지의 계율(戒律)을 다, 마음의 계향을 다 마치고 또는 세 가지 조건까지도 마치고 난 뒤에야 거슬러가는 향이 있느니라. 그러니 그때 가서는 거슬러간다 거슬러가지 않는다도 없느니라. 사방팔방에 모든 향음이 어느 법계에나 어느 일체 중생에도 닿지 않는 데가 없기에 그 종소리가, 종을 치면은 종소리가 났는데 그 종소리를 일체 만물이, 만물만생이 다 듣듯이….

그래서 그 모두가 우리가 마음의 문제요, 마음을 계발하고 또는 발전시키는 데 문제요, 발전시키려면 잘 이롭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사방이 툭 터졌을 것이요, 지붕도 없을 것이요, 땅도 따로 없을 것이요, 그러니 평등공법(平等空法)이면서 활궁공법(活宮空法)이면서 또는 수레공법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평등한 공법(空法)이요, 우리 맷돌 얘기 가끔 하죠? 맷돌이 추가 움죽거리진 않아요. 뭐든지 갈아낼 때에 바로 이 추가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능력만 배출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써 다스려서 거기 놓는다는 게 맷돌에 어느 물건이든지 다 거기다 맷돌에다 넣어서 갈아내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 추는 주인공이다 하면은 그 주인공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추는 움죽거리지 않는 불성을 말하고, 그 움죽거리고 돌아가서 갈아내는 거는 법을 말하고 또 이 갈아내게끔 할 수 있는 마음 자체의 다스림은 바로 갈아내는 거다 이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했다면, 진짜 여러분의 실상이면서 실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몰라서, 업보가 많고 그렇다.' 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고, 자꾸 의식적으로 돌아가니깐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까지 살아나온 관습들이 잠재해 있죠?
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또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일어나는 자체를 망상이다 업보다 이러지 마세요.
그건 바로 자기네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요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나와야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요런 조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위 법문은 1993년 5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부처님 오신날 추천 선물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대유불교 시리즈
①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④ 꿈과 마음의 비밀 ⑤ 마음의 달 1,2 ⑥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⑦ 42수진언 족자 ⑧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신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법 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그린, 레드』 사찰용(65x150cm) 100,000원
가정용(45x120cm) 70,000원
-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 한쪽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블라인드 (150x230cm) 제작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주시고
손 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42수진언 족자 (그린)

구입문의 : 대유학당 (02) 2249-5630

입금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윤상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daeyou.net NAVER 대유학당 검색 네이버에 "대유학당"을 검색해 보세요.

봉축 칼럼

부처님을 마음에 단단히 품자



주경 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고등학생 시절 집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도선사 불교학생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성으로 다녔다. 당신도 불자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부지런히 절에 다니는 아들이 혹시라도 출가의 뜻을 품을까 염려한 어머니께서는 그리 흔쾌해 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궁금하셨던지 한 해 부처님오신날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다니는 절에 등을 달기 위해 오셨다.

당시 축원문을 등록한 신도만 10만 명이 넘는 큰 절인 도선사는 부처님오신날이면 산 아래 큰 길에서부터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고, 넘쳐나는 연등으로 장관을 연출했다. 보통 때 절까지 버스로 10분정도면 오는 거리를 2~3시간이나 걸려서 오신 어머니께서는 이미 사람들에 밀리고 치여서 무척 지쳐 있었다.

당시 100여명이나 되는 학생법회의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다. 당신 아들만 절에 다니는 줄 알았다가 남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셨던 모양이다. 그리곤 혹시나 하고 걱정하던 출가의 염려도 많이 접으셨다.

먼저 학생법회에 나가던 작은 형에게 이끌려 처음으로 절에 가게 되었다. 법당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법우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자연의 싱그러움과 산사의 그윽한 분위기 그리고 생기 넘치고 활발한 학생들의 법회활동은 무척이나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 피아노도 없이 입으로 함께 따라 배우던 찬불가도 신이 났었다. 항상 단정하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빛나는 얼굴로 법문을 하시던 법사스님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대입준비로 절에 자주 가지 못했던 나에게 법사스님이 책을 한권 빌려주셨다. 일본학자 마쓰야 후미오가 짓고 이원섭님이 옮긴 현암사에서 발간한 '아함경이야기'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완전히 빠져들었다.

탁자에 앉아계신 금빛 장엄한 부처님이 아닌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을 책 속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쉬려고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대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구나, 정말 사람이셨구나!" 크게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처님이 마음의 스승이자 고향으로 자리를 한 것이었다. 이후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제자들과 역대 큰스님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깊은 진리가 담긴 스님들의 법문도 더 잘 이해가 되고 스님들의 평상의 삶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출가해 학생법회에서 법문을 할 때도 가장 많이 했던 법문들이 학생시절 들었던 법문들이다. 내가 청소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끝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찰법회에서 받았던 그 감동과 행복을 청소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산해 삭발을 하고나니 은사 스님께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다. 그중 한 가지가 "스님들 보고 중노릇 할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중노릇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생활하면서 곧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넘치거나 부족한 면이 있는데,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음에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면 갖은 회의와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래 종단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이 불교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는 훌륭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더욱 단단하게 부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부처님 법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부처님께 올리는 참회 편지

당신앞에 등 하나씩 걸었습니다



남지심
소설가

지금은 5월 15일 새벽, 아직 여명이 가시지 않은 하늘을 보며 '부처님!' 하고 조용히 불러 봅니다. 당신이 잠시 모습을 나투었던 지구의 동쪽 나라 대한민국은 당신이 오신 것을 봉축 드리며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좀 더 자비로워 지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로워 지기를, 가족이 건강하기를, 작은 꿈들이 성취되기를 염원하며 등 하나씩을 당신 앞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는 기쁨에 가슴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황사 먼지가 곱게 핀 꽃잎을 덮어 버리듯 각종 매스컴에서 터져 나온 흙먼지가 우리가 켠 아름다운 등의 불빛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당신도 저희들처럼 망연자실해 계십니까? 아니면 중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각종 매스컴에서 스님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온 다름 날, 가사장삼을 수한 많은 스님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당신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담은 신문을 보았습니다. 스님들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지 못하면 업이 청정해지지 못하고, 업이 청정해지지 못하면 삶이 청정해지 못하며, 삶이 청정해지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를 잠시 망각하고 산 죄를 참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스님들을 바라보는 저희 재가자들도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불교가 어쩌다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는 우리 재가자들에게도 똑 같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들 역시 청정한 계율 속에 삶을 가꾸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스님들을 외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승가와 재가, 양쪽 다 청정한 계율을 삶의 지표로 삼을 때 비로소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불교는 권력 승들이 왕권과 결탁해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 수많은 스님들이 결사체를 만들고 신도들이 그 스님들을 외호하면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 왔었지요. 그런 결사체들이 없었다면 불교는 부패의 늪에서 회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진리인데 진리가 어떻게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우여곡절 속에서 그 빛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불교가 교단 내외로부터 빈축과 야유를 받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진정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올곧게 지켜내고 당신의 가르침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위에 든 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또 진실하게 임하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흙먼지가 몰아쳐도 조계사 부근에 가면 수많은 스님들이 종종 걸음을 치며 불구사를 드나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심을 봉축하기 위해서지요. 저는 그런 스님들을 바라볼 때면 늘 가슴 한끝이 뭉클해집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도량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 그런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선조 500년 동안 그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수많은 사찰을 지켜와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빈축을 사고 계신 스님들도 저는 그런 스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전후의 어린 나이에 당신 품속을 찾아 와 그 옷 벗지 않고 30~40년을 살아오신 스님들, 부처님 부디 그 스님들을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던 악독한 제바달다도 전생에 당신을 깨우쳐 준 선지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바달다가 한량없는 겁을 지낸 뒤 천왕여래란 이름으로 성불하여 20 겁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항하사만큼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라한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후에 떠오르는 태양은 찬란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공기도 청명합니다. 세상에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당신의 가르침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저희들 다시 한 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당신을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전부이신 저희 부처님이시여!

社說

꺼지면 안될 참회와 지계의 연등

어김없이 부처님오신 뜻을 기리는 연등 불빛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수놓았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밝힌 연등들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뜻을 찬탄하는 흥겨움보다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참회하는 물결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터진 승려 도박 사태는 2주가 지났지만 조계종은 사후 해결에 부심 중이다. 일괄 사퇴한 부실장 스님들에 대한 교체와 중앙 기관들의 잇따른 참회가 연등회 연등축제를 1주일 앞두고 이뤄졌다.

내부적으로 무너진 승가 위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현안 해결과 지계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원로 스님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중앙종무기관까지 나선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도 계율 전공 교수아사리 긴급 좌담회를 통해 현대사회 청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종단 교육기관에서는 학인 스님들에게 계율과 불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두 수행자의 기본인 지계가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고민들이다.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은 위기다. 안으로 곪고 곪았던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모두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을 방만하게 여긴 결과다. 〈사분율〉에서 부처님은 계율을 정한 이유로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고, 현재의 실수를 없애고, 미래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한다. 그런 이유가 모두 10가지에 이른다.

분명 한국불교는 실수를 했고 현재 자숙과 참회 중이다. 이제는 미래의 실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중 첫 번째가 '지계'다. 지계는 불교의 목적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참회와 지계의 계기로 삼자.

한국불교 이제 글로벌이다

5월 19일 연등축제가 성대히 봉행됐다. 조계사와 종로일대는 오방색의 물결 그 자체였다. 이날 만큼은 피부 색깔과 국적은 문제가 안됐다. 미국인, 중국인, 독일인, 일본인 모두가 하나였다. ''We are the world'였다. 특히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던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이후 첫 행사라 관심이 컸다.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들의 축제 참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스페인, 일본 등 세계 30여 지사에서 단체 접수를 받은 것도 한 몫 한 것 같다. '종교 제의적' 성격과 '민중 축제적' 성격이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인 연등회가 이제 명실공히 세계적 축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연등회는 박제된 문화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이자 살아 있는 한국불교문화다. 전통성과 현대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연등회의 세계화는 물론 미래 비전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또한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사업에 대해 문화재청과 정부 관련부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혀 기대가 크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간한 '연등회 외국인 모니터링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연등축제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큰 매력 요소로 꼽았다. 이렇듯 우리의 연등축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연등회 뿐 아니다. 간화선도 영산재도 사찰음식도 자비나눔도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일화'를 위해 가일층 정진하자.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I 전화 (02)734-9654~6 I 전송 (02)734-3410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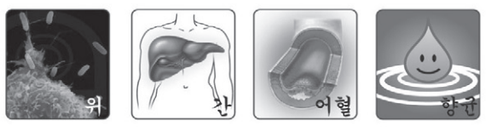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瘰呟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倥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기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에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 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 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실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신것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감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ㅇㅇ님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포 장 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지용우
위 사람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해당하여 산업포장을 수여합니다.
2011 년 10 월 13 일
대통령 이 명 박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 800원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림 · 박구원

해외사찰 네트워크 구축
신행 프로그램 공조 필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제언



진월 스님



광전 스님



혜민 스님

"총무원장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이 프랑스 기메 박물관 뮤지엄숍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찾았다. 혜민 스님에 손에는 동아시아 불교를 소개하는 도록이 들려있었다. 도록의 내용은 중국, 일본 불교 일색. 뮤지엄숍 내부의 불교 관련 서적들 대부분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불교였고,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책은 단 한권도 없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선(禪)은 일본, 중국의 것이지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자승 스님의 표정은 굳어졌다.

지난해 조계종의 프랑스 순방 당시 있었던 이 일화는 세계 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목하 세계불교 내에서 한국불교의 위치가 미약하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혜민 스님은 "한국불교의 포지션은 그리 크지 않다. 서양 사람들은 불교라 하면 일본불교의 '젠(Zen)'이나 티베트 불교를 생각한다"며 "서구 수행자 안에서도 남방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최근 심리학자들도 심법보다는 위빠사나의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기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등 서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일본, 티베트 불교와 달리 한국불교의 토대는 빈약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구산 스님, 숭산 스님 등 해외포교의 선구자들은 있었지만, 스님들의 원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못했다. 대부분 해외 포교를 나선 스님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고, 종단적인 투자도 미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국제특보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서구사회에 한국불교를 알릴 기회가 애초 없었다. 현지 포교는 차제하더라도 책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포교 경험자인 조계종 사서국장 광전 스님은 "외국어 교육이 미흡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인지 못한 스님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교포사회를 위주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종단 차원의 해외포교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 소규모 영세 사찰이 난립해 효율적 포교가 어렵다. 이런 양적 질적 포교 역량 부족으로 해당 나라의 주류사회는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세계화 사업에 대한 종단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의 설립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지역 16개주와 캐나다 동부지역 6개주 등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으며 현재 28개 한국사찰을 소속 사찰로 활동 중에 있다.

초대 교구장으로 등용된 석원스님은 "해외한국사찰 대부분이 종단의 지원이 아닌 스님 개인의 원력으로 창건해 운영하고 있다 보니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종단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종단은 해외교구에 △종단 차원의 행정 서비스 제공 △부처님오신날 행사비 지원 △교구 종무원 급여 지원 △현지인 포교 법사 파견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해외교구 설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혜민 스님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우물 안 개구리였던 한국불교가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시선을 신경쓰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며 "해외 사찰들이 네트워크화 돼, 양질의 프로그램들로 신행 활동이 가능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현대 언어로 불교 전해야
> 해외교구 기대만큼 지원도
> 국제 종무팀 격상 필요
> 외국인스님 활용 높여야
> SNS 콘텐츠 개발 시급

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종교법인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 종단의 재산권과 인사권이 각 사찰에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조계종의 현행 해외교구는 관리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 광전 스님은 "현행 해외교구 시스템은 종단의 해외포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해외포교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진월 스님은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화'라는 일반적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도 주문했다. 스님은 "'세계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지에 대한 종단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세울 수 없다"며 "개념이 정립된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세계화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대적 언어로 한국불교를 전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한국불교 특유의 관념적이고 딱딱한 설법 방식을 현지인들이 알기 쉽고 이성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스피치 방법론이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나라 언어별로 표기할 불교용어의 표준화도 주요 과제다.

혜민 스님은 "선불교에 관한 법문이 서양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한국불교는 딱딱한 위계질서의 불교로 인식되고 있다"며 "과거 전통의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에게 친숙하고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언어와 태도로 한국불교를 전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담 종무행정기구의 지위 확대 역시 필요하다. 현재 조계종 국제종무행정 기구는 총무원 사회부에 배속된 국제팀이 유일한 상황. 3명의 국제팀 인력으로는 체계적인 세계화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월 스님은 "사업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기본이다. 사회부 안에서도 국내 현안이 많아 국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원한다면 현재 국제팀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스님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외국인 스님은 97명. 단일 국가로는 미국인 스님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동유럽 국가 출신 스님들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대부분 자국 선센터에서 선 수행을 하다 한국으로 출가한 경우가 많아 간화선 수행에는 매진하지만 포교에 관심을 가지거나 종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광전 스님은 "외국인 스님들은 꽤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불교 포교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익히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총림 기본교육기관 중 한 곳을 외국인 스님 교육도량으로 정해 한국불교를 익히게 해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고국으로 돌아가 포교를 하겠다는 스님들을 위해서는 종단에서 연차적으로 도량 마련에 도움을 줘 해외 포교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혜민 스님은 "이들은 잘 교육시키는 것이야 말로 한국불교 세계화의 지름길"이라며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후에는 외국인 스님들을 네트워크화해 한국불교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현지 포교와 더불어 도서, 영상 등 간접적으로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월 스님은 "세계인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며 "종단 차원의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물 밖 세계로 나온 한국불교. 이제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www.hanmaum.org

〈국내 · 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9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FAX:(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부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마음의 꽃으로, 마음의 향으로
온 우주를 덮는 불성의 꽃 한송이가 되어
내 안에 피어납니다

원장 대 행 /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해외서 쉬운 프로그램 요청…국내 대중화 '화두'

"오늘날 세계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점 혼탁해 가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고통 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실천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 정신사의 향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조계종 제13대 종정인 진제 스님의 종정 수락 소감문 중 일부다. 간화선 거두인 진제 스님의 종정 추대는 조계종이 진행 중인 간화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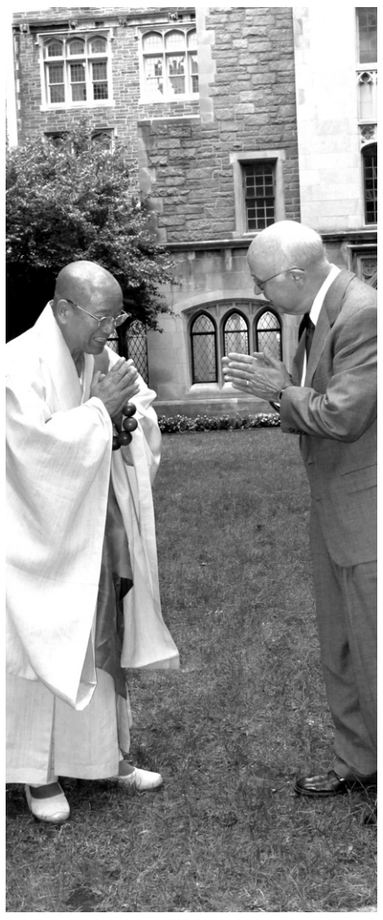
진제 스님은 2002년 부산 해운정사에서 중국·일본의 선의 대종장들을 초청해 '국제무차선대법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화선 세계평화대법회를 열기도 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간화선을 논하는 것은 보기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 선불교의 대표수행법인 간화선의 세계화가 전세계적인 수행에 대한 관심 고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간화선 세계화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짚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간화선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실참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011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제3회 외국인수행자포럼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지난해 9월 세계적 신학자 폴 니터 교수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스님은 뉴욕에서 첫 간화선 법회를 열어 주목받았다.

"간화선은 서구에서 불교가 그저 동양 종교란 인식을 싹 바꾼 최신 트렌드"

美·유럽 학술연구 활발

수행은 손꼽을 정도

숭산 스님 세계적 선사

서구사회서 활동할

지도자 배출이 과제

"정작 한국에서 간화선 위상이 낮은데…"

실천 프로그램 조언지도 필요

미국 종교간대화 지도자인 랍비 잭 벰포라드는 "일본과 동남아, 티벳의 불교가 60년대 미국에 들어왔지만 현재 동양의 종교라는 정도의 의미만 남았다. 진짜 불교를 배우고 싶지만 진정한 불교는 없다"며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를 당부했다.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 것은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종교회의에서부터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일본 선불교는 동양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으로 각광받게 된다.

이후 불교가 서양에 전파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서양인들이 동양에서 불교를 배워 전하는 것이다.

마르틴 베첼러 명상지도자는 2009년 불학연구소가 진행한 간화선 세계화의 전망 세미나에서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스님이 유명해진데는 모두 서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간화선 세계화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간화선 종장들이 한국 내에서의 책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 많은 제자를 두고 지원을 설립해 자신의 열반 후에도 선불교를 펼치게 한 숭산 스님 이후 해외에서 주석하며 간화선을 전하고 있는 수행지도자들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종학연구소 매년 국제세미나 열어

현재 간화선 세계화는 크게 학자들을 축으로 한 연구 소개와, 해외사찰에서의 일반인들의 수행으로 나뉜다.

학계에서는 간화선이 전면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2010년 3월 24일 국회도서관 소장을 기준으로, 1990년 이후의 연구만 해도 단행본 10권 이상, 연구논문 160여 편이 발표됐다. 간화선과 직·간접으로 관련한 석사논문은 30여 편으로 박사논문 14편, 관련 소재로 다룬 박사논문 10편 등이다. 국제학술대회도 수차례 열렸다. 하지만 학자들의 간화선에 대한 관심은 연구주제에 그치고 있다.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현재 간화선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는 간화선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있을 뿐 실제로 수행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구사회에서 수행법으로 진행되는 간화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조계종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2011년 열린 제2회 간화선 국제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에게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지도 하에 1주일간의 실참 시간을 가졌다.

당시 간화선을 실참한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는 "간화선 실참은 처음 해본 것"이라며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학연구소는 6월 23~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회 간화선 국제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은 문경 봉암사와 마곡사, 축서사 등에서 간화선 실참을 진행한다.

미국 선방에서는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으로 간화선 실참이 도입됐다. 그 때문에 생활 속에서 쉬운 간화선 실천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다.

헝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은 "대부분 명상 수행법으로 가정집 거실에서 시작돼 가르치는 방법도 단순 명료하고 점진적이어야 한다"며 "서양에서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효과를 거둔 것은 체계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서양인들에게 맞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믿음보다 학문, 수행적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 서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진우기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 원장의 '간화선 관련문헌의 번역현황'을 보면 선불교 관련 서적은 총 20개 서적, 저술은 8개 서적이 번역됐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선원수좌회와 불학연구소에서 간화선 지침서인 〈간화선〉을 영역해 간화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서 간화선이 대표수행법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간화선을 대표 수행법으로 주창하는 조계종에서부터 간화선이 대표수행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 사찰에서는 선수행 보다는 '다라니'를 염송하는 정토 기도가 더 성행하고 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재와 49재가 성행하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불자들이나 학자들은 한국불교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을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에서 2011년 7월 간화선에 대해 연구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화선 체험자들은 체험 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격적 변화를 맛보고, 그에 따라 대인관계 및 불교신앙에 획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간화선 수행법 효과는 분명하돼 이에 대한 논란은 한국에서의 간화선 대중화가 미흡한 데서 발생한다는 풀이다.

간화선 대중화의 대표적인 곳인 안국선원은 22년간 약 250여 회의 집중수행과정을 진행해 실참한 이들만 2만여 명에 달한다. 안국선원 측은 실참자가 스스로 화두참구의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데서 대중화가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간화선 세계화는 한국에서의 대중화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옛날 인도인들에게서부터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까지 보편타당하게 적용돼왔다. 지금의 간화선이 한국인과 세계인이 따로 느끼는 가르침이라면 불교사상이 아닌 것이다. 세계인이 누구나 공감하고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간화선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전에 대중에게 구원할 수 있는 사상과 실천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간화선이라면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구촌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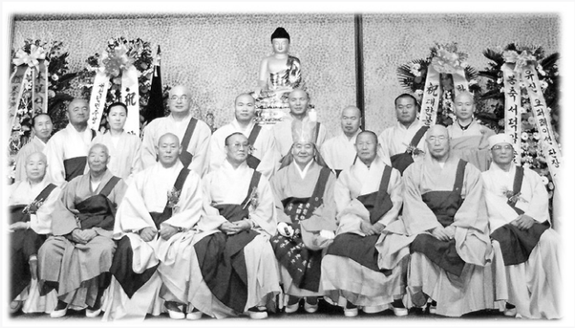
봉 法 대한불교 법성종 축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교육원장 설허 만원
규정원장 조허 혜운
문화원장 락허 혜운
총무원부원장 도원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재무부장 옥천 류옥순
포교부장 보현 조보현
총무부장 백봉 성관
교육부장 일초
종무부장 보현 유옥임
문화부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한국불교 '복밭가꾸기' 시방세계로 확산

세상을 향한 나눔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했던 부처님의 뜻과도 일치한다. 결국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글로벌 시대라 말하는 요즘 불교의 자비나눔도 제 3세계 국가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을 뻗치고 있다.

10여년 안팎의 시간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더프라미스의 미얀마 아레요아 학교 학생들이 색칠동화책을 전달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지금까지 미얀마 동티모르 등에 교육사업 식수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교계 대표적인 국제구호 단체로는 JTS(이사장 법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999년부터 국제구호 활동을 시작해온 JTS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와 북한을 비롯해 ▷필리핀 민다나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교육사업 ▷의료지원 ▷마을개발사업 ▷재난시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지원사업은 종교간 갈등으로 가장 열악한 민다나오 지역의 원주민, 무슬림, 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JTS는 이들을 위해 학교건립, 학용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원주민 마을의 자립을 위해 농업지원사업과 마을 전통문화 보존지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기숙사도 건립했다.

JTS 최기진 팀장은 "사전조사를 통해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주민회의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마을 개발사업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집과 학교 건립 등을 전개해왔다. 이밖에도 일본 동북부 지역 지진 등에 구호대를 파견 재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오지에 학교 50개 건립을 목표로 하고는 JTS는 현재까지 15개 학교의 준공을 마쳤다. 또한 기존의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마을지원 ▷학교지원 사업 등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03년 설립된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아프리카 케냐 등에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오성탄 씨는 "2004년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 사업은 현재까지 우물 1688기가 완공되었다. 앞으로도 ▷식수지원 ▷지역개발 ▷교육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미얀마에서도 '생명의 물'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 전파를 목표로 한 로터스월드는 2002년부터 캄보디아에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설립, 빈곤아동 복지와 교육사업 의료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정희 로터스월드 홍보 팀장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건립 ▷화장실 지어주기 ▷구충제 보급 및 위생교육▷도서관 지원 ▷현지 고아원 네트워크 사업 ▷직업훈련을 위한 로터스희망미용센터 운영 등을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로터스월드는 앞으로도 교육사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더프라미스는 2008년 창립해 인도 미얀마 동티모르에서 ▷교육지원 ▷의료지원 ▷학교 건립 ▷동티모르 수로 사업 ▷마을개발 사업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더프라미스 유보미 국제사업 팀장은 "내년에는 교육 지원 사업과 마을 개발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얀마 학교에 태양력 등을 지원하고 화장실 보급에도 힘쓸 예정이며 기존 수로 사업 지원도 꾸준히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연구사업을 위해 활동가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 · 의료 · 식수지원 등 사업다양
지역 주민 요구 수용 함께 작업해야
'자립의지 심어주는 것' 바람직

국제구호 광범위한 전문영역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

재가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자비를 나르는수레꾼' (대표 남지심, 이하 수레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9년 캄보디아 오지마을 뗌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며 지원사업을 시작한 수레꾼은 3년간 학교 운영지원과 14개의 우물을 파서 기증했다. 수레꾼은 현재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건립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국장 오시환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소식이 안타까워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국제구호 단체는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 등 이웃종교에 비해 후발주자로 시작한 교계 국제구호단체는 빈약한 인력과 재정 문제, 홍보부족 등으로 고심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남정덕 사무국장은 "불교계 국제개발구호사업은 개신교 등 이웃종교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그러다보니 불자들마저도 불교계 구호단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문 활동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다. 불교계 전반에 홍보활동과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 인력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온정만 가지고 무작정 국제구호 사업을 전개하는 관행도 자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문제는 현지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무작정 사업을 펼쳤다가 어려움에 닥치면 사업을 놓아 버리는 경우다. 국제구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는 "우연히 스님이나 신도들이 성지순례나 관광차 제 3세계 국가를 방문했다가 딱한 사정을 보고 학교나 고아원 등을 지어주는 경우를 종종 봤다. 하지만 이것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 현지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 관계자와 오해가 생겨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설 건립이 된다고 해도 지속적 관리가 어려워 결국에는 사업에 손을 떼고 건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제구호 활동의 실패 사례를 전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이웃 종교 단체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은 충분히 안다. 하지만 국제구호는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런 온정의 마음이 있다면 전문 기관에 맡겨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로터스월드 민정희 팀장은 "국제구호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전문적인 일이다. 각 국의 문화와 경제 사정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헌옷을 모아 제 3세계 국가에 대량으로 옷을 보내 준다면 누구는 옷을 공짜로 입지만 현지의 공장은 망하게 되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결국 이 사업은 온정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며 활동가들 모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 경제적 특성 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업 시작부터 진행까지 모두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세심한 전략도 필요하다. JTS 박진아 대표는 "시설을 건립할 때 무작정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지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JTS는 시설을 건립할 때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들이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면 우리 측에서 건물의 자재를 제공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시설은 국가나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업에 착수한다"며 그간의 노하우를 전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묘장 스님(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역시 국제구호사업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립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묘장 스님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미래지속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국제구호 사업의 목표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동가와 봉사자들이 꾸준한 교육을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제구호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 단체

단체명	구호사업내용	전화번호
JTS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교육 · 의료 · 마을개발사업	(02)587-8756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아프리카 케냐 등에서 식수·교육 지원·지역개발사업	(02)3409-0303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등에서 교육지원 · 빈곤아동복지 · 의료지원	(02)725-4277
더프라미스	미얀마 동티모르 등에서 교육및의료지원 · 수로사업 · 마을개발사업	(02)735-3119
자비를나르는 수레꾼	캄보디아 교육사업 및 우물 사업	(010)2470-2327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몽골 라오스 교육지원 의료지원	(02)723-5101
나누우리	라오스 교육지원 사업	(02)734-7756
진각종	스리랑카JGO 네곰보센터 학교사업 지원	(02)942-0144
108산사회	룸비니 학교 지원 사업	(02)900-0193
천호불교 문화재단	캄보디아 교육지원	(010)2623-2530



지구촌공생회의 케냐 엔요뇨르 영화초등학교 준공기념식에서 이사장 월주 스님이 식수하는 장면.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세로 35cm
가격 5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세로 20cm
가격 35만원



침향 大



침향 小

▣ 침향(沈香) (원산지 : 라오스)
세계 3대향의 향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침향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정신을 맑게해 집중력을 좋게 해 줍니다.
• 침향 小 50,000원
• 침향 大 100,000원

불기 2556(2012)년 봉축 특별 할인 판매

> 연꽃 차걸이 특별판매 <

봉축을 맞아 불자님들 선물용으로 더욱 좋습니다





■ 연꽃 차걸이1 / 가격 3,000원
100개 이상 구매시
특별 할인합니다.



■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운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실로 매듭한 팔찌를 합장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 연꽃 차걸이2 (4색)
가격 2,500원

고 전 상 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주문 문의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4 전면광고

정념수행을 즐거워하고 늘 나태와 방종을 경계하는 수행자를 보아라 크고 작은 장애를 뚫고 거침없이 나아간다 온갖 것을 사르며 번지는 불길같지 않으냐

만불산 만불사

회주 학성

■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산 46
TEL 54)331-0101
www.manbulsa.org

대한불교조계종

반 룡 사

주지 혜해

경산시 용성면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 문무왕(66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설총 선생이 유학했던 곳으로
고려 문종때 화엄 천태종 고승 원흥국사가
이곳에서 대중창을 하였다!

*원효불교대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경북 경산시 용성면 용전동 118-2
TEL 053)852-1919
FAX 053)852-1950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효웅
총무원경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동화사 직할포교당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사

주지 지우

신도일동

〈 보현사 교육강좌 〉

-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불교학림
- 대구불교대학
- 수행지도 (선방, 명상실)
  · 보현예술원 (서예 · 문인화 · 불화)
  · 다도반
  · 한지 (韓紙) 그림 공예반 (수시 모집 함)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사리사

주지 덕운

신도일동

〈 부 설 〉

사리마을웰빙센터
산야초효소

■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116-1
TEL 053)986-4240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회주 경희

주지 명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안흥사

주지 대웅

'자비도량 참법과
참선용맹 정진 수행도량'

■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TEL 053)815-4030
FAX 053)814-5142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회주 성문

주지 활중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TEL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파 계 사

주지 남명허운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TEL 053)984-4550

대한불교조계종

영천포교당 청 량 사

주지 능림

· 선화여자고등학교 교법당
· 은해사 불교대학개설 운영

■ 경북 영천시 교촌동 237
TEL 054)334-3526

대한불교조계종

충 효 사

회주 원감 해공

신도일동

■ 충효사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TEL 054)338-8196 FAX 054)338-6006
■ 자비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706
TEL 054)338-1152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전화 055)973-9554
banyob@naver.com

경북 성주군 사암 연합회

회	장	천불사 법원
총	무	지안사 지안
기획실	장	수국사 지원
포교부	장	길조암 보현
조직부	장	자은사 지형
감	사	성화사 지현
		약사암 홍제
회	원	보광사 지영
		대승정사 묘덕
		북지장사 묘련
		관음사 지마
		문수사 담현
		청매암 정도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TEL 054)932-8443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도 광

총무국장 일 우
교무국장 보 현
사회국장 일 상
재무국장 덕 원
감찰국장 도 선

外 임직원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TEL 053)766-7231
FAX 053)766-7232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견불사 경묵

총무국장 우포정사 영범
재무국장 용 천 사 광범
규정국장 정토선원 진일
교임국장 일 성 사 덕현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629-21
TEL 053)622-3702

현지인 포교 못하면 세계화 머나먼 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대변되는 21세기의 화두 앞에 이미 세계는 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돼버렸다.

불교밖으로 눈을 돌리면 그 현실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개신교의 경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선교사 파송 보고에 따르면 169개국 2만 3331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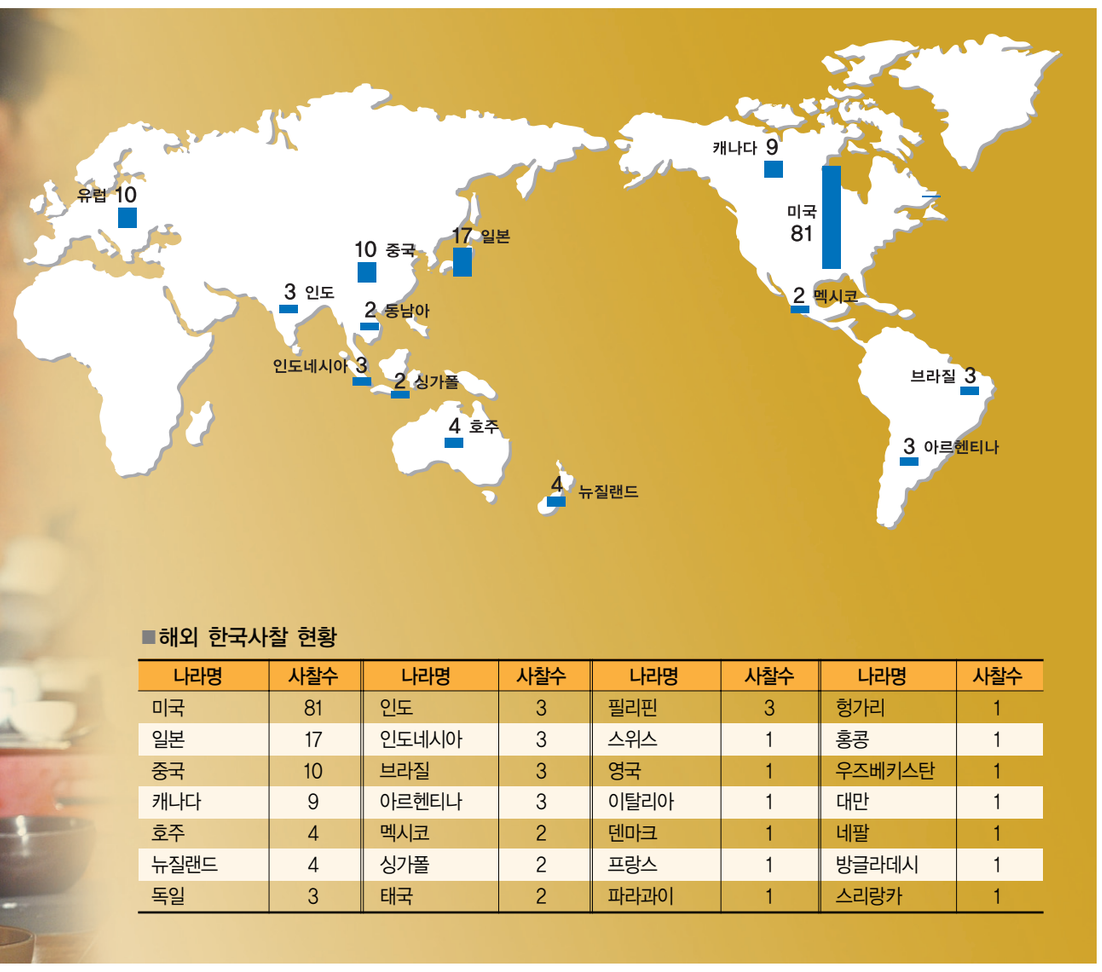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세계화시대 세계속의 주력 종교로 남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다행인 점은 서구에서 불교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구 불교는 티베트 불교나 일본불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禪)불교의 정수를 자랑하는 한국불교는 아직 자리가 넓지 않다. 반대로 생각하면 발전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사찰 현황을 살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외 한국사찰 현황

나라명	사찰수	나라명	사찰수	나라명	사찰수	나라명	사찰수
미국	81	인도	3	필리핀	3	헝가리	1
일본	17	인도네시아	3	스위스	1	홍콩	1
중국	10	브라질	3	영국	1	우즈베키스탄	1
캐나다	9	아르헨티나	3	이탈리아	1	대만	1
호주	4	멕시코	2	덴마크	1	네팔	1
뉴질랜드	4	싱가폴	2	프랑스	1	방글라데시	1
독일	3	태국	2	파라과이	1	스리랑카	1

전세계 160여개 사찰…교민 · 현지인 포교 두 토끼 모두 잡아야

호주 한인교회 300곳 사찰 4곳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 최근 내놓은 해외사찰편람 등 각 종단 해외사찰 현황에 따르면 해외 한국사찰은 160여 곳에 달한다. 주로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영미권을 시작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멕시코, 스리랑카 등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다. 조계종 사찰은 137곳, 태고종 사찰 12곳, 천태종 사찰 2곳, 진각종 심인당 2곳이며 이중 조계종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은 10곳으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찰의 현지활동은 크게 교민포교와 현지인포교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문화에 대해 관심이 일고 있는 유럽과 미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민포교에 치중하고 있다.

해외사찰들은 교민포교에 있어 한인교회의 기득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교민사회에서 이미 안정화 단계인 한인교회의 물적 지원은 현지포교에서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

교회 선교가 강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교민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개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필리핀 불락사 주지 법관 스님은 "필리핀에서 불교는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교민포교 비중이 월등히 높다.

생활형, 포교전략 수립이 과제
2세대 포교는 해외불교 미래 담보

교민포교에서 한인교회가 120곳인데 비해 한국사찰은 3곳에 불과해 애로점이 많다"고 말했다.

호주 정법사 주지 기후 스님도 "호주 한인교회가 300곳인데 비해 사찰은 4곳에 불과하다"며 "생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회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재정문제부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사찰들은 한글학교, 요가강좌와 같은 생활형 프로그램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민포교에 나서고 있다.

정법사의 경우 문화강좌와 함께 한국의 학생들에게 정법사 교민 2세와 호주인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학공부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민들의 동참을 이끌고 있다.

기후 스님은 "해외 교포 자녀는 부모들이 한국 정체성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학교 등을 보낸다. 또 유학생들은 어학공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첫 해외특별교구인 미국 동부 특별교구(교구장 휘광)도 교민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7월 3일 '제1회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동부교구장 휘광 스님은 "교민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불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특정교구와 일선 사찰의 개별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상시체계로 갖추고 불자교민 관리에 종단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행 or 기도, 특성화 전략요청돼

간화선 열풍으로 대변되는 미주 · 유럽 지역의 경우 수행에 대한 관심으로 현지인 포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찰은 공통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인력 부족의 목소리가 높다.

현지인들 간화선 수행에 큰 관심
언어소통, 전문시스템 구축 과제

뉴욕 원적사 주지 성오 스님은 "미국인들의 간화선을 비롯한 수행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한국사찰은 기도처와 수행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분야별로 특성화에 나서야 한다. 수행의 경우 스님들부터 선수행에 대해 정통하고 이를 언어문제 없이 현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재는 그동안 한국 내에서의 해외포교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장 도널드 스웨러 교수는 "애석하게도 한국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면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구산, 숭산 스님 등 소위 스타 스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해외사찰은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패는 일선 스님 개개인에 달려있는 것이 현재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실이다.

이웃국가와 타종교를 돌아보면 대만과 일본의 경우 어려서부터 현장실습을 통해 해외포교인력을 준비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내 원불교의 경우도 14개국 45개 교당의 100여명 교무들을 美교육부 인가를 받은 필라델피아의 대학원대학에서 현지교육을 통해 파견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2127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1350명 등 교단별로 1~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92개국/722명), 인터콥선교회(26개국 677명) 등 파송 선교단체도 전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조계종은 2011년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를 개원하고 해외포교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또 5월 11일에는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출가 외국인 스님을 위한 첫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해외 사찰을 지원하는 조직체계부터 인력관리 · 신도확보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은 "그동안 해외포교는 몇몇 원력 있는 스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스님들의 일신 상 변화로 포교가 한 순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해외 사찰과 종단 간의 유대 강화, 해외사찰 활성화를 위한 승가인력 양성 및 파견,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해외전략과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다"고 말했다.

봉축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젊은 불교, 밝은 대학
동국대학교가
세상을 밝게 합니다
부처님의 학교 동국대학교
젊은 부처님의 미소는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세상의 중심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개교 10년! 다음 100년!
10th ANNIVERSARY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중심, 금강대학교 개교 10주년
금강대학교가 다음 100년을 열어갑니다
奉祝 불기 2556년
– 정병조 총장 외 교직원 일동 –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번지 TEL 041)731-3114 www.ggu.ac.kr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6 전면광고

화를 떠나라, 아만(我慢)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끊으라 헛된 명상(名相)과 소유에 집착 없는 이에게 고난은 결코 닥치지 않으리라.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혜 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유정

신도회장 윤수현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망 월 사

주 지 보 원

■ 경북 경주시 배동 490
TEL 054)745-7579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가 람 수 참 사

주 지 영 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번뇌망상 털어버리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한마음 쉬어가는 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밀 양 지 원 사

원로의장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지 공 대종사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회곡리 61
TEL 055)351-1137
FAX 055)351-2698
H·P 011-9332-8810

대한불교천태종

포 항 황 해 사

주 지 조진덕

신도회장 김길환

국내최초
「관음33응신불」 봉안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169-3
TEL 054)277-3611~3
FAX 054)277-3644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

신도회장 여공 한삼화

(주) 삼한C1 (대표이사 회장)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사무국연락처 : 사무국장(이달용)
011-510-9985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주) 高靈 기와

代表理事 金段東

60년 명품기와의 역사를 이어가는
국내 최대의 점토기와
생산업체입니다.

· 국내 유일의 조달청 유수제품 인정
· 국내 최초의 정부 성능 인증제품
· KS표시 허가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954-8000(代)
FAX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gr@rooftile.co.kr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 (구.신암동)
TEL 053)945-0007 / 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지 장 사

주지 문 공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944-5
TEL 053)566-5391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 원
(성주사암연합 회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룡정사

'탄생불'
주지 지 덕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265
TEL 054)336-0052. 0051
FAX 054)336-00531

대한불교원효종

고 왕 사

주지 상 묵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흑해읍 옥성2리 367-3
TEL 054)262-0991

해 운 정 사

주지 청 명

관음회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
전화 053)252-6411
053)255-0008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곳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 향 적
중교장 이종서
고교장 양근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5(지산동 800)
TEL 053)764-0807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이대웅
교 감 장정익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운불련 호출택시

회 장 김주본
부회장 마종구
사무국장 김병관
호출국장 조신제

■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여불교 대구·경북재가연대

대표 김주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536번지 동아빌딩 4층
TEL 053)427-0108 / FAX 053)254-9348

마음 일깨우는 불서 번역 효과만점

불교서적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첫걸음이다. 수행의 종교인 불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끌게 하는 계기는 책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선호하는 서구인들에게는 서적이 적합하다. 때문에 불교번역서를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외국인을 위해 번역돼 있는 한국불교서적 및 안내서를 찾아봤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외국인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계기는 불서를 통해서다. 2010 독일 국제도서전 포럼에 참가해 대행 스님의 책을 소개하는 청고 스님

논리 · 이성적인 서구인에게
번역불서를 통한 포교 적합
학술서 · 법어 · 수필 · 간행물 등
외국인 눈높이 맞추기 시도

숭산 · 법정 · 대행 · 법륜 스님 책
지구촌 곳곳에 퍼져
달라이라마 · 틱낫한 같이
쉬운언어로 책 만들어야

한국불교번역서 현황

한국 불교가 구미 포교를 시작한 1960~1970년대에 번역된 서적들은 선의 역사와 의식에 대한 주제를 담은 논문 위주였다. 1980년대 故 심재룡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보조 지눌과 한국불교에 대해 소개했으며,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브룩대)는 원효의 역할을 다룬 〈불교도의 믿음과 돈오(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ment), 1983〉 등 영문저술서를 발간했다.

비교종교학자인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와 前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는 지눌에 대한 연구를 했다. 루이스 랭카스터 명예교수 (美 UC버클리대)는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The Korean Buddhist Cannon: A Descriptive Catalogue〉을 발행하고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전기의 불교를 영문 저술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학문적 영역간행물은 유럽이나 북미에 알려진 적이 없는 한국 선에 대해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이하 간행위)가 원효, 의상, 지눌, 휴정 등 한국의 대표적인 고승 문집 등 90여 종을 선별해 한글역 13권을 2011년 발행했으며 이에 대한 영역본을 오는 6월 말~7월 초 완역해 발간할 계획이다. 간행위 권기찬 연구원은 "한국불교와 사상을 시리즈로 번역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발간이 되면 전세계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불교와 한국학을 연구하는 해외 학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부터다. 미국과 유럽에 사찰을 짓고 송광사 국제선원을 개원해 해외포교에 나섰던 구산 스님(1909~1983)이 1976년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문을 모아 〈구산(Nine Mountains)〉을 출간해 해외에 널리 소개했다.

해외포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숭산 스님(1927~2004)의 많은 법문집도 영역본으로 발간됐다.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등 10 여권이 해당된다.

조계종 종정을 지냈던 성철 스님과 관련된 영문 책자들도 있다. 〈가야산의 메아리(Echoes from Mt. Kaya)〉를 비롯해 브라이언 베리가 번역한 〈이뭣고(Opening the eye)〉며,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번역한 〈백일법문(Sermon of one hundred days)〉 등이 있다.

수필 · 산문집으로 불자와 일반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법정 스님의 책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깨달음의 거울〉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등 10여 권의 책은 영어 · 중국어 · 일본어로 번역 · 출간됐다.

쉬운 언어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도 영어로 번역돼 해외에 소개됐다.

즉문즉설 강연회 내용을 가려 뽑아 영어로 옮긴 〈참 행복(True Happiness)〉은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과 반향을 얻었다. 스님의 두 번째 영어 법문집 〈참 자유(True Freedom)〉는 '행복'에 이어 '자유'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대행 스님의 법어집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출판되고 있다.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No River To Cross)〉를 비롯해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내 마음은 금부처〉 〈생활 속의 참선수행(시리즈)〉 등 10여 권의 도서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돼 각국의 유명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전세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영문 법어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를 출간해 한국의 간화선 수행법을 지구촌에 전파하고 있다.

불서번역포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서 간행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불광출판사와 함께 〈Korean Buddhism〉을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버전으로 발간해 회통불교, 간화선 전통 등 한국불교 수행과 의식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근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 등 한국불교의 역동성을 알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하고 한국사찰 안내, 사찰예절 등 한국불교의 특징들을 실었다. 또한 30년간 읽혀진 불교계 베스트셀러인 〈선방일기(Diary of a Korean Zen Monk)〉를 영어 · 중국어로 번역해 치열하게 수행하는 선승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 밖에 종단협은 최근 〈마음으로 가는 6가지 길(6 Ways to the Heart)〉를 영문으로 펴내 한국불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는지 소개하고, 간화선 염불 주력 간경 사경 절 등 6가지 수행의 역사와 방법, 경전에서 찾은 근거 등을 60여 컷의 사진과 안내하고 있다.

간화선 주제 접근 어려워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영문 계간지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을 발행해 조계종 해외사찰과 문화원, 박물관 및 국내 외국인안내소 등에 무료배포하고 있다. 책에서는 선어록, 수행 관련 질의응답 코너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계간 '불교와 문화(Buddhism and Culture)'를 발행해 미주 · 유럽지역 및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해 한국 불교 사상과 불교문화의 아름다운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불교문화 소개서인 〈한국불교의 빛깔(The colors of Korean Buddhism)〉을 발간해 한국불교의 종교, 문화, 예술적 가치를 30가지 아이콘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 책은 '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대표자와 관계자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쉬운 내용을 골라야

유럽과 미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점점 더해지고 있다. 2008년 미국불교협회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불교 조직과 기구는 2000여 개, 오계를 받은 신도수는 약 300만 명이다. 미국인의 숫자가 3억 명임을 감안하면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불과 10~20년 내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랄 만한 수치다. 물론 이런 통계의 뒷면에는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 등 스타의 반열에 오른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두 스님의 외국어 실력도 한몫했지만 외국인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계기는 이들의 책을 통해서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미국인 불자들에게 어떤 계기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불교 관련 서적을 읽고 나서 불교를 알게 됐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세계적 성공이 부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들의 영어 저서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한다는 '간화선'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려워 이에 대한 번역서를 만들어도 외국인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광출판사 마케팅 담당자는 "간화선이라는 주제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어렵고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정 · 법륜 스님 등의 책이 국내 일반대중에게도 인기가 있듯이 대중적이면서도 수필과 같은 쉬운 문체의 책을 번역해 출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륜 스님의 〈참 행복(True Happiness)〉은 〈즉문즉설 시리즈〉 가운데 직장 · 가족문제 등 미국 상황에 맞는 주제들을 뽑아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의 정서를 겨냥해 내놓은 책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불교만이 최고다' 라는 일방적인 홍보 태도를 버리고 외국인들이 자기 식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불교영어연구원 홍연주 팀장은 "처음 외국인들이 책을 통해 불교를 접근할 때 쉬운 언어로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간화선만이 최고의 방법' 이라면서 간화선위주의 책을 소개하거나 어려운 한문투의 번역서를 소개한다면 그들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한국불교의 종지를 살리면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 번역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불서를 통한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영어번역전문가 확보가 필수이며 전담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등 환경적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홍연주 팀장은 "번역가들이 영어번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 재정지원이 마련되면 더 많은 불서와 올바른 번역서가 나올 것"이라며 "좋은 예로는 한마음국제문화원이 있다. 이곳은 대행 스님의 법문번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라 소속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영역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승대덕들의 법문과 저술을 번역한 책들은 해외포교에 큰 도움이 된다. 왼쪽부터 법정 스님의 〈깨달음의 거울〉,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진제 스님의 〈Open The Mind, See the Light〉 , 대행 스님의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순이다. 아래의 표는 아마존닷컴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번역 법문집과 학술서 목록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60여 권의 번역불서가 소개돼있다.

저 자	도 서 명	비고
경보 스님	조당집을 통한 한국선불교 연구(A study of Korean Zen Buddhism approached through the Chodangjip)	
구산 스님	구산(Nine mountains) / 한국선의 길(The Way of Korean Zen)-마르틴베첼러 역	
김재현	한국선승들의 선시(Meditative Poems by Korean Monks)	
대행 스님	자유를 향한 내면의 길(The Inner Path of Freedom) 죽어야 나를 보리라(To Discover True Self 'I' Must Die) 시리즈 1~6 건널강이 어디있으랴(No River to Cross)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A Thosand Hands of Compassion) 내 마음은 금부처(My Heart is a Golden Buddha) 깨어나 웃어라(Wake up and Laugh) / 일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Si Te Lo ProPones No Hay Imposibles) 삶은 고가 아니다(人生不是苦海)	영,서 영,서(1권) 영,독,서,러 영,독 영,독,중 영,독/서
로버트 버스웰	선승 체험(The Zen Monastic Experience) / 한국불교비구니와 여성불자(Korean Buddhist Nuns and Laywomen) 지눌연구(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동아시아한국불교조명(Korean Buddhism in East Asian Perspectives) 금강삼매경론(Cultivating Original Enlightenment)	
루이스 랭카스터	한국불교개론(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 / 초기조선불교(Buddhism in the Early Choson) / 고려불교(Buddhism in Koryo)	
마르틴 베첼러	한국 선불교의 여성들(Women in Korean Zen: Lives and Practices)	
만공 스님	만공스님 법문(The Teachings of Zen Master Man Gong)	
무성 스님	천 봉우리(Thousand Peaks: Korean Zen: Tradition and Teachers)	
박노자	한용운선집(Selected Writings of Han Yongun)	
박성배 교수	불교적 신앙과 돈오(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enment) 현대한국불교의 창시자들(Makers of Modern Korean Buddhism)	
박진영 교수	불교와 포스트모더니티(Buddhism and Postmodernity) / 메를로퐁티와 불교(Merleau-Ponty and Buddhism)	
법정 스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May All Beings Be Happy) / 깨달음의 거울(The Mirror of Zen) 물 소리 바람 소리(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산에는 꽃이 피네(山中花開) / 무소유(無所有) / 버리고 떠나기(すべてを捨てて去る) / 맑고 향기롭게(일본어)	중,일
성원 스님	불교정화운동(Purification Buddhist Movement) / 불교와 평화(Buddhism And Peace: Theory And Practice)	
성철 스님	가야산의 메아리(Echoes from Mt. Kaya) / 이뭣고(Opening the eye) 백일법문(Sermon of one hundred days)	
수불 스님	종교의 목적과 이유(The Purpose and Reason of Religion)	
숭산 스님	세계일화(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 10개의 문(Ten Gates) 부처님께 재를 털면(Dropping Ashes on the Buddha) / 오직 모를 뿐(Don't-Know Mind)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심재룡 교수	한국불교:전통과 변화(Korean Buddhism:Tradition and Transformation)	영,서
우광 스님	Open Mouth Already a Mistake / Elegant Failure: A Guide to Zen Koans?	
일타 스님	한국불자들의 생활 속 실천(Everyday Korean Buddhist Practices)	
찰스 뮬러	완벽한 깨달음의 경전(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원효의 마음철학(Wonhyo's Philosophy of Mind)	
청화 스님	가장 행복한 공부(The Most Joyful Study) / 마음의 고향(The Native Home of Our Mind)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 보현사

화엄불교대학 · 부설 룸비니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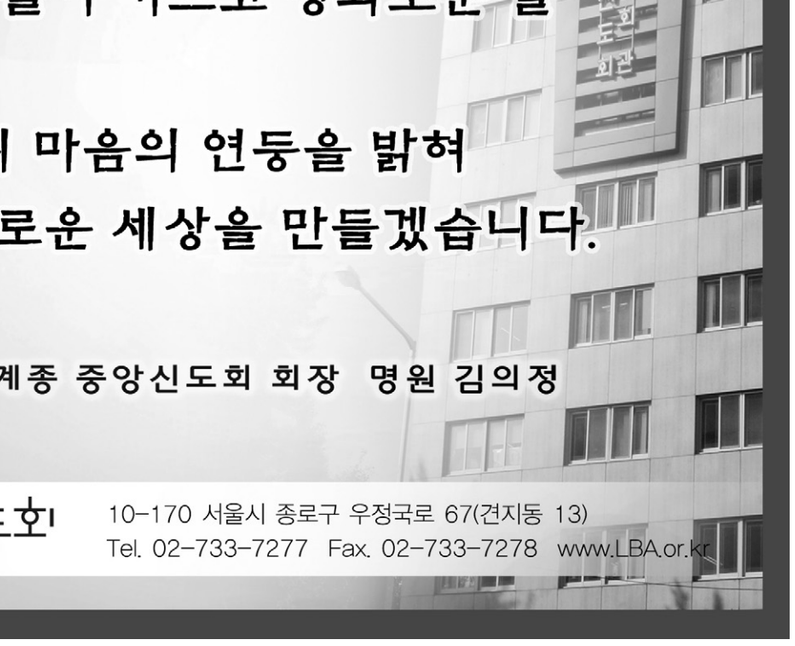
주지 : 일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 063)277-3497 Fax 063)275-0108 http://www.jbbulgyo.org/



법회안내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신도신행연합법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청년회 법회 - 매월 2 · 4주 수요일 오후 7시
- 화엄불교대학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학림원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불련 연합법회 - 매월 1 · 3주 금요일 오후 7시
- 운전자 불자 연합회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 합창단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기 2556년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세상 만물이 기쁘고 평화로운 날
우리 마음의 연등을 밝혀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명원 김의정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13)
Tel. 02-733-7277 Fax. 02-733-7278 www.LBA.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8 전면광고

그럴싸한 옷차림에 감추인 이 몸뚱이를 보아라 피고름 뭉치, 뼛조각으로 얽어놓은 질병의 자루 부질없는 쾌락을 좇는 번뇌 주머니
허약하기 짝이 없고 덧없기 그지없네

대한불교조계종
감천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개운사
주지 진원
■ 경북 김천시 황금동 196-3
TEL 054)434-3204
suok32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운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광덕사
주지 석우
회주 지공 철웅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640
TEL 041)568-6050
FAX 041)567-0050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구룡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
주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암
주지 지자
(청도 사암연합회 총무)
■ 경북 총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번지
TEL 054)372-1433

대한불교조계종
대해사
「만약 모든 상相 이 상相이 아닌 줄 알면 곧 여래를 보리라.」
- 금강경 중에서 -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TEL 053)818-4055 FAX 053)294-0408
www.dae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망월사
주지 동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문수포교당
주지 효신
대구 · 경북지역 전법단
(경찰 · 교정포교)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법성사
주지 부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실상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
TEL 053)766-3747 9088
FAX 053)767-6095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주지 법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1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신녕포교당 法蓮寺
주지 능광
(청소년문화복지센터)
■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 769
TEL 054)332-0271 335-0278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주지 보각
http://bomunsa.co.kr
(네이버 : 「앞산 보문사」 클릭!)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6동 산 221-10
(앞산 대덕식당 건너편 산쪽으로 100m)
TEL 053)652-3219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암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1-534-8950

古佛 전법도량
비슬산보성선원
주지 한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회주 현선
주지 승원
전통다실 녹지원
사찰요리 수자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44
TEL 053)743-7070

대한불교조계종
석가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성화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굴사
주지 법정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주지 혜성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아미사
주지 덕현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주지 석대혜
신도일동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
- 저자 석대혜 -
카페 : 선산 원각사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원만사
약사여래대불
주지 법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월인사
주지 포전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TEL 053)767-3971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9 전면광고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를 괴로워한다. 스스로 죄업을 벗고 스스로 청정해진다. 청정함과 죄업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기에게 달린 것
누가 누구의 죄를 사(赦)하여 준단 말인가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임휴사
주지 현 장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TEL 053)632-4844, 641-4844
FAX 053)639-5033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허 주
신도회장 권정행성
합창단장 김일심행
봉사단장 배정광해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 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사
주지 지 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10
TEL 053)755-9817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주 무 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선 원
[부설] 아헹가 요가센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대구본원 053)981-3553
대구범어동센터 053)753-3550
서울센터 02)599-8150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청수유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TEL 053)753-2561
[청수유치원] TEL 053)753-2563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 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 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환 성 사
"흥덕왕 10년(835년)에
심지 왕사가 창건"
주지 성 담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TEL 053) 852-6561

대한불교조계종
최 정 사
주지 금 봉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동리 302번지
TEL 053)767-4860

대한불교조계종
성 불 사
주지 무 여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22-25
H·P 010)2426-2296

대한불교조계종
용 암 사
주지 보 일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홍계리 177-1
TEL 054)285-0308

한국불교 구화종 총무원
총본산 구 화 사
총무원장 석 혜성
부 원 장 석 현진
총무부장 석 지법
재무국장 석 지함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TEL 054)977-9733 / FAX 054)976-6454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관음보살원만성취 기도도량
지장보살업장소멸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 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선혜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H.P 010-5506-944 8

한국승가대학
학장 석도일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5-108
TEL 053)621-3610

대구 팔공산
덕 안 사
주지 종 범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577
TEL 053)985-4144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大願佛敎曹溪宗
용암산 白眼寺
주지 雲空 性悟
신도회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275
TEL 053)985-4748

고 성 사
주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755
TEL 054)977-0962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TEL 054)636-2201

"온누리에 부처님 자비가"
성 관 음 사
「33관음 응신 나투신 도량」
주지 일 우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37-33
TEL 053)655-3380

하늘이 내려준 복을 누리는 도량!
월산 안 향 사
주지 조 향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289번지
TEL 054)232-9988 FAX 054)261-8000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운 주 사
주지 약 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74-9
TEL 053)951-0002~3(주지실)

한국불교태고종
자 은 사
주지 도 철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1리 438-2
TEL 054)933-6705


해외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진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2010년 8월 간화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참관한 해외학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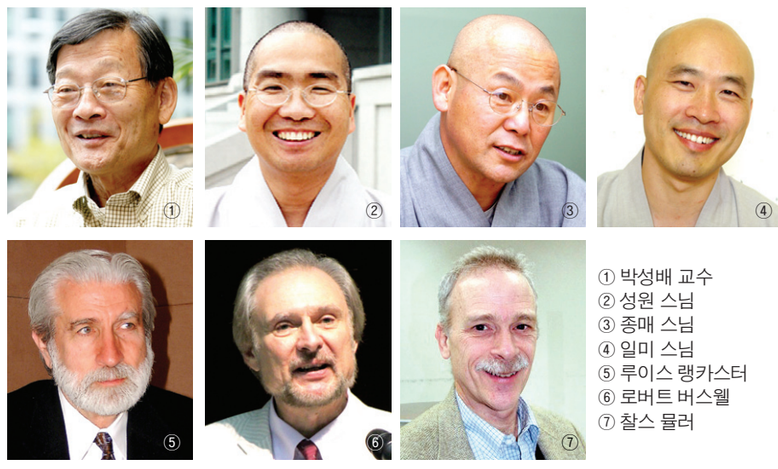
국내외 석학 배출에 지원 아끼지 말자

한국불교를 배우러 오고 가르치러 가는 학자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만큼 한국불교의 위상이 커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일본, 중국, 티베트 및 남방 불교와 비교할 때, 한국불교의 관심과 연구는 거의 도외시 돼왔다 .

중국이나 일본 불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내로라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에 많지만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세계적 외국인 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불교학계에서는 한국불교 연구학자 및 교수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구 환경을 종단차원서 조성해 한국불교학의 위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세계 속의 한국불교학자와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해외학자, 그리고 한국불교를 배우러 온 유학생들이 한국불교를 어떻게 가르치고 공부하는지 살폈다.

김주일 · 이나은 기자


① 박성배 교수
② 성원 스님
③ 종매 스님
④ 일미 스님
⑤ 루이스 랭카스터
⑥ 로버트 버스웰
⑦ 찰스 뮬러

세계 속의 한국불교학자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브룩주립대)는 미국서 활동하는 대표적 불교학자다.

1966~1968년 해인사서 성철 스님 지도로 참선수행한 그는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주경야독으로 공부한 박 교수는 1971년 텍사스남감리교대에서 석사학위를, 1977년 버클리대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교수는 미국서 교수로 활동하며 한국 불교와 원효사상 등을 서구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스토니브룩대에서 학생들에게 참선지도를 한 박 교수는 1978년 뉴욕주립대에서 원효사상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원효사상 세미나'를 개최해 큰 성공도 거두었다.

그 결실로 한국학과 설립이 추진돼 이 대학에 아시아학과가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으며, 박 교수는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 찰스 뮬러 동경대 교수 박진영 美 아메리칸대 교수 등이 그들이다. 이들 역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성원 스님(美 하와이대 교수)은 철학과 철학전공 교수로 학생들에게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대학원에서는 한국불교와 주변불교와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불교철학 세미나 강좌 등을 개최했다.

스님의 학문적 업적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불교학계에서는 유명하다. 성원 스님은 종파주의와 통합주의를 아우른 중국불교 교판사상사 연구로 위스콘신주립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적 평화학자 글렌 페이지 하와이대 교수는 그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계평화 모델"이라며 스님의 논문을 극찬했다.

종매 스님(美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종교학과 교수)은 1년에 120여 학생들에게 불교 개론을 강의하며,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한 통신대학인 'IBS 오스트리아 불교대학'에서 영어와 독일어로 8개국 학생 50여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 불교 대학에서는 한국의 총림(叢林)에서 이수하는 강원(講院) 교육과 유사(類似)하며, 불교 철학과, 수련 및 불교 포교에 관한 교육 과목을 두루 가르친다.

일미 스님(美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미국 하버드대 신학대 석사과정, 2002년 박사과정을 밟고 한국과 일본 불교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불교근대화 과정을 고찰한 논문 '한일 불교 관계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미 스님은 2008년 애리조나대학 동양종교학 교수로 임용돼 한국 · 일본 불교학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이때 일미 스님은 교수임용에 대해 "한국불교가 미국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자양성"이라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은 UC버클리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 석사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美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햄프셔대에서 정식 교수로 발령받아 교편을 잡고 있는 혜민 스님은 '선불교개론' '불교심리학' 등 을 가르치며 미국의 젊은 학생들과 불교로 소통하고 있다.

혜민 스님의 최근 관심은 한국의 간화선 전통이 19~20세기를 거쳐 경허 스님을 시작으로 어떻게 다시 크게 일어나 지금 현재 조계종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행 방법이 됐는지다.

스님은 "일본 선불교 위주로 선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서양 학자들에게 새로운 한국 전통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선 중심의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커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연구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학 연구하는 해외학자

루이스 랭카스터 美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대장경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했다. 그것은 대장경이 가진 문화유산적 가치를 비롯해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목록을 통해 대장경의 가치에 주목한 학자들의 대장경 관련 연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그는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 종교학회(AAR)에 한국종교분과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산파 역할을 했다.

한국불교를 미국을 비롯해 세계에 알려온 그의 지도를 받은 제자로는 박성배 교수, 로버트 버스웰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 등이 있다. 이 제자들은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등에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학문적 맥을 이어 가고 있다.

로버트 버스웰 美 UCLA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세계적인 대가로 손꼽힌다.

버스웰 교수는 1986년 UCLA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1993년 UCLA에 한국학센터를 설립했다. 한국학센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학 센터로 한국의 종교 · 문화 등을 가장 한국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다.

버스웰 교수는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했다. 당시 그는 '혜명'이란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를 익혔다.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버스웰 교수는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했다. 특히 버스웰 교수는 학부 때 영역해 출판한 〈지눌 법어 선집〉을 비롯해 줄곧 지눌의 선 등 한국불교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의 다양한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가 서구 학계에 소개됐다.

버스웰 교수는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박포리 교수(美 아리조나주립대), 리차드 맥브라이드 교수(美 워싱턴대) 등 다수의 제자를 배출했다.

찰스 뮬러 동경대 교수는 27세 때 美 스토닉브룩주립대에 진학해 성철 스님 제자이자 재미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를 만나 원효 사상을 배우면서 한국불교에 심취했다. 10여 년간 원효 사상에 빠져 원효의 여러 저술을 영어나 일본어로 된 논문으로 발표했고 조선 시대 불교 서적을 영역해 발간했다. 찰스 뮬러는 조계종이 불경을 영어와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던 한국전통서 간행위원회의 '원효 팀'에 속해 원효대사 저작의 영어 번역을 맡기도 했다.

한국불교 배우러 온 유학생 20여명

국비 장학프로그램을 찾아 한국에 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된 셈 베르메르슈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부소장. 영국 런던대 동양 · 아프리카대학(SOAS)에서 고려불교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저서 '부처의 권력: 고려왕조시대 불교의 정치'(2008년)를 영문으로 출판하고 조선시대 서원에 관한 이상해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책 '서원'을 영어로 번역(2005년)했다.

판카즈 모한 교수(57)는 인도인으로선 드문 한국학자다. 한국 고대사를 전공한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한국학부의 학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사상 · 문화교류사와 한국근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학부 시절 영문학과 인도사, 철학을 공부하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한국~일본으로 전래된 것에 주목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76년 고 서경수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인도 네루대에 교환교수로 부임해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만들었다.

또한 2005년부터 진각종 위덕대서 밀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나빈법사(네팔)와 실라스님(스리랑카)도 한국불교학을 공부하러 온 대표적 유학생들이다. 특히 네팔 카트만두에서 태어난 나빈씨는 13살때 출가해 수행 중인 법사이며, 불교 진각종 추천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유학중이다. 현재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서 강의하며 유학중인 객원 교수 및 학생은 대략 20여명 정도다.

외국인 한국불교전공자 양성

앞서 언급된 한국불교학자들이 각지에서 불교를 연구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중국, 일본 불교를 전공하는 해외학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때문에 많은 한국불교학자를 배출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같은 외국 석학을 양성해야 한다고 관련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일아 스님(前 LA 로메리카 불교대 교수)은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랭카스터 교수의 제자다. 두 학자는 한국불교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우수 학자와 전공자들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달라이라마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티베트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서양 학자들은 재정적 펀드를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젊은 학자들에게도 골고루 장학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불교를 전공할 경우 특별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불교학을 그 나라 언어에 맞게 소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해외학자들이 영어나 모국어로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연히 관심은 멀어지게 된다"며 "한국불교를 영어뿐 아니라 유럽 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미 스님은 "현재 미국의 불교연구 트렌드는 책을 통한 이론습득을 넘어 직접 조사 · 체험하는 것"이라며 "과거 애리조나대 교수시절 동양학과 재학생 50여 명 가운데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은 한명 뿐이었다. 한국불교 전공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053)767-2100 팩스 053)765-1600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설운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 802번지 전화 061)754-5247 홈페이지 www.seonamsa.net

지난해 6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콘서트 티켓이 발매 15분 만에 매진되면서 한류열풍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 같은 해 7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K-pop 콘서트 현장이 아니었다. 불교의식의 하나인 영산재였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열린 영산재 공연은 예루살렘 대극장, 헤자리아 대극장, 텔아비브 오페라하우스 등 모든 공연의 관람석이 매진됐다. 한류 열풍이 오직 K-pop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서울 봉은사에서 외국인들이 사찰음식 시연에 참가하며 '원더풀'을 연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스라엘을 뜨겁게 달군 영산재 공연 모습. 당시 예루살렘 대극장 등 여러 극장서 열린 공연은 매진사태를 이뤘으며, 이런 열기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재공연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한국불교 문화는 영혼의 고향 '원더풀' 갈채

K-pop만 한류인가…불교문화도 한류 열풍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한국 문화 5천년 세계 순회전에서 갈채를 받았다.

K-pop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문화 역시 새로운 한류(韓流) 바람이 거세다. 한국불교가 선(禪)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문화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스라엘 오페라극장서 열린 제24회 카미엘 국제무용제에 참가한 태고종 한국영산재보존회 팀은 2만 5000여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관객들은 기립박수에 앙코르 공연까지 요청했다. 단 90분의 공연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트린 것이다.

당시 공연을 총괄한 법현 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은 영산재 춤 중 가장 화려한 동작만을 갈라 형식으로 뽑아 빠른 템포로 구성했다. 음악과 무용이 빠르게 전환하며 화려함까지 선보여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기존 영산재를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게 약간 각색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 요인이었다. 이런 열기에 힘입어 현재 이스라엘은 '영산재' 재공연을 요청한 상황이다.

영산재 공연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중남미 국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법현 스님은 영산재 해외 포교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52개국에서 수 백회에 달하는 공연을 진행해왔다.

법현 스님은 "불교문화는 한국 전통 문화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고 싶어하는데 한국불교문화가 바로 그 트렌드에 적합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현 스님은 7월 러시아와 마카오 공연도 예정 중이다. 또 8월에는 부탄 문화예술보전협력 단체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산재가 외국인들에게 각광받고 있음에도 해외공연 진행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한 차례의 해외 공연을 위해서는 각종 경비가 많이 드는데 태고종 영산재 공연팀의 재정규모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산재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은 "정부보조는 해외 공연시 전승교수, 이수자, 보유자에 한해서 비행기표 정도만 이뤄진다. 정부보조가 극히 부분적이다 보니 의상제작비, 공연도구 등의 마련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영산재는 불교한류의 국가 대표
1980년 부터 52개국 수백회 공연
공연·교육시설 등 정부지원 절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8년 10월 8일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벨기엘 브뤼셀에서 대규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은 각종 공연과 불교예술 문화재 전시로 구성돼 장장 5개월에 걸쳐 전시됐다. 당시 대규모 전시가 장기적으로 열리는 일은 이례적이어서 개막전부터 유럽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페스티벌 중 '부처의 미소'를 주제로 열린 전시회장에는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전시돼 유럽인들에 큰 주목을 받았다. 벨기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필립 왕세자, 마틸드 왕세자비 부부는 직접 불교예술 전시회장을 찾아 한국 불교예술에 대한 독특함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지난 3월 30일 연등회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한 데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무산으로 신청한 것도 국내외에 큰 관심사가 됐다. 만일 등재가 된다면 명실공히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세계유산추진전문가협의회(회장 이배용)는 지난해 4월부터 불교, 역사, 문화재, 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을 하고 있다.

전통사찰세계유산추진전문가협의회 위원인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는 "한 국가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국민에게 자국의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고, 해당 유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불교문화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데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경남 합천군과 해인사 등지에서 열린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좋은 예이다. 당시 행사에는 외국인이 8만여 명씩이나 다녀갔다. 특히 KBS1-TV는 총 4부작 대장경 천년특집 다큐멘터리 '다르마'를 제작해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대만에 판권 계약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르마'는 5월 29일 태국 방콕서 개최될 AIBD(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밖에 사찰음식도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표적 한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해 9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불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국불교문화체험 행사장을 마련했다. 2010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 사찰 음식의 날' 행사를 개최해 사찰음식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반가사유상에 세계인 시선집중
'다르마'… AIBD 다큐부문 수상
사찰음식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

남방불교는 탁발 전통이 강해 사찰음식이 없고, 중국도 참선 수행이 없어지면서 사찰음식이 사라졌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찰음식은 한국불교의 새 불교문화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매주 수, 목, 금요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사찰음식 요리를 강의하는 사찰음식연구가 선재 스님의 강의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의 단기 여름학기 수업에도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 강의와 체험이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 특히 매년 방문하는 독일 슈타인바이스 대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선재 스님은 "자연에서 모든 재료를 구하고 조리법도 단순한 사찰음식이야 말로 인종, 국가,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음식"이라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며 조리법도 비교적 단순해 세계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음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찰음식의 인기는 서울 견지동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 '바루'에 가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손님들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마니아 고객들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사는 1주일에 한 번 꼴로 이곳을 방문할 만큼 단골 고객이 됐다.

이런점에서 대안 스님은 사찰음식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찰음식 세계화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그중 한 예가 외국인들이 사찰음식과 한식을 혼동한다거나, 사찰음식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사찰음식연구회장 적문 스님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사찰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장르"라며 "조계종단과 한식세계화추진단이 공동으로 레시피의 계량화 등 사찰음식과 한식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패러다임 벗어난 교육 급선무

한국불교 세계화 교육, 어디까지 왔나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 역사는 50여년이 되지만, 적극적인 세계화 인재 불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영어로 불교를 전하는 대표 단체인 국제포교사회는 1998년에 창립됐고, 영어 법회와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사찰들은 대부분 2007년 이후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교육은 이제 시작인 것과 진배없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불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용인 화운사에 개설한 국제불교학교(학장 법인)는 한국불교 최초의 전문 국제 인재 양성 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국제불교학교는 1, 2학년 비구니 스님 17명이 수학 중이며,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한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와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각각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인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과 'B.G.E.P(Bikkhuni-Global Empowerment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5월 6일 입재한 이들 프로그램은 비구니 스님과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영어 발음 교정·여성 리더십·글로벌 커뮤니케이션·번역 등의 교육과정으로 꾸며진다. 강좌 수료 후에는 2013년 1월 인도 바이샬리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불자연합대회'에 참가해 통역과 의전 봉사에 나선다.

'G.E.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장(서울대 교수)은 "'G.E.P'은 지난해 이어 2번째로 열리고 있다. 1기 수료생들은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시 통역 봉사를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대중 강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담마학교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교로 나뉘어진 영어 법회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제불교학교, G.E.P 등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상대국가 문화 먼저 이해 수행 매뉴얼·현지법 숙지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는 '기초 불교 영어강좌'를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이 강좌는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과정 중 하나며, 재가 수료자에게는 국제포교사 선발시험에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 같은 세계화 인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현장 감각이 필요하다. 이는 'B.G.E.P'와 같은 지속적인 현장 중심 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월 12일 열린 'B.G.E.P', 'G.E.P' 합동 수업에서 원어민 교수가 비구니 스님을 1:1로 교습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정 스님은 "상대방의 문화를 알고 그에 맞는 방편을 던져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기존에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세밀하게 접근·개발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글로벌한 안목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포교 현장에 투입될 요원들은 서구 사회에 맞게 매뉴얼화 된 수행법과 현지 종교법, 한국불교의 특징을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 국제불교학교 학감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스님은 "화두를 던져 참구하게 하는 간화선을 서구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호흡이나 감정을 조절해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게 하는 화두 전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매뉴얼화해 통일된 수행법을 적용해야 서구인들이 쉽게 다가온다.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 특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다"며 "또, 해당 나라의 종교법을 확실히 숙지해야 문제 없이 사찰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불교 세계화 교육. 이제는 실용적인 내용을 채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불교사부터 승가 영어교재까지…

불교 세계화 관련 교재 무엇이 있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풍부한 교육교재다. 하지만 불교계가 세계 불교와 관련된 서적 발간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인도, 일본, 동남아, 몽골 등의 불교사에 대한 개론서가 발간되기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조계종에서도 세계불교사와 승가 영어교육 교재 등을 내놨다.

세계화의 기초, 영어 교재

불교계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영어 교육 교재로는 대표적으로 올해 3월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정)가 발간한 〈불교영어 초급1〉를 꼽을 수 있다. 사찰 일상회화를 기초로 하는 〈불교영어 초급1〉은 불교교리,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단원도 포함돼 있다.



이 교재는 개편된 승가대학 표준교과 과정의 교재로 사용되며, 향후 불학연구소는 초급2, 중급 1·2, 고급1·2 편을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육 교재 〈헬로, 달마스쿨〉은 2009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됐다. '지혜', '자비', '고집멸도', '수행' '기도' 등 불교의 개념과 핵심적 교리, 불교 신앙체계 등을 쉽고 정확한 영어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했으며, 삽화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안목을 넓혀줄 세계불교 역사 개론서

세계불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월 조계종 불학연구소와 불광출판사가 펴낸 〈한 권으로 읽는 세계불교사〉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승가기본교육기관 2학년 2학기 필수교과목인 '세계불교사' 교재로도 사용되는 이 책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부터 중국, 일본은 물론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불교와 티베트, 몽골, 타이완 그리고 미국 등 12개 나라의 불교전파 과정과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미국불교사의 권위자 릭 필즈의 〈이야기 미국불교사〉는 세계화의 중심인 미국불교를 심도 있게 볼 수 있게 한다. 불교가 유럽을 거쳐 미국에 뿌리내리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한 충돌, 교섭, 융합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으며, 미국 사회에 주류로 잡은 일본, 티베트 불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시이요네오(石井米雄)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장이 저술한 〈동남아시아의 불교 수용과 전개〉는 한국불교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불교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신중일 기자

"세계화 인재 양성에 집중"

용인 화운사 국제불교학교를 가다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 설명이 이어진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를 경청한다. 간간히 웃음꽃이 핀다. 사찰 교육기관에서 볼 수 있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다. 자유롭다. 스님들 간의 토론도 열띠다. 즐거우면서도 진지한 모습들이다.

용인 화운사에 개설된 조계종 국제불교학교(학장 법인)는 명칭대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도량이다. 지난해 3월 개원한 국제불교학교에는 현재 1학년 9명, 2학년 8명 총 17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학 중이다.

이들 스님들은 대부분 해외포교에 원력을 가지고 선발된 인원들이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학교 역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영어, 불교교리(영어), 금강경·반야경·법화경 경전강독(영어), 리더십 강좌, 상담심리, 참선, 위빠사나, 포교방법론, 템플스테이 운영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1학년을 마치면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글로벌한 안목을 키워주는 특별 교육도 이뤄진다. 해외 공식 석상에 필요한 국제 매너부터 시사문제, 대중 스피치에 대한 전문가 강좌도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봉은사 템플스테이에서의 영어 통역 실습도 논의 중이다.

국제불교학교 교육 과정의 목표에 대해 교학처장 지정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님들이 영어나 외국어만 잘해서는 안된다. 글로벌한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를 세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불교학교는 세계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수학 중인 스님들도 이 같은 교육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부담도 됐지만, 이제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닌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운성 스님(국제불교학교 2)은 "학교에 들어와서 참선이라는 수행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존의 원력이 더욱 커졌다"며

글로벌 안목 가지는 교육 17명 비구니 스님 수학 중 전인적 스승 양성이 목표

"영어를 매개체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과 연수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접하며 내 안의 좁은 울타리를 볼 수 있었다. 졸업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제 스님(국제불교학교 2)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는 사회에서도 불교에서도 드물다. 이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을 느낀다"며 "현재 종단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해외교구 포교 요원으로 파견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쓰임이 있다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 서원했다.

용인 화운사=신중일 기자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들이 원어민 교수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금오산 향일암

주지 원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 전화 061)644-4742 홈페이지 www.hyangiram.org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젊은 장병 불자들의 포교 전당인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부처님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신축법당 대작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하여 1200분의 원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평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원불 모연불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자 광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 승 일 동 합장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육군중장 원태호

원불 / 불사금 후원계좌번호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농 협 301-0063-3042-71 예 금 주 : 군종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 ☎ (02)749-8646. 797-7266 / www.gunindra.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전단향과 따가라향과 자스민향이 아무리 짙다 해도 바람을 거슬러가지 못한다. 다만 아름다운 행실의 향기만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나니 이런 행실을 갖춘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소정의 비용 있습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강사
010-2418-6222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한국불교태고종 범패학인모집

천수바라. 사다라니
복청게. 도량게작법
태징.북.사물다루는법
6개월내 전문가처럼
필요한작법만지도전수
예수재.49재.점안의식
010-3809-4373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대 전후
(경북 상주)
011-528-05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사찰)
055)375-0142

신심있는
사무장(女),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수려한 산중사찰
010-8954-80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원)
011-9323-3767

토굴암자에서
수양하실 분
월세방 있음,
(경기도 포천)
010-9243-0993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니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지리산)
017-569-3722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하실 분 모십니다
(마산, 55세미만)
010-3428-6665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명리,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60세 이하
신심있는 사무장,
공양주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불사에 동참하실
비구니 스님, 행자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2)584-8844
010-5354-8484

거룩하신 부처님의 도량이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만등 불사 성취기도 발원문

철조망이 강원도 동해시 대명산 향운암 진출입로에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동해 대명산 향운암 출입로 철조망제거 기원만등 불사 동참을 발원 합니다. 향운암은 약70년 이상 된 약사기도 도량 인데 사찰 진출입로가 2011년 4월4일 포크레인작업 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참배객과 등산객 농민들의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산주는 평당4만원 구입후 20만원에 전부매입을 요구함) 사찰진입로 회복을 위하여 시청,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과 탄원을 수차례 하였지만 산주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지 진입로 철망제거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서 소승 만등불사 기도 를 발원하여 기도 회향에 소통되지 못한 진입로와 아름다운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 지길 발원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의 만등 불사 1인 1등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인 일등 동참만이 철조망으로 막힌 사찰 진입로 소통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만등불사 입제 : 2012년 5월 28일 (음 4월 8일)
동 참 안 내 : 1인 1등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89501-01-477577
우 체 국 202093-01-006018

약사기도 도량 대명산 향운암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496-4 (발한천길 43-68)
전화 033) 532-1773. 010-2873-2888

향운암 주지 무진 합장
신도회,관음회 일동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업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판단한다
개인지도, 스님특별지도
출장도 가능
010-4014-8822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 010-9468-171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성사
• 주 지 : 송학 (강신규)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 184-3

본인은 미륵선교종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합니다.

불기 2556(2012)5월 14일

미륵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많은 작명서(作名書)들이 오직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數理와 五行 정도로는 좋은 이름을 기대할 수 없다.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않는 똑같은 이름인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數理와 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각자가 타고난 四柱와 띠 (年支)에 맞추어 이름을 짓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의 四柱와 나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역(周易)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그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현재 20여 년간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가 참다운 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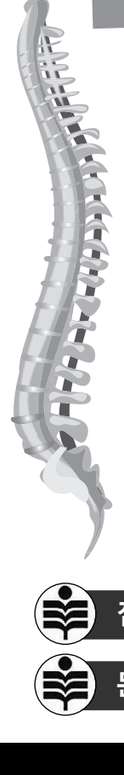
孫中山 會長 : 太極四柱, 易理作名法, 看命秘法 著者
한국음양학회 중앙회 회장 (고려대학 대학원 수료)

주문전화 053)324-2468. 326-4585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온 세상이 연화장 세계 밝은 등불 세상 곳곳에



관음보살상과 사천왕상등은 불교의 자비정신과 호법정신 발현을 상징한다. 우아한 불빛이 매력적인 전통의 등은 한지의 곱고 화사한 색채를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관불 모습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거리"

"10만 연등 모두의 마음 하나로"

"신나는 무대 끝에 꽃비가 내려"



이날 어울림 마당에는 화려한 군무가 대중의 환희심을 자아냈다. 함성과 웃음꽃이 넘쳐나 부처님오신날이 바로 지금임을 느끼게 했다.



승가원 장애아동의 제등행렬. 승가원은 불교계 최대 장애아동 복지법인이다.



연등축제는 이제 전세계인의 축제다.



불심 가득한 아이들의 마음이 귀여운 율동으로 표현됐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착하고 악함을 자세히 살피면 두려워하고 꺼려할 것 저절로 알게 되어 그것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된 이를 만나 그 어진 이를 따라 행하면 모든 바라는 바 잘 이루게 되어 복록은 갈수록 늘어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회 장 류병선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9(보현사내)
전 화 053) 253-2886
자비의 집 053)253-1082
■ 신도회 후원계좌번호 안내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
대구은행 096-04-000193-7
(복지재단무료급식소 자비의집 류병선)
•장학회 후원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대구시신도회)
대구은행 043-10-010486
국민은행 028201-01-013886
우리은행 1005-901-797252
외환은행 630-007485-229
농 협 301-0075-8540-01
(입금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불기 2556(2012) 임진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대구 교구 종무원
성 불 사
종무원장 법성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32-4
TEL 053)322-0567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노 적 사
주지 종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운
사부대중일동
■ 서울구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TEL 02)3391-8523

제등행렬 · 불교문화마당



연등축제 피날레인 회향한마당에 참가한 한마음선원 청년회 회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눈과 귀 열리고 자비 일깨워 세상의 행복 가꿉시다

5월 19일 수만 개의 화려한 장엄등으로 밝게 빛난 연등축제가 서울 시민들의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19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종로를 지나 조계사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한국인을 넘어 세계에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알리는 축제 한마당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각 종단의 대표들을 비롯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등을 들고 종로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5월 20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이 행사에는 사경체험, 절 체험, 연꽃등 만들기, 단청그리기, 한지공예, 도자기 등 120여 부스들이 설치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날의 환희를 사진을 통해 전한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회향 한마당의 공연모습. 한국의 멋이 물씬 풍긴다.



제등행렬에는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하는 다양한 전통등이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불교문화마당에서 연등을 만드는 외국인들



한마음선원 한마음등



축제를 밝히는 연등행렬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 7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5평
- 요사 : 85평
- 부지 : 2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 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가액: 3억 5천만원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 요사채 80평(방10칸)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 수려
-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가액: 11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수성구
- 부지 : 150명(대지)
- 건평: 50평
- 법당 30평(방3개, 임법당)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 지가(실거래가액) 2억5천만원 이상, 건축비 1억 5천만원이 투입된 도심 사찰임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 2동 60평
- 기타: 산신각, 석불, 석등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 실사용평수는 2500평으로 도심사찰이면서 산과 계곡이 있는 멋진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 왜관 사찰
- 부지: 2천 500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기장군 읍 대라니
- 평수: 82평, 4층 4층
- 법당 : 삼존불, 신중단, 칠성, 용왕, 산신, 지장단
- 인등: 지장등 관음등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주방, 화장실, 창고, 최고시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 9백만원

010-5031-8089

전원주택 겸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서면 거창리
- 평수: 396평
- 가액: 2천 5백만원

010-8852-1479

사 찰(급)안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IC 5분거리
- 부지 527평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실 2)
- 기타: 10평(차고,창고,야외화장실,CCTV)
- 가액: 2억8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54)336-4848

080-048-4848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 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울주군
- 면적: 약 50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주차장, 텃밭
- 고속도IC 인근 교통편리
- 해운대 30분 울산 20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

010-5346-4138

건 물 안 내

- 포교원하면 정말 좋습니다
- 부산에서 최고자리 지하철역세권
- 대지 550평
- 건물 900평
- 가액 50억

010-8676-277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부지 : 988평
- 청룡 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9417-6633

043)275-0667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372평, 건평 60평
- 목조 임법당
- 큰방포함 5개
- 주방, 목욕탕 2개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807-570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7억(현지 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면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사찰 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1-282-6098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검단 신도시
- 2층건물에 2층(기와기붕)
- 법당: 50평
- 요사채: 38평(방3, 거실2,공양간, 욕실2)
- 삼존불, 신중, 소불, 영단(만년위패), 인등
- 보증금 : 5천만원에 월 60만원
- 4차선대로변,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5282-355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2억 7천만원(조정불가)

011-452-8374

010-7164-7134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절충가능)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010-8993-359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IC 인접 1분거리
- 대지 약 900평, 건물 50평 2동
- 등산로 접, 전망터 최고 정남향
- 숲속 요양 집으로 적격
- 지역 거래가에 절반 가격
- 공시가로 양도함
- 융자 70%가능 /주인직

011-726-4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로 지정 예정인곳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 평수: 약 1000평
- 법당, 산신각, 용왕각
- 산세 좋음
- 가액 : 3억 1천

010-3355-26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 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군 입암면 마을에서 산쪽으로 외딴곳 남향대지 124평, 앞에 건물 18평 뒤에 건물 18평, 차진입 급수 전기 즉시 입주 가능함 주소 공개 주인직 가액: 4800만원

010-8899-88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법당 삼존불, 신중, 영가단
- 방2, 거실1, 공양간 1, 다용도실, 해우소
- 60평, 시설비무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개인 사정상 급양도

010-4036-304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010-3518-39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5042-1003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역 3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7십만원
- 평수 약 60평
- 3층건물에 2층
- 법당, 시설완벽, 살림가능
- 큰방2, 주방, 화장실 2개
- 가액: 4천 9백만원

010-9939-6966

010-4031-664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전 원 주 택

-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67번지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갖춘 정남향
- 스틸하우스 1동 23평
- 컨테이너 건물 2동 8평
- 나무때는 황토방 1동 3평
- 대지 : 554평,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단독 30평 1층
- 방3, 거실 大, 화장실 1
- 주방1, 다락2
- 기름보일러1, 연탄보일러1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7-297-4097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울산)
- 부지 : 4000평
- 법당 : 35평(내5외3포)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5천

- 위치 : 북한산 60년 고찰
- 부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8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절 터 안 내

- 위치 :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 27번지
- 면적: 35,500평
-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마애불상군 보물 1401호 지정되어 있으며 오래전 절터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임야임
- 가액: 평당 1만원

011-745-613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지하철역 바로 앞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석가관음, 지장, 삼존불, 호신불 약 300불
- 주방, 방2, 화장실 별도
- 보증금 6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A급

051)632-59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8천 5백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별장식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대지 290평 , 요사채 별장 (40여평)
- 법당 17평 남향, 조경 최상
- 가액: 3억 5천만원
-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해수욕장부근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지장, 각탱화
- 남향기와집, 텃밭, 대지124평(건물 약 30평)
- 전세+시설비+집기,가구일체=오천만원 (월세없음)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양도
- 꼭 하실분만 연락,몸만 오시면 됨

070-4142-4927

사찰 또는 전원주택 부지 안내

- 경북 영주시에서 부석사 중간(산 100~200m 고지)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 진입도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인입 완료
- 4개 계단형 부지 토목공사 완료, 바로 건축 가능
- 백두대간이 보이며, 경치가 좋고, 아늑함
- 가액 : 3.3억원

016-573-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대지 500평
- 법당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약 50평 2동, 산신각 2평
- 가액: 4억

017-802-32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5분
- 대지 약 600평
- 가옥 3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함
- 선방 ,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2억 8천만원

010-8880-1180

010-8886-06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 대지 150평
- 2층건물
- 1층 요사채 32평, 2층 법당 30평
- 산세수려함
- 가액: 3억 5천만원

010-9058-5353

암,당뇨 투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불보살님께서는 귀 토굴 숯뜸방.임법당 시설을 무료로 보시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권리금 전혀없음

010-4191-0455 (무아스님)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단독 30평 1층
- 방3, 거실 大, 화장실 1
- 주방1, 다락2
- 기름보일러1, 연탄보일러1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7-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은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 장로게경 -

불교계는 지금 재능보시 열풍

‘재능’ 나누면 함께 사는 ‘기쁨’ 두 배

보시란 널리 베푼다는 뜻이다. 대부분은 일정한 금전이나 물품을 내놓는 것을 보시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시도 세월 따라 문화 따라 변하는 법. 재능 기부가 대세인 요즘 절 집안에서도 재능 보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봉축을 맞아 문화 출판 의료 상담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널리 베풀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처럼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비추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강형진 단장 13년 오케스트라 이끌어
노희경 작가 출판한 서적 인세 기부해
류재환 교수 국내외 의료봉사 활발
황수경 교수 군부대서 명상 상담 봉사

‘문화 · 예술’로 감동 나눠줘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13년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다. 자비와 소망의 오케스트라라는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0여년 전부터 사찰서 소개받은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준 김지선 제자는 시각장애 학생으로 국내 주요 콩쿨에서 수상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단장은 “가르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낀다. 대중들에게 음악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며 법열감을 피력했다.

강제욱 불교 사진작가는 제 3세계를 다니며 찍은 사진을 유니세프, 코이카 등에 보시해 왔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그는 동티모르의 폐자재로 만든 장난감을 형상화한 작품을 제작해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등의 아트페어 프로젝트 등에 기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커피 드리퍼를 도자기로 제작해 제 3세계 국가 아이들의 공정무역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의 재능보시를 펼치고 있다. 강 씨는 “빈곤국 어린이들이 미술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향 한성대 교수는 지난해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 문화제에서 ‘춤추는 단청’ 무료 의상쇼를 펼쳤다. 또한 이 교수는 해외 불교 행사에서도 다수의 무료 의상쇼를 펼친 바 있다. 아비라타앙상블을 이끌고 있는 서수일 단장은 9년째 군법당 · 노인요양원 · 병원 · 소외 사찰 등을 찾아다니며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다.

방송인 김병조씨도 JTS 거리모금 행사 등에서 4년간 무료 MC로 출연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뮤지컬 배우인 아들 김형주(소리극단 부대표) 씨와 더블 MC로 함께 출연해 훈훈한 부자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교도소에서 10년째 그림 지도를 펼치고 있는 이인자 경기대 명예교수 ▷사찰 49재에서 108회 살풀이 공연을 하고 있는 관무용단 이영빈 단장 ▷사찰 로고 디자인 보시를 펼치고 있는 김민지(MIM대표) 디자이너 ▷선방과 사찰 불사에 그림을 보시하는 선화가 동성 스님 ▷불교계 행사에 무료로 공연중인 성의신 해금 연주가 등이 재능보시를 펼치는 문화 예술인이다.

불서 법공양과 인세 보시

40여년간 불서를 집필해 사찰 및 신행단체에 보급해 온 불자 원로 영화인 한갑진 회장(한진흥업)의 무주상 보시는 유명하다. 그는 1973년〈알기쉬운 불교〉를 시작으로, 〈인도와 불교〉〈부처님의 생애〉등 직접 저술한 책들을 사찰과 군법당에 무주상 보시해왔다. 또한 그는 10년간에 걸쳐 번역한 〈아함경〉 4권과〈새천년 헤쳐 갈 불교〉를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인세기부도 활발하다. 드라마 작가 노희경 씨는 출판 계약 시작 단계부터 기부를 전제로 한다. 소설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인세 전액을 기부하며, 대본집인 〈거짓말〉 〈그들이 사는 세상〉 〈굿바이 솔로〉 〈빠담빠담〉과 에세이집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등도 인세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고 있다.

불문학자이자 번역가인 민희식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발간에 저작권료를 기부했다. 일반책보다 제작비용이 훨씬 많은 점자책의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 시각장애인들이 좀더 쉽게 책을 접하도록 하고자 하는 배려다.

이밖에도 ▷동국대 역경위원을 지낸 박경훈 씨는 〈부처님의 생애〉인세를 불서발전기금으로 무주상 보시했으며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의 인세를 조계종 교육원 발전 기금으로 희사했다. 또한 올 1월부터 불교 잡지 〈불광〉에 원고를 기고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매달 원고료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보시하고 있다.

문화해설로 역사 지혜 전달

전문포교사 리수실 씨는 10여년 간 낙산사 문화유산해설사로 봉사중이다. 그는 불교적 시선으로 문화재를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불법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 이승철 주임은 고궁을 안내하는 궁궐 지킴이로 6년간 활동해왔다. 월 1회 창경궁 덕수궁 등에서 궁궐 해설을 펼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사찰 문화유산해설사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고민상담으로 ‘마음병’ 해결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교수는 10여년간 교도소와 군부대 학교(청소년 상담) 등을 다니며 무료 상담을 해왔다.

특히 그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최전방 군부대 장병들을 찾아가 법회를 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준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장 큰 원력으로 삼고 있는 그는 교도소 방문 상담을 통해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기도 하다.

불교상담전문가 이경애 씨의 활약도 눈에 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해온 그는 정년퇴직을 하고 모든 걸 불교에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0년부터 불교상담개발원의 강의는 물론 내방자들의 상담을 맡고 있는 그는 불교상담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밖에도 ▷20년간 무료 가족 상담을 진행하는 정토회 자재법사 ▷군법당 등에서 무료 상담을 펼치고 있는 (주)올리브나무 성부현 대표 등이 있다.

무료 진료로 병 고쳐 줘

류재환 경희대의료원 동서의학과 교수(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는 해외 및 국내에서 20여년간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인도 티베트 라오스 등 해외봉사는 물론 국내 도서 산간 지역 등에 의료 소외계층 진료를 맡고 있다. 앞으로는 8월 백령도를 시작으로 국내 섬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할 생각이다.

김진섭 강원도 철원 김화치과 원장(전국병원불자연합회 고문)은 10년째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과 무료진료를 한다. 또한 이연희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이주민치과진료팀장 역시 국내외 불교 의료봉사의 대표주자다.

20여년간 군부대를 찾아 민간치료를 펼쳐온 무구 스님(민간요법 성훈 따주기 명예회장)은 따주기 무료강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따주기 민간요법을 전해주고 있다.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초심과 발심으로... 불교학교 운영 어렵지 않아요.

제4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식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습회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인 초심으로 불교학교와 법회를 운영하여, 어린이 · 청소년포교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주는 자리로 1박 2일 동안 실제 사찰에서 시행되는 불교학교 일정으로 직접 체득하실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함께하시어 좋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2년 6월 9일(토) 오후 2시 ~ 10일(일) 오후 1시 (1박 2일 간)
2. 장 소 :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경기도 화성시 소재)
3. 참가대상 : 불교학교를 준비하시는 법회 지도자, 스님, 포교사, 템플스테이 실무자 등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6월 5일까지 선착순 150명)
4. 프로그램 : 사찰 예절(습의), Ice breaking, Team building, 우리문화의 우수성 신나는 찬불율동과 레크댄스, 사물체험, 캠프파이어의 실제, 발우공양 하는 법, 천연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불교학교 놀이의 실제 등
5. 강 사 : 성일스님(신흥사청소년수련원 원장), 장현재(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원장), 김용숙(한국의 정신과 문화 이사), 김정윤(불교레크리에이션 교육분과장), 최태규(아람레크리에이션기획 대표), 이수진(국제공예문화 총연합회 전문 강사), 진성철(깨비 이벤트 대표)
6. 참 가 비 :

사전접수 (6/5일까지)	당 일 접 수	비 고
60,000원	70,000원	- 본회 후원회원 무료 - 제주도, 해외, 군종 30,000원 - 사찰(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교통비 : 조계사 앞 → 신흥사 왕복 20,000원 (사전 접수 必)

- 입금계좌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접수 된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강습회 후 교재와 자료 발송)

7.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흰 티셔츠, 양말, 개인 물 컵
8. 접 수 : 이메일(burec@daum.net), 팩스 (02-738-7863) 접수
※ 신청서는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urec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문 의 : (02)738-7860, 739-4967

스마트하게 신청한다 〈QR코드 신청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 경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18 전면광고

뛰어난 사람은 모든 욕심 버려 가는 곳마다 그 모습 환하게 밝다. 비록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당해도 자신을 드러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 유치원 227-0173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미 륵 사

• 학교법인 벽상학원 세지중학교
•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미륵사 요양원 (백양실버타운)

주 지 원 일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124번지
전화 061)331-3436

한국불교태고종
용 화 사

주 지 상 종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463-1
전화 061)724-3777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길 상 사

주 지 도 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 지 월 우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전화 061)473-5122
홈페이지 www.dogapsa.org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062)266-0326

무등산 두암동
미 륵 사

선각불교문화원

회주 자 공

주지 목 언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 2동 7번지
전화 062)263-0108

남해제일의 바다방생도량
지 장 성 지 천 도 도 량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대사

사부대중 일동

■ 전남 여수 돌산 향일암 입구
전화 061)644-1244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 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전화 062)234-2207

한국불교태고종
보은산 금 곡 사

주 지 보각스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번지
전화 061)433-3407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주지 영 도

신도일동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42-4번지
전화 061)723-3161

대한불교 조계종
완도 신 흥 사

주지 법 일

완도 행복한 생협

신흥사에서 운영하는
'완도행복한생협' 은
김, 미역, 다시마, 메생이 등
청종해역수산물을 판매합니다.

■ 신흥사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전화 061)554-2634
신흥사 www.sinheungsa.net
완도행복한생협 www.wondocoop.com

대한불교조계종
광덕사 · 약천사
광주포교원 성거사

회 주 포산 혜인
주 지 범전 혜공
신도회장 응관 대원성
화엄회장 구연지
지장회장 청정지
육법공양회 일동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

사단법인
붇 다 클 럽

총 회 장 송원식
백록회 회장 김동화
영주회 회장 김형규
한라회 회장 이병철
천지회 회장 이국진
탐라회 회장 오치현
반야회 회장 김창은
정방회 회장 한재근

■ 제주시 이도2동 314-1번지 현원아트빌304호
전화 064)751-1080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19 전면광고

활 만드는 사람은 뿔을 다루고 물에 사는 사람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회주 도 법

주지 응 묵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572-1번지
전화 062)263-4460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혜 향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불교회관
전화 062)376-3223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죽 림 사

주 지 법 룡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산 1
전화 061)337-3620

지장도량 미 륵 사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주 지 혜 법

■ 광주 동구 운림동 468-3번지
전화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용 흥 사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한국불교태고종
석문산 용 문 사

주지 여 허 혜 종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32
전화 061)433-4879

대한불교조계종
마 하 보 리 사

주 지 성 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53-22
전화 062)944-0148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지 월 인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06-5
전화 062)655-7444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법일. 시각
무등. 행법
이성기. 정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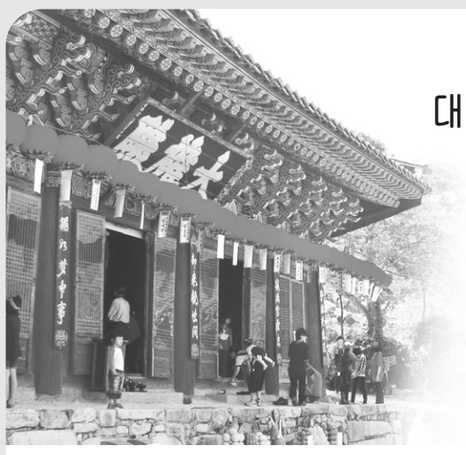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96-1번지
전화 062)223-3623 / 팩스 062)223-3624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신도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불기 2556년(2012) 임진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주지 **덕 천**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이 사 : 자광스님. 종호스님. 보선스님.
혜공스님. 성정스님. 법현스님
일진스님. 경륜스님. 혜수스님.
무원스님. 학성스님. 정묵스님.
덕원정사. 정 인 학. 윤 근 향.
이 원 기. 유 성 자. 박 완 순.

감 사 : 현암스님. 이 기 화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 전화 : 02)734-8050 / www.lisa.or.kr
■ 농협 : 053-17-001346 / ARS 060-703-1133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전 국 비 구 니 회



회장 명 우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www.kbiguni.org
전화 02)3411-8103~4 / 전송 02)3411-8108

“시대에 맞는 계율 정립 필요하다”

권기종 교수, 원각불교사상硏 계율 세미나서 주장



“현실에서 지키지 못할 계를 받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계도 지키지 않는다. 시대에 맞는 승려규범이 필요한 때다.”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흡연 등 현대사회 세태로부터 승려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새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원각불교사상연구원이 5월 12일 서울 천태종 관문사서 ‘계율의 성립과 변천’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국불교에 있어 계율의 문제’를 통해 한국불교 현실을 반영한 승려규범 도입을 주장했다.

권 교수가 예로든 규범은 조계종 승려규범의 중심이 된 〈사분율〉이다. 권 교수는 〈사분율〉이 2500년 전 인도서 제정돼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현재 〈사분율〉을 그대로 수지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반대로 지킬 수 있는 계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수계와 동시에 파계를 가져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며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예를 든 불합리한 〈사분율〉의 조항을 살펴보면 돈을 만지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축전보계(畜錢寶戒)와 착보계(捉寶戒), 땅을 파지 말라는 굴지계(堀地戒)나 일체의 초목을 꺾지 말라는 괴생종계 등이다. 또한 입대소변계처럼 스님들이 서서 소변 보는 것조차 금하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권 교수는 “마약 복용, 흡연, 과도한 사유재산의 소유, 고가의 물품이나 사치에 가까운 의복 착용 등은 수행자의 도리라 보기 어렵다”며 “자동차, 컴퓨터, TV, 휴대전화, 전자게임, E-메일과 인터넷 사용에 관한 새 계율의 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새 시대에 맞는 규범 도입의 예로 틱낫한 스님이 제시한 9가지 승규(僧規)를 들었다. 틱낫한 스님의 승규는 △비싸고 좋은 차를 소유하지 말 것 △이성과 단둘이 자동차를 타지 말 것 △세속적인 필름, 음악, 전자게임을 소유하지 말 것 △운동경기, 세속적인 영화, 공연을 보지 말 것 △부모, 스승, 친구에 대한 은혜를 부인하지 말 것 △세속적인 소설책을 갖거나 읽지 말 것 △가사와 장삼을 세 벌 이상 지니지 말 것 △주식을 사거나 투자하지 말 것 등을 담고 있다.

권 교수는 “계율을 함부로 고칠 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계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계종은 천태종의 출재가자 공통 계인 십선계 중심 운영을 참조해 불교정신에 맞는 새 계율 정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12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새 승려규범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불합리한 ‘사분율’ 맹목적 추종 문제
‘틱낫한 9승규’는 새 규범 좋은 예

새 승려규범 도입, 율장 정신 회복

이에 대해 이날 학술대회 첫 발제인 ‘초기교단의 계율과 성립배경’을 발표한 백도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도 새 규범 도입에 대한 입장을 함께 했다.

백 연구원은 “계율은 붓다의 규정과 허락으로 성립됐고 포살을 통해 암송된 뒤 명문화됐다”며 “계율의 제정과 알림 적용과 추가제정 및 개정 시기는 각각 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연구원은 “계율은 각 부파의 입장을 담아 다른 조목과 내용으로 명문화됐으며 또 범죄결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그 내용을 담아 계율을 생성하기도 했다”며 “당시 바라제목차를 외우지 못하는 경우 참회 하지 않았던 점에서 승가의 율은 외우기 위한 명문조항이 아니라 포살을 위한 방법이었다”고 형식화되는 율장 정신의 회복을 주장했다.

대승불교 계율 시대따라 이해 달라져

신성현 교수(동국대 교수)는 ‘대승보살계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승불교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계의 이해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초기 대승불교에서 주목되는 계가 바로 10선계인데 초기불교에서는 10선업도라는 윤리덕목에서 시대상황에 따라 계로 받아들여졌다”며 “부파율장의 계율은 출재가가 공감할 수 있는 초기 대승불교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불교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승의 입장에서 해석한 10선계가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용문산 상원사 범종 명예 회복하나

도정만 박사 “제작연대 신라시대로 추정”
1962년 ‘가짜 오명’으로 국보 지정 해제



국보에서 아깝게 해제됐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상원사 범종(해제 당시 국보 367호)이 신라시대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은 연구 결과가 나와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5월 15일 경기도 양평 농업박물관서 열린 ‘용문산 상원사 범종 학술발표회’에서 도정만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통과학기술사업단)은 상원사 범종은 신라시대 범종 제작 기법인 밀납(蜜蠟) 주조공법을 사용했고, 재료도 신라 남부지방 것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재료 성분분석을 통해 범종이 일본서 제작됐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연구원은 “종 재료에 섞인 납의 세 가지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해 보니 남부지방 재료를 사용했으며, 구리 · 주석 · 납의 구성 비율이 성덕대왕신종 등 신라시대 종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료 비율을 보면 한반도 남쪽과 북쪽, 중국 남부와 북부, 일본 등 원산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상원사 범종의 제작 연대와 모조품 여부를 문양이나 당시 상황 등으로 판단했었다.

범종의 납 동위원소 비율이 남한에서 생산된 종 재료와 거의 일치한다. 일본이나 중국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상원사 주지 호산 스님도 “일제시대 이후 상원사 종의 과학적 · 학술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던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상원사 종의 역사적 가치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상원사 범종의 가치 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상원사 범종은 1929년 2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제야의 종’ 타종에 사용됐다. 이후 1939년 11월 17일 보물로, 해방과 함께 국보 367호로 지정돼기도 했다. 그러다 ‘일본이 약탈해 간 뒤 19세기 말 일본서 급조해 다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돼 1962년 국보에서 지정 해제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열반 · 깨달음 · 해탈 개념 논쟁 재고돼야

5월 12일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

“부처님 당시 열반과 깨달음, 해탈은 완전한 최고의 경지를 칭하는 다른 이름이었다. 열반의 완전함에 대한 불완전성의 합리화와 변명이 그 이후 불교이론을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원천이 됐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가 5월 1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반 개념에 대한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조준호 동국대 강사는 이날 첫 발표인 ‘열반개념의 연속과 불연속’에서 “본래 열반과 깨달음, 그리고 해탈은 같은 경지에 대한 다른 이름이었지만 초기불교 전통에서 하나뿐인 열반을 유여 · 무여열반 같이 둘, 셋 그 이상으로 갈라내며 열반 개념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강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격과 위상이 망가진 열반개념이 대승불교에 와서 불완전성이 천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 강사는 “깨달음을 열반보다 상위개념으로 위치시키거나 ‘깨달음은 수단, 열반은 목적’, ‘궁극목적은 깨달음이 아닌 열반’이라는 주장 모두 재고돼야 한다”며 “깨달음과 관련해 최근 국내서 제기된 ‘연기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성제라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는 연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관련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창환 금강대 연구원은 “초기불교 기준점에 있어 자의성을 띄지만 이와 관련된 논쟁이 진행되는 만큼 의견 개진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노덕현 기자

“북한 문화재 관리에 남한 지원 필요”

동북아불교미술硏 ‘북한의 문화유산’ 논의

국내 최초 북한 문화유산을 조명한 학술행사가 열렸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는 5월 12일 명지대 대강당에서 ‘북한의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술사 · 건축사 분야의 북한 쪽 전문연구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미술사학계 소장 연구자들이 북한 미술사 · 건축 문화유산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제2발표를 진행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발표에서 “북한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해 문화유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많은 역사유적이 피해를 받았는데 2000년대 전국 사찰에서 문화유산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남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태호 명지대 교수는 금강산 불교유적 중 고려전기 조성된 묘길상과 후기 삼불암을 대표적인 고려시대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삼불암의 ‘석가문불’ ‘미륵존불’ ‘아미타불’ 명문 및 묘길상 왼편에 음각된 문인공양상을 공개하며 “묘길상은 금강산 중심의 거불, 삼불암은 길목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 마애불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병희 경기도 문화재위원의 ‘묘향산 용주봉의 진신사리탑을 통해 본 구형부도’, 최경현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19세기 북한의 사찰벽화 연구’ 등도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현실의 관음이 내세의 정토 낳아”

한국정토학회, 관음사상과 신앙의 재조명 세미나

한 마을에 조신 스님이 있었다. 마을의 김씨 낭자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그 여인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신 스님은 관음보살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나 조신 스님은 그 여인과 함께 고향땅에 가서 부부가 된다.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지만 몇 십 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가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두 사람이 늙고 병이 들자 헤어지기로 한 순간 조신 스님이 눈을 뜨고 오십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다. 부부일때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를 파보니 돌미륵(石彌勒)이 나와 서울로 돌아가 정토사(淨土寺)를 세웠다.

삼국유사 조신전에서 전하는 관음신앙과 정토신앙의 일부다. 한국정토학회(회장 보광)가 양양 낙산사에서 5월 12일 개최한 15차 학술회의에서는 서울 정토사의 정토신앙과 양양 낙산사의 관음신앙에 대한 연관성이 주요 주제로 발표됐다.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는 ‘낙산사 관음신앙은 정토신앙과 연결해야’ 주제 발제를 통해 관음신앙이 아미타정토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 명예교수는 “승려 조신(調信)이 관음기도로 요구하는 바를 달성해 가정을 이루지만 현실생활은 고해의 연속이었다. 이는 당시 관음신앙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아미타불 본원(本願)으로 정토에 왕생해 그 공덕으로 보살도를 수행해 부처에 이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대 표
서 철 교
(덕운)합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50-1번지
TEL:(053)257-8720 / 253-8382
FAX:(053)257-8721
농협:703-02-134031(김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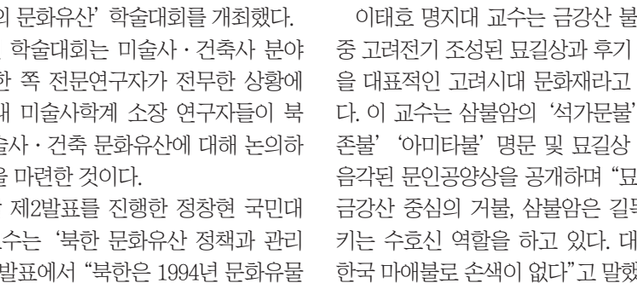
서 완 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891-번지
TEL:(051)514-3447(원창사)

‘적 하 수 오’
묘 목 분 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21 전면광고

이 몸을 물거품 같다고 보고 모든 일은 아지랑이 같다고 보는 자는 악마의 꽃 피움을 꺾어 버리고 나고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미 룡 사

회 주 **법담 정각 스님**

법 사 **범진 스님** 주 지 **성해 스님**
포교사 **이구 스님** 기 도 **정혜 스님**

신도회장 **광운 김동열**
바라밀합창단 단장 **이정희**
한울타리예술단 단장 **성정옥**
미룡사노인대학 학장 **김연순**
임원회 회장 **하애순**
관음회 회장 **최문자**
육법공양회 회장 **추연자**
어린이회 지도교사 **이은희**
부산교도소후원회 총무 **최선옥**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희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남로112 (동삼동323-194)
TEL 051)404-4300, 2100 FAX 403-4860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늘 좋은날 되소서'



■ 부설법당 : 동남원자력의학원 內 종교실
문의 : 010-7570-846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
TEL 051)727-2392-3 FAX 051)727-2394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종무원장 **지만** 중앙종회의원 **지광**
총무국장 **지법** 지방종회의장 **정인**
교무국장 **서각** 부 의 장 **보련**
재무국장 **도광** 종회의원 **성각**
사회국장 **법성** **지환**
호법국장 **혜민** **성주**
기회국장 **마전** **지풍**
교육국장 **도경** **보해**
문화국장 **보해** **문수**
교임국장 **도현** **도현**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6번길 7-11 서강빌딩 501
TEL 051)442-1818 FAX 051)442-1817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
해운대 백병원 불교법당

〈부설〉 대광명 불교대학
〈부설〉 참마음 노인방문요양센터
참마음 간병사회
참마음 간병사교육원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로데오아울렛 B동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 부 대 중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미타선원의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선공부 · 명상상담 전문교육도량
행복禪수행학교
행복禪명상상담센터

■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051)253-8687~8 / www.mitazen.net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고 문 김재운 김재진 박민식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흥대
직전회장(고문) 박수관
회 장 허인구
수석부회장 박순곤
부 회 장 김수현 김종백 박영근 신재철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장인화 최삼섭
감 사 김동열 노종헌
사무총장 신상해
재무총장 김선일
총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최대경
친목이사 공정근
섭외이사 허성하
홍보이사 이학우
조직관리이사 안천일
대외협력이사 장병주
사업이사 김영한
학술이사 이헌호

■ 주소 : 부산 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 총** 관 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 장 **서은해**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 도솔 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 지 호 암 지 태
신 도 회 일 동

■ 정법사: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 055)246-8393, 245-6544
■ 대자유치원
☎ 055)245-0108, 242-0108
■ 토월도솔유치원:
경남 창원시 창남동 45-1번지 APT단지내
☎ 055)261-0832
■ 진해자은 도솔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자은동 911번지
☎ 055)551-2112
■ 영축불교대학교

■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TEL 055)246-8393, 245-6544

(사)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자승스님(조계종총무원장)
부 회 장 인공스님(태고종총무원장)
홍파스님(관음종총무원장)
혜정정사(진각종통리원장)
보선스님(조계종중앙종회의장)
이 사 장 정산스님(전 천태종종무원장)

여 성 부
회 장 백명숙 (대일심)
부 회 장 박동희 (만월심)
총 무 김경수
재 무 옥영숙
운영위원 김명애 남영희 김예영 김종남 우정해 정지연

국제협력부장 김동희
문화홍보부장 신덕기
감 사 이위교

■ 서울사무국 02)720-1708
부산사무소 051)818-3427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민국 희망금융 "신협"

" 정기예금 특판 "
15개월 **5.37%**

◈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장
◈ 비과세로 훨씬 높은 수익률
- 세금 14% 절세효과!!
◈ 빠르고 편리한 신협대출
◈ 신협화재 신협생명
- 더 낮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주는 실속보험
◈ 의료기관 협약체결로 의료비 할인까지!!

부산성의신협
연지 / 양정 / 초읍 / 불교지점

부산협의회장 이 사 장 **최송홍**
전화 051)633-9120~3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신 도 일 동
[재]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 재 어 린 이 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113-1번지
TEL종무소 051)866-7771~3
FAX 051)866-7777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불교성지순례안내

"성지순례!
성지를 여행한다고 모두 순례가 아닙니다.
고기 먹고, 술 마시며 순례를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지요.
성지순례는 곧 자신부터 정화하고,
부처님과 한마음임을 체득하는 길입니다."

◇ 성도절 인도성지순례 (12~15일)
◇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루순례 (5~6일)
◇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순례 (5~7일)
◇ 미얀마 성지순례 (6~8일)
* 일정 및 동참금은 문의바랍니다.
* 단체의 경우 상담 후 일정 및 동참금을 조정합니다.

■ 문의 : 파초여행(주) 051-808-7370, 010-8817-0162

Pilgrimage & Meditation Tour
芭蕉旅行株式會社
PACHO TRAVEL.CO.,LTD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문수용, 이경순
감 사 심산, 박분희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계수
홍보이사 성림, 진영조
자살예방이사 혜산

이 사 일 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442-0429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3층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22 전면광고

자신의 몸과 혀(말)와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이 셋은 모든 재앙을 불러오는 문인 동시에 불멸로 향하는 추진력이기도 하다.

동래구 불교연합회

고 문 명해(소림사 주지)
회 장 도문(전등사 주지)
부 회 장 대원(금불사 주지)
총 무 정찬(도림사 주지)
회 원 혜성(금강사 주지)
각우(법륜사 주지)
삼광(원광사 주지)
승조(약수정사 주지)
성안(심불사 주지)
일허(자운사 주지)
현관(금정사 주지)

■ 회장 : 부산 동래구 동래로 215번 가길 22-13 전등사
TEL 051)552-1283, 011-863-2954
총무 : 부산 동래구 명륜로 218번길 64 도림사
TEL 051)552-8909, 010-9326-8909

대한불교조계종

홍 법 사

주 지 深 山

國際佛光會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 한나래문화재단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22번길 202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www.홍법사.com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 수선회

선원장 정여 스님 (前범어사주지)

수선회 선감 도경스님
여여정사 주지 도안스님
김해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여여선원총무 효산스님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스님
울산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여여선원신도회명예회장 김경환
여여선원 신도회장 여만숙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합창단, 삼천일기도회, 여여산악회, 여여선원카페, 지장회, 관음회, 정년회, 청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불교대학원

여여선원에 오시면 언제나
기초교리, 경전, 참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051) 853-5486~7
■ 여여선원수선회 051) 334-8108
삼랑진 여여정사 055) 355-9290~1
■ 울산여여선원 052) 267-0108
김해여여정사 055) 311-2911~2
■ 영도대흥사 051) 417-6010
사량도 관음낙가사 055) 641-7766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수행
환희와 감동을 주는 포교선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 산 지 역

단 장 강수대
부 단 장 류종상 양준동
강미자 이승표
사무국장 이해일

포교사 일동

■ 부산 진구 부전1동 390-34 화엄불교회관 2층
TEL 051)633-3011 FAX 633-3012
www.pogyosadan.org

천년 가야의 전설을 간직한

봉화산 정토원



원장 선 진 규
합 장

호미 든 관음보살상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번지
TEL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세계불교의 중심
실천하는 수행공동체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

사무총장 박대성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861-8800
FAX 051)861-8802
http://www.baob.kr

바로알고 바로믿어 바로 행하는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전문교육과정
경전과정
불교상담심리과정

학 장 수 불
담임법사 지 장

재학생 일동
총동문회 일동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91-1
TEL 051)866-7277 / FAX 051)864-7290

기장군 불교연합회

고 문 만송(약수정사 회주)
보광(보림사 회주)
자문위원 정암(해동용궁사 주지)
해월(백두사 주지)
대광(소원사 주지)
지모(묘법사 주지)
법혜(도선사 주지)
청봉(보림사 주지)
초삼(옥정사 주지)
정현(장안사 회주)
법상(대덕사 주지)
회 장 정오(장안사 주지)
수석부회장 법안(안적사 주지)
부 회 장 보혜(화엄사 주지)
감 사 혜성(해광사 주지)
총무국장 도은(장안사 총무)
재무국장 혜명(혜명사 주지)
포교국장 성타(동림사 주지)
복지국장 법귀(백련암 주지)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 장안사
TEL 051)727-2392~3 / FAX 051)727-2394

용산사지석조여래불입상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18호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함양포교원

보 림 사

주지수인

사부대중일동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89번지
TEL 055)963-2471
FAX 055)963-2672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혜지(낙은사 조실)
각성(화엄사 주지)
화능(용문사 주지)
종학(불광사 주지)
회 장 청강(옥천사 주지)
수석부회장 유정(운수사 주지)
부 회 장 성문(선광사 주지)
성관(백운사 주지)
대둔(용운사 주지)
운영위원장 혜산(봉덕사 주지)
사무국장 청암(관음사 주지)
감 사 금산(약사암 주지)
지산(약수암 주지)
자륜(낙은사 주지)
자문위원 성중(백운사 주지)
종욱(승학사 주지)
종선(해경사 주지)
지우(반야정사 주지)

사상구 불교연합회 회원 일동

■ 사무국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50번 나길 80-429
(모라동) TEL 051)327-5095

사하구 불교연합회

자문위원 현각(서림사)
우천(용천암)
상연(극락암)
회 장 법인(약천사)
수석부회장 삼주(연화사)
부 회 장 만일(미륵암)
총무국장 혜원(성불사)
교육국장 현각(보타사)
복지국장 승공(칠보사)
조직국장 묘덕(문수사)
감 사 혜성(소원사)
포교국장 보승(무학사)
자원봉사국장 정홍(용주암)
자원봉사실장 기화(감로암)
기획실장 혜우(약수사)
사무국장 조선미
운영위원 사하구 불교연합회
스님 일동

■ 부산 사하구 신산북로 51 (신평동)
연락처 : 사무국장 조선미 010-2008-8080

해운대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제(해운정사) 남촌(동해사)
성산(성불사)
자문위원 동림(해림사) 도업(화엄법계사)
천제(해월정사) 효천(석태암)
학명(도성암) 백졸(옥천사)
정완(보경사) 진파(용수사)
랑천(무주사)
회 장 광진(동해사)
수석부회장 목종(대광명사)
상임부회장 정민(폭포사)
부 회 장 효범(부처님마을)
만오(석대암)
마나(백운사)
총무부장 법안(동국사)
재무부장 혜조(청혜원)
포교부장 정관(원오사)
교무부장 덕림(금수암)
감 사 도원(여래사) 안도(반야원)

■ 사무국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50번 나길
80-429 (모라동) TEL051)327-5095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신병호, 임채린
박주영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6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기도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신촌마을 8번지
TEL 051)973-5224, 3076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 지 혜 월(효선)
사부대중일동

http://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 FAX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운 수 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사상구 모라3동 산5번지
TEL 051)317-5671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경전 과정 -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신도회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TEL 051)809-0926 / FAX 803-0188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23 전면광고

부모가 내게 주는 그 무엇도 친척들이 내게 주는 그 무엇도 정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게 주는 행복보다는 못한 것이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고 문 유진 자 문신풍 학산
명예회장 송월, 심산, 무상
회 장 광진 수석부회장 법안
부 회 장 법산, 효신, 고담, 대광, 도암, 의호, 보당, 진각, 지원, 보원, 정오, 지엄, 안도, 진각

이사 회원스님일동

■ 사무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회장 010-4598-0001 / 사무총장 010-3558-2253

효행실천도량
청 룡 암

울산광역시사암연합회 부회장
울산불교 교육대학 학장

주지 종 현

■ 울산시 북구 매곡동 산 35번지
TEL 052)282-2800

전등사 · 보타선원
(구. 보타원)

회 주 석성 보광
주 지 수인
고 문 안 보광화
안 덕 우

신도일동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8
TEL 051)243-0048~9 / FAX 242-4109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 수 사

주지대행 상 천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6동 843번지
종무소 051)467-3316
팩 스 051)467-3338

진 여 원

회 주 혜 총
주 지 무 성
원 장 남보타원
진여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337-1080

새로운 천년 길상의 향기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법화경반 · 우담바라합창단
성현덕회

주지 만제 혜수
사 부 대 중

■ 주소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511-10번지
대명빌딩 201호
TEL : 055)333-8202 FAX 055)333-8203

교각스님 등신불 도량
천마사 연 화 사

주지 삼 주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광역시 사하구 괴정 2동 378-136
TEL051)294-2443,2444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정 사

주지 석상범
차상위 계층을 위한 후원회
금강(金剛)
후원회장 석상범
운영위원 일동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무관심과 방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50-72
TEL 051)204-0023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9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황령산 홍 제 사

주지 성 문

· 매월 초하루 법회 · 매월 초하루-3일 신중기도
· 매주 월요일 다라니 독송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485-31번지
TEL 051)802-0130 / FAX 051)804-1037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 토 사

주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신도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 : 밝은세상
정토사 극락원 (납골당)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TEL 052)258-9944-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1884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불 광 사

회주 인산 지준
주지 보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25번지
TEL 051)809-1420 (초연중학교 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
TEL 051)403-7077 FAX 403-1077
홈페이지 www.hanmaum.org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성 암 사

경남불교대학

주지 응현
사부대중 일동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1동 산 13-5
TEL 051)635-3744 / www.성암사.kr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 산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호경관광여행사

대표 이 준 엽 합장

(HP. 017-502-3721)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5번지 현대백화점 9층
TEL 051)667-0841~3 FAX 051)667-0844

금 륜 사

명상수련

주지 정 각 합장
신 도 일 동

■ 경남 양산시 동명 사송리 1036-1
TEL 055)383-7009, 011-556-583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음사

사회복지법인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9-2
TEL 051)294-9300 www.gwanumsa.com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 부산 사하 두송 자활후견기관
TEL 051)265-9471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도량 원 오 사

꿈나무가꾸기 명정 장학재단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정관
신도회장 박대건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TEL 051)542-7949,545-7949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 사 장 정여
상임이사 각우
이 사 정현.여현. 정만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상현 .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337-1080

부산여성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백명숙.이경순 천양자
회 장 왕선자
부 회 장 정정자.이미춘.박종남
총 무 박정림.김명자
재 무 서점례.손하영
감 사 엄점선.이명희
운 영 전길자.전위미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4층)
TEL 051)817-3166, 3168 (FAX겸용)

사) 부 산 파 라 미 타
청 소 년 협 회

총 재 수 불
부 총 재 심산, 원허
사무총장 지 장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김정락
고등부지회장 김영일
사무국장 최낙현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TEL 051)513-4306 / FAX 513-4307

30대회장단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박경수
수석부회장 조혜진
부 회 장 김태훈 신다혜
사무처장 김진희
기획사무처장 류영철
감 사 류성길 정경섭

회 원 일 동

복짓고 원 세우고 전법하는
환희심 넘치는 부산불청

■ http://cafe.daum.net/kybabs
TEL 051)861-5241

성 광 사
성광사 불교전시관

대표 이동권

불교용품 생산30년의 노하우
호박불상 생산전문 (발명특허제품)
불사전문. 불사상담 환영
각종 인등 생산

■ 전시장 : 부산 금정구 남산동 48-15 전화 051)512-0005
공 장 : 경남 김해시 전하동 464-1 전화 011-565-4800

덕 운 사

주지 경 산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672-2
TEL 051)513-1373

봉축 등 달고 부처님 말씀 되새겨요

불교인들의 축제 부처님오신날이 돌아왔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 주변의 불자 유명인들은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보낼까. 그들을 통해 돌아본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더불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고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계사 봉축법요식과 대구지역 사찰 방문”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주호영(56 · 법명 자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6월 19대 국회 개원과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는 매년 빼먹지 않고 참석했다. 독실한 신심으로 유명한 주 의원답다. 올해 부처님오신날도 마찬가지다.

“매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등축제에 참석하고,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는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지역에 내려와 보광선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삼보사 등 절에 갑니다. 초파일 보름 전부터 인연 있는 사찰에 꼭 등을 달러 다니는 것도 일과중 하나지요”

주 의원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탄생게를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주 의원은 부처님오신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주 의원은 ‘평화’라고 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불서를 선물 받고 싶습니다.”

신중일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집 가까운 절 찾아가 할일 챙기며 성찰”

최문순(56) 강원도지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불자모임인 연등회 회장을 맡는 등 불자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문순 도지사는 당선 후에도 깊은 신심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도정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작년엔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춘천 삼운사 봉축법회에 참석했다. 올해도 절을 찾아가 법회에 참석하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볼까 한다”며 부처님오신날 일정을 소개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의 평정을 찾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비롯해 해야할 일을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평소 속초 신흥사와 평창 월정사, 인제 백담사 등 강원도 명찰을 자주 다닌다는 최 지사. 그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음을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이 서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꼽았다.

노덕현 기자



강창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제주 봉축법회 참석 지인들과 ‘茶’ 나눠”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이자 민주통합당 불자 의원 모임인 연등회 회장 강창일(60) 국회의원은 불심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불자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제주연합봉축대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2010년에는 정각회 선원을 개원하는 등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생각하고 사회 곳곳과 소통하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제주도의 한라산 관음사를 자주 찾는다. 강 의원은 “관음사의 고즈넉한 모습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가 많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끝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음미할 수 있는 ‘차’는 부처님의 소박함과 그윽함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매개체”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차를 서로 선물하며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탤런트 나문희 씨

“절에 못가는 대신 단주 등 이웃에 선물”

나문희(71 · 법명 칠보화)씨는 최근 뮤지컬 ‘친정엄마’의 주연배우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그는 이번 부처님오신 날에는 자주 찾는 사찰을 방문하지 못하게 돼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3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내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계신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지관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새겨온 나문희씨는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 중 한 분이셨는데 많이 생각이 난다”며 최근 열반한 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다.

“배우라서 감정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요. 특히 공연이 끝나면 허탈할 때가 많죠. 이럴 때 불교의 가르침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경하는 나문희 씨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인들에게 단주나 핸드폰 고리 등 불교성물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탤런트 남일우 씨

“아내와 수안사 가서 부처님 닮기를 발원”

탤런트 남일우(74 · 법명 영담)씨는 부처님오신날은 본찰인 서초동 수안사에서 아내이자 배우인 김용림 씨와 법요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수안사와 정토회 등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집에 작은 법당을 만들어 매일 아침 아내와 예불드리며 불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늘 부처님의 삶을 닮고 싶다고 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역시 남씨는 그분의 삶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했다. “늘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감히 제가 닮을 수 있는 분은 아니지요.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간 그분의 삶을 늘 존경하고 이웃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남일우 씨는 “불서 · 불교계 신문 등을 주거나 받고 싶다. 부처님 말씀을 이웃에게 알리고 싶어서다. 또한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자로서 보람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탤런트 김영애 씨

“경전 선물하고 감사의 등 밝혀요”

탤런트 김영애(62 · 법명 문수) 씨는 평소 부처님오신날 오대산 상원사 또는 서울 도선사를 방문한다.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생각으로 절에 가서 기도하진 않아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는거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김영애 씨는 불자들에게 넓은 시야를 갖고 살아가기를 권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나 살기 위해 급급했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돌아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김영애 씨는 지인들에게 법정 스님의 서적이나 〈금강경〉과 같은 경전 등 좋은 불서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다.

“명절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에도 선물을 즐겨받는데 왜 부처님오신날에는 그런게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지인들과 불서를 주고받으며 부처님오신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이나은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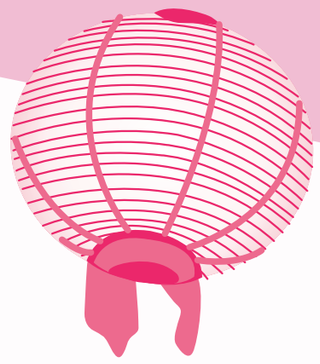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신도 무문관 수행 및 사찰 공부방



1. 무문관 체험 7일 ~ 3개월 - 자유
   - 음주, 흡연 완전 금지
2. 무문관 수행
   - 하루한끼 공양 • 두문불출
3. 사찰 공부방 하루 세끼 공양 - 채식
   - 최적의 면학분위기, 각방 세면장, 화장실
4. 감포도량 거주 행자모집(무일선원)

☎ 054)753-822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감포도량)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25 전면광고

원수들이 내게 어찌한다 해도 적들이 내게 어찌한다 해도 거짓으로 행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해악보다는 못한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종 정 : **덕찬당 지명** 부종정 : **덕룡당 법공** 승정원장 : **덕담당 심월**

총무원장 : **덕우당 대은** 중앙감찰원장 : **행성당 덕성** 중앙종회의장 : **행봉당 해륜**

승정위원 : **원봉**
승정위원 : **혜공**
승정위원 : **법광**
중앙종회부의장 : **운성**
중앙종회부의장 : **혜광**

선 원 장 : **원봉**
중앙호법원장 : **혜천**
중앙문화원장 : **보경**
중앙교육원장 : **광혜**
중앙율원장 : **우담**
중앙포교원장 : **해권**
서울종무원장 : **릉선**
부산종무원장 : **정민**
영남종무원장 : **혜오**

남해종무원장 : **청운**
경북종무원장 : **혜법**
경남종무원장 : **무일**
영동종무원장 : **혜공**
강원종무원장 : **혜각**
경기1종무원장 : **법화**
경기2종무원장 : **혜광**
총 무 부 장 : **고우**
재 무 부 장 : **소원**

교 무 부 장 : **월광**
포 교 부 장 : **청정**
문 화 부 장 : **송담**
규 정 부 장 : **소담**
총 무 국 장 : **시권**
사 회 국 장 : **법문**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4번지 도선사 전화 : 02)2091-0408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수 락 산 도 선 사



주 지 대은덕우

신도회장 금정웅

신 도 일 동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 02)938-1405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보 리 사

주 지 덕찬지명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27-2
전화 031)829-4882

대한불교조동종 부종정 주석사찰

두리봉 행운사

회주 덕룡법공

주지 행천수임

총무 지현

신도일동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전화 010-9189-3346 / 011-781-0218

대한불교조동종 재무부장 주석사찰

석 민 사

주 지 행오소원

신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387-4번지
전화 031)321-9694

대한불교조동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자 비 암

주 지 청정

신도회장 : 김정순
총 무 : 김경주
관음회장 : 박춘옥
부 회 장 : 주숙자
연꽃회장 : 최진욱
홍보부장 : 김상곤
사 무 장 : 정 욱
재 무 : 박정은

신도일동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추산동 81-3번지
전화 055)241-1176

대한불교조동종 중앙포교원장 주석사찰

덕 수 사

주 지 해권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60번지
TEL 031)636-2360 / 011-364-6239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지 행성 덕성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대한불교조동종 중앙 율원장 주석사찰

해 안 사

회주 우담

주지 설연

신 도 일 동

■ 대전시 동구 삼성1동 293-4번지
TEL 064)784-3950

대한불교조동종 경남종무원장 주석사찰

나 눔 사

주지 무일

신 도 일 동

■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109번지
TEL 055)253-8340

대한불교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 덕 사

주지 행봉 해륜

신 도 일 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55번지 2반
TEL 033)432-7345

대한불교조동종 남해종무원장 주석사찰

금산 미륵암

주 지 청운

신 도 일 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55)867-0776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지사장 청운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55)867-0776



풍경소리 하나 없이 연등 몇개 걸린 인법당, 작은 선방, 허리굽은 석탑, 산새 지나간 산신각. 경허 선사의 보림처 서산 천장암의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풍경이다.

5월의 신록·바람·산새도 연등 되었네

서산 연암산 천장암(天藏菴)



대중이 선방에서 정성껏 초파일 연등을 만들고있다.

연등이 걸려있다.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음이다. 가파른 산길 위로 법당 지붕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풍경(風磬)소리 하나 없다. 연등 몇 개 걸린 인법당 하나. 작은 선방 하나. 몇 걸음 안 되는 마당 하나. 허리 굽은 석탑 하나. 마침 지나가는 산새 하나. 산새 지나간 자리에 산신각 하나. 연암산 천장암(주지 허정)이다. 633년(백제 무왕 3)에 담화 선사가 세웠다.

선방 쪽에서 인기척이 있어 다가갔다. "60개만 만들면 돼요." 대중 다섯이 연등을 만들며 초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조촐하다. 방 한 쪽에 붉은 연등들이 쌓여 있다.

"저는 천장암 신도는 아니에요. 수원에서 왔어요." 본묘월(60) 불자는 공양주의 부탁을 받고 왔다. 손끝엔 붉은 풀물이 진하게 들었다. 공양주는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 절을 찾았다가 공양주가 됐다. 나머지 두 사람도 천장암 신도가 아니다. "저희는 본묘월 님 따라왔어요." 붉은 손으로 하얀 찻잔을 건네는 '경'자 '안'자 스님도 천장암에 오신지 3일 밖에 안 됐다. 주지 스님은 안 계셨다. "서울 총무원에 가셨습니다. 지금 서울 쪽이 많이 어수선하죠?" 경안 스님이 서울서 온 기자에게 물음표 없이 물었다. 경안 스님의 '서울 쪽'이란 말이 '이쪽'과 '저쪽'을 선명하게 가르는 것 같았다. 그랬다. 산문 밖은 도박을 했다는 스님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의 보도로 한국 불교 종단 중에 가장 큰 종단이 힘들어졌고, 한국의 불교와 스님들이 함께 힘들어진 상황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불교를 생각해야 돼요. 모든 스님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불교'가 욕먹는 건 안 돼요." 본묘월 님을 따라 왔다는 두 불자가 꽃잎을 붙이며 입을 모았다. "경허(鏡虛;1849~1912) 스님이 쓰시던 방 보셨어요?" 경안 스님이 화제를 돌렸다. 그렇다. 천장암은 '경허'의 도량이고, '경허'가 천장암의 역사다. 천장암은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량이지만 그 천년을 채워줄 만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다. '경허' 이후의 흔적만이 그 천장암의 역사를 채우고 있다.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견성한 후 보림처로 삼은 곳이 천장암이다. 당시 스님이 1년 3개월 동안 장좌불와를 했던 방이 살아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이다. 들어가 앉아 보았다. 문을 닫고 앉으니 시간이 닫힌 듯 했다. 아니 시간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스님이 왜 이토록 작은 방을 택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나'외엔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었다. 벽에 걸린 스님의 진영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스님의 진영이었지만 스님의 방에서 보는 진영은 멈춘 시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스님은 이 작은 방에서

경허 선사 시비·생사 끊은 구도본향
5명이 만든 봉축 등 60개 도량 장엄
어수선한 '이쪽' 밝혀줄 '저쪽' 등공양

모든 시비(是非)를 끊었고, 염정(染淨)을 끊었고, 생사(生死)를 끊었고, 승속(僧俗)을 끊었다. 이토록 작은 방에서 그토록 걸림 없는 생각과 커다란 실천이 나왔다고 생각하니, 스님의 방은 결코 작은 방이 아니었다. 스님으로 인해 한국의 선불교가 다시 일어났고, 수월·혜월·만공으로 이어진 계보는 한국불교를 풍성하게 했다. 그토록 의미 있는 불사와 역사가 이 작은방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방문을 열었다. 짙어가는 신록이 바람을 실어왔다.

선방엔 붉은 연등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었다. "많이 하셨어요?"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등은 정성이에요." 본묘월 님의 손가락엔 이제 붉은 풀물이 제대로 들어 있었다. 천장암엔 신도회장도 없고, '큰손'이라 불리는 '보살'이나 '거사'도 없었다. 신도 아닌 신도 몇이 붉은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등을 만들고 있었다.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다.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 아기부처님 맞을 준비로 여념이 없다. 도심의 큰 길마다 연등이 걸리고, 큰 사찰의 마당엔 연등을 거는 불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천장암은 '경허'라는 커다란 이름과 많은 선지식이 거쳐간 유서 깊은 도량임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적었다. 대중 다섯이 만들어 올리는 등 60개가 전부인 도량이다. 기자가 조금 안타까워하자, 경안 스님은 이대로가 좋다고 했다. 조금 초라해 보이고 명성에 걸맞지 않아 보이지만 적막한 절은 적막한 채로 두어도 좋다고 했다. 그랬다. 경안 스님의 천장암은 확실한 '저 쪽'이었다. 어지러운 사바의 저편에 꼭 있어줘야 할 '저 쪽'이었다. 흙탕물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저 쪽'은 있어야 하고, 천장암은 그런 자리 중 하나였다.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참 좋은 날이다. 그 날 하루만이 아니라 중생들에겐 모든 날이 부처님오신 날이다. 부처님은 '오고감' 없이 늘 우리 곁에 계심을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천장암의 풍경이 말하고 있었다. 그 옛날, 난타(難陀)가 어렵게 만들어 부처님께 올린 등은 모든 등이 꺼진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초파일 법회땐 '천장암 난타'가 만들어 올린 60개의 붉은 등이 도량을 장엄할 것이다. 전국의 연등이 다 꺼져도 천장암의 연등은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사바는 언제나 어지럽고 힘겨운 곳이었고, 중생들은 늘 '지금'이 가장 힘들다. 모든 등이 천장암의 등과 함께 어수선해진 세상 구석구석을 밝혀주길 서원하며 천장암을 나섰다. **서산 천장암=박재완 기자**



경허 스님이 1년 3개월 동안 장좌불와하며 머물던 방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2005년 부터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5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4세대)를 건립하게 되여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
| **세대수 34세대** : 10평-6세대, 12평-6세대, 13평-5세대, 21평-6세대, 23평-6세대, 36평-1세대〈옥상 선방건립(달마선원 30평) 예정〉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5月 30日 | **입주예정일** : 2012년 6月 5日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 B27 전면광고

우리 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가야 할 존재이거늘 그만 어느 곁에 잊고 살기 마련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크고 작은 다툼 떠나 초연할 것을

익산시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지광(숭림사)
수석부회장 혜안(태봉사)
부회장 덕림(관음사)
부회장 도진(관행심인당)
총무(재무) 일행(정각사)
간 사 정수(금강 관음사)

사부대중 일동

■ 전화 063)862-6394.854-1578

대한불교조계종

익 산 관 음 사

주지 덕림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 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전화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천호산 백 운 사

주 지 : 우 성
신도회장 : 이수원
사 무 장 : 박문재

신도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전화 063)836-8047. 836-5984
http://www.baekwoonsa.com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박중근
포교사단 능인회장 고태용
마한거사림회장 오창록
천천마한클럽 장학회
사무국장 김한철
대원회(봉사단)회장 모순영
가릉빈가 합창단 단장 문순복
봉축기획, 집행팀장 김진수

■ http://cafe.daum.net/익불련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 국 사

주지 종명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전화 063)462-5366
http://www.dongguksa.or.k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전화 063)857-6533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남 고 사

주지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전화 063)286-9640

지장신앙의 성지를 추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영 선 사

주지 월공(月空)

(사)사람과 희망
등용(登龍)청소년공부방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32번지
전화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미타도량 성불사

주지 종걸

성불사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15-1번지(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http://www.seungbulsa.com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주정기
수석부단장 고태용
부 단 장 김기운
감 사 최학성, 구강식
군포교총괄팀장 이성강
사무국장 강석춘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전화 063)252-4940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전화 063)466-6055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전화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말사

영 주 포 교 당

주지 도륜

금강불교대학.신도회.
거사림회.연꽃회

■ 경북 영주시 영주2동 411-2
전화 054)632-3767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비 로 사

주지 성공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전화 054)638-5033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지 도기

신도일동

관음유치원.군포교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전화 054)633-1138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지 무여

- 문수선원.시민선원
- 불교대학.대학원
- 축서사합창단
- 바라밀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극락원(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 조계종

흑응산 연 방 사

주지 일봉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전화 054)654-2464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서 악 사

주지 세관

사부대중 일동

*룸비니유치원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3
전화 054)655-1001

한국불교 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련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전화 02)701-7488

금 풍 인 견

천연펄프(나무)로 만든 옷

* 침구류(혼수품)이불 남성복.여성복.아동복
*자연염색옷(여성복 가방)
*인견대리점하실분 전국모집
*얼음옷이라고하고 여름에는차고
겨울에는 따뜻한나무로만든옷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58
전화 054)636-3551~2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 Hwagyesa

불기 2556년 임진년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신도회장 대법성

사부대중일동

사시예불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거사회 108 참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30분
국제선원 영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4시 (내, 외국인)
수선회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 ~ 3시30분
어린이/학생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청년회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선우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3시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9시 ~ 새벽3시30분
철야다라니기도	매주 2째주토요일 오후9시 ~ 새벽3시30분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 ~ 3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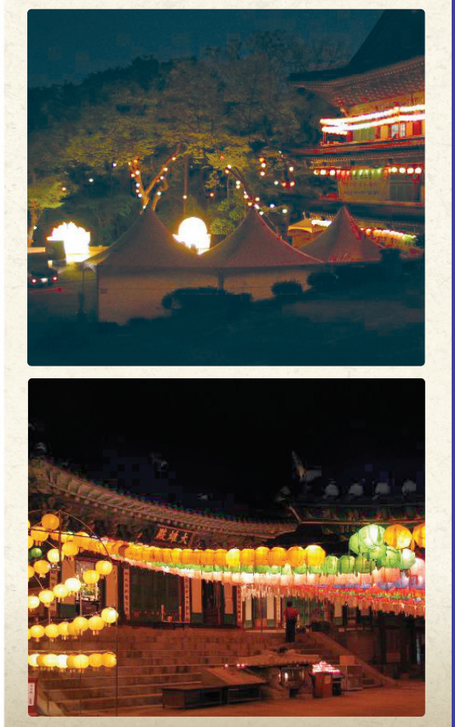
"1불자 1자비 실천" 운동 자비보시기금회 활동

국민은행: 354-25-0004-961 예금주: 화계사

결식아동급식, 실직가정 지원	생명나눔,호스피스,장애예방 활동
독거노인,복지센터,도서벽지지원	재활원,의료 병원 요양환우 지원
라오스화계초등학교 육성후원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지원
군법당,경찰서	국제선원,도제양성/법보시 포교

신도교육 / 불교대학 사무처 ☎ 02-997-6469

기본교육과정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교 양 과 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불 교 대 학	주간 1,2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주말 1,2학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30분
불교대학원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3시 주말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5시30분
경 전 반	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3시 주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wwww.hwagyesa.org ☎ 02)902-2663 전송 02)990-1885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더없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밝힙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전화 : (02) 993-3161~3 팩스 : (02) 993-3164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 천태종

서 울 관 문 사

주 지 김영제



총 무 곽수산
재 무 구성해
노 전 장보성
부전거사 황기수
신도회장 장영일

신도일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번지 전화 : 02)3460-5300 / 팩스 : 02)3460-5200 www.gwanmunsa.org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홍련암**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조 실 霧山 五鉉
주 지 무 문
사부대중일동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관음회
· 보현회
· 의상회
· 바라밀회
· 합창단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낙산사 복지재단
· 상락원
· 낙산노인복지센타
· 양양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낙산무료급식소
· 낙산모자원
· 양양시니어클럽
· 양양군노인일자리사업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